

20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보고서

11



20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보고서**

11

01 _ 발대식 인사말씀 및 노인인권지킴이단의 다짐 005

02 _ 지킴이단 발족의 취지 및 활동 009

03 _ 지킴이단 활동 소회 글모음 013

서울·경기지역 014

활동일지 015

활동소회 016

활동평가 093

부산지역 094

활동일지 095

활동소회 096

활동평가 135

광주지역 136

활동일지 137

활동소회 138

활동평가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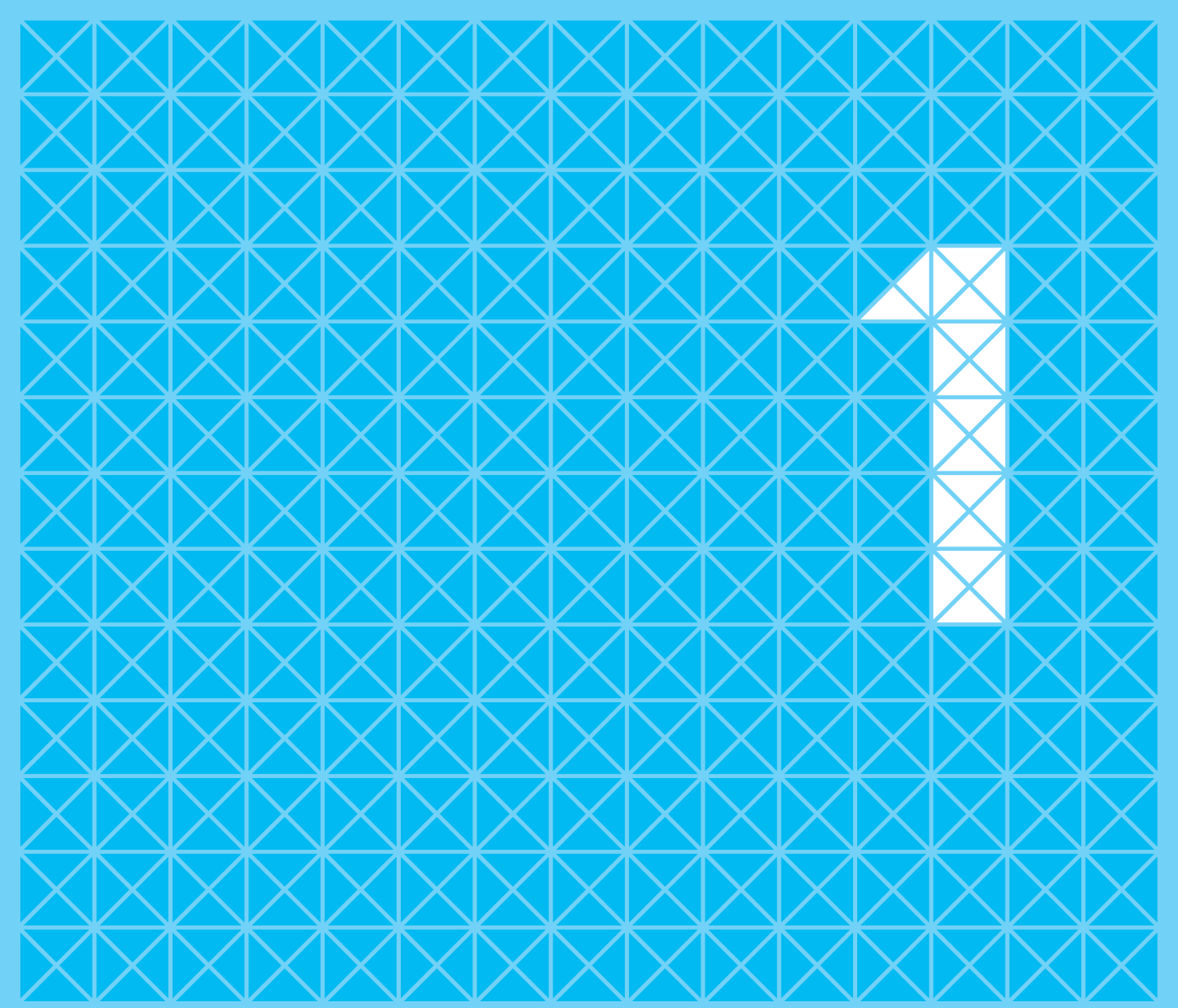
대구지역 176

활동일지 177

활동소회 178

활동평가 221

04 _ 세계인권선언 및 노인을 위한 UN원칙 223



01

발대식 인사말씀 및
노인인권지킴이단의 다짐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약 11%에 해당되는 535만7천명입니다. 그러나 노인학대, 빈곤, 고독감, 질병에의 노출 등 우리 사회에 비춰지는 노인상은 부정적인 면이 오히려 많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황혼이 어둡다는 사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창립 때부터 노인인권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다양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하던 중 2009년 시작한 노인인권지킴이단은 노인 당사자 스스로가 노인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훌륭한 사회적 경험을 쌓고 은퇴하신,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어르신들로 구성된 지킴이단은 제 1기에는 인권상담 활동을 펼치고, 제 2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모니터링 하며 노인인권에 다각도로 접근하였습니다. 올해로 제 3기를 맞이하는 지킴이단은 예년과는 달리 인권위 지역사무소를 중심으로 노인인권의 영역에 속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특화된 사업을 펼쳤습니다.

노인지킴이단의 활동은 노인을 수혜의 대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사람’으로 보는 것, 즉 노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 바탕을 만드는 값진 일입니다. 그동안 여러 지킴이단 여러분은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으로 활동해주시면서 스스로 노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의 디딤돌을 쌓아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노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3기 노인인권지킴이단 여러분도 활동하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노인인권지킴이단의 다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우리 사회 노인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옹호하고, 그 현실을 살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우리는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에게 다가가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한편, 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노인 정책이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상 생활 속의 인권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건강한 비판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충실하게 토론하여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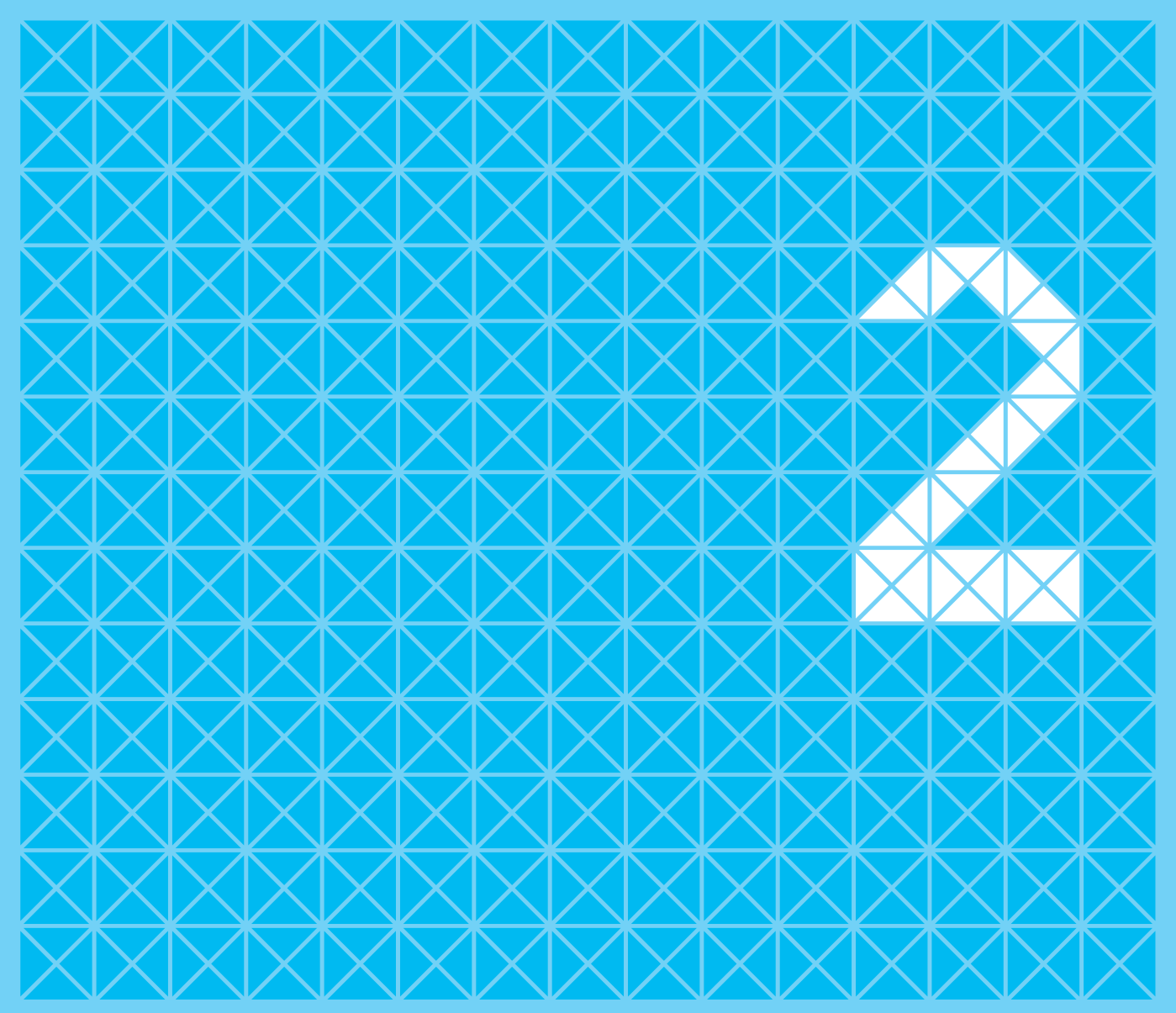
우리는 우리의 활동 과정에서 만나게 될 노인 당사자, 공무원, 시설 종사자, 기타 일반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견지하겠습니다.

우리는 노인의 인권 신장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향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더불어 어린이·여성·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인권지킴이 일동

늘푸른 하우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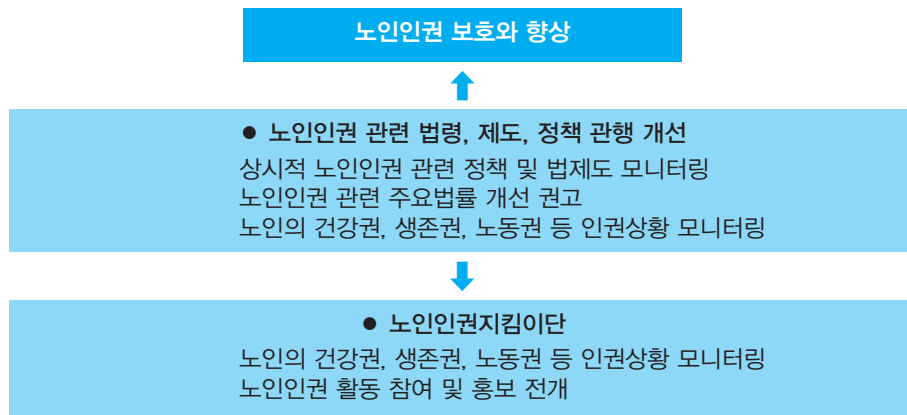
지킴이단 발족의
취지 및 활동

2011년 노인인권지킴이단 사업

‘2010 한국의 사회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백만을 넘어서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약 11%에 달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이 인권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하는 실정에서 노인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지킴이단 사업은 노인문제를 복지가 아닌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만 인식하는 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인문제를 인권적 관점 (독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에서 검토하며, 노인 당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인인권문제를 개선해야 나갈 목적으로 2009년 시작되었다.

‘노인인권지킴이단’의 목표는 노인의 건강권, 생존권, 노동권 등 노인들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과 함께 노인인권문제에 노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최대한 활용하고, 위원회의 인권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담보하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이끌어 내고, 이로써 노인인권의 실질적인 보호와 향상을 이뤄내고자 하는 것이다.



2011년 노인인권지킴이단 개요

2011년도 노인인권지킴이단은 전국 95명(수도권 38명, 부산 17명, 광주 20명, 대구 20명 공개 선발 후 위촉)의 지킴이단으로 발족되었다.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혹서기 8월 제외) 주 1회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였다. 전국의 노인인권지킴이단이 동일한 모니터링 활동을 했던 이전 기수와 달리 2011년 제3기 노인인권지킴이단 사업은 개별 지역사무소를 중심으로 특화된 사업을 전개하였다.

수도권 -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수도권에서는 노인 대상 여가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정부 정책을 비롯해 노후에 대한 접근이 대개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어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은 차순위가 되지만 실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사회참여 또한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노인 여가활동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였다.

광주 - 노인복지시설 내 진정한 설치여부조사

광주지역사무소에서는 노인복지시설(주거시설+의료시설) 내의 진정한 설치여부를 모니터링 하였다. 노인의 경우 복지시설 내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 이용자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생활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시설 내 진정한 설치의 적절한 설치는 필수적이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광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권리구제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부산 – 노인 취업알선체계 및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실태조사

부산지역사무소에서는 노인의 노동권에 대한 이해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서비스 영역별 인권실천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도출하기 위해 노인 취업알선체계 및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였다. 모니터링의 결과는 노인 취업직종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 점검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대구 –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대구지역사무소에서는 지킴이단들이 모니터링 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활용해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 했다. 모니터링은 지자체와 복지관과 협조하여 이뤄졌으며, 이들 프로그램 중 독창적이고 모범적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발굴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03

지킴이단 활동
소회글 모음



김경옥



김병철



김선숙



김영길



김용덕



김진영



김환동

서울경지지역

노인인권지킴이단



문수일



박명하



박현숙



서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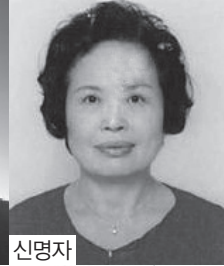
손귀자



송기숙



송충웅



신명자



양창식



위광년



윤명희



윤옥석



윤은식



이국영



이회승



임건택



임병량



장덕현



장명자



전화수



정방섭



정은영



정정환



조희상



진중경



최강주

서울·경기지역 활동일지

05.26 수도권 노인인권지킴이단 발대식

<행복조>

- 06.29 모니터링 주의사항 및 활동매뉴얼 교육
- 07.14 강북노인종합복지관
- 07.21 마포노인종합복지관
- 07.21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 07.28 성동노인종합복지관
- 07.28 용산노인종합복지관
- 08.18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 08.25 노원노인종합복지관
- 09.06 서울시청 노인복지과 방문
- 09.15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09.15 은평노인종합복지관
- 09.22 서울노인복지센터

<서남조>

- 06.30 모니터링 주의사항 및 활동매뉴얼 교육
- 07.11 송파노인종합복지관
- 07.19 강남구노인복지관
- 07.26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 08.23 논골노인복지관
- 09.06 서울시청 노인복지과 방문
- 09.20 방배노인종합복지관
- 09.27 동작노인종합복지관
- 10.04 양재노인종합복지관
- 10.12 강서노인종합복지관
- 10.19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 10.25 강남 시니어 플라자

<경인아람조>

- 06.24 모니터링 주의사항 및 활동매뉴얼 교육
- 07.05 부천시 소사노인복지관
- 07.12 부천시 원미노인복지관
- 07.14 남동구노인복지관
- 07.19 부평구노인복지관
- 09.06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방문
- 09.20 효성노인문화센터

- 09.20 계양구 노인복지관
- 09.27 남구노인복지관
- 09.27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 10.04 주안노인문화센터
- 10.04 서구노인문화센터

<수락산천사조>

- 06.29 모니터링 주의사항 및 활동매뉴얼 교육
- 07.07 일산노인종합복지관
- 07.14 의정부시노인복지관
- 07.21 동두천노인복지관
- 09.06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방문
- 09.15 구리시여성노인회관
- 09.22 파주시노인복지회관
- 09.22 덕양노인종합복지관
- 10.06 도봉노인종합복지관
- 10.06 신내노인종합복지관
- 10.13 악수노인종합복지관
- 10.20 성북노인종합복지관

<향나래조>

- 06.30 모니터링 주의사항 및 활동매뉴얼 교육
- 07.06 버드내노인복지회관
- 07.13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 07.21 의왕시아름채복지회관
- 09.06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방문
- 09.07 용인시노인복지회관
- 09.21 상록구노인복지관
- 09.28 만안구노인복지관
- 10.12 단원구노인복지관
- 10.14 SK 청솔노인복지회관
- 10.19 군포시노인복지회관
- 10.26 서호노인복지회관

- 12.08 수도권 노인인권지킴이단 해단식



노인인권 지킴이 활동을 마치며

김경옥 (서남조 코디네이터)

00복지관이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낸 협조공문 확인하셨나요?

아니오. 안 왔습니다.

여가활동 프로그램 모니터링문제로 복지관을 방문했으면 하는데요.

이번 달 복지관행사가 바빠서 안되겠습니다. 뚜~~~ .

일언지하에 거절이다. 휴 --

따르릉~~ 네. 00복지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방문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제가 확인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전화 주셨네요.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수요일 뵙겠습니다.

방문한 날, 현관출입문에 지킴이분들 방문을 환영한다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고마워라 ~~ 이런 환영도 받아보네.

7월부터 시작하여 10월이 다 가는 지금. 서울 남부의 복지관 10곳을 방문하고 모니터링 일을 마쳤다. 여러 번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을까? 하는 후회도 했고, 지킴이 일을 환영하며 좋은 일하신다는 담당자들의 말을 들으면 자부심도 가지면서 3개월을 바쁘게 보냈다. 요즘 트렌드가 “복지”다. 특히 노인 복지문제는 선거철마다 주요 공약사항이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이제는 부를 나누는 사회복지가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세워져야 할 때이다. 복지관에서 만난 대부분 어르신들은 이제 살기 좋아져 이런 혜택을 받고 사니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가 하면 이만큼 살게 된 것이 누구의 덕인데 국가가 월 9만원의 보조금만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려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분도 계셨다. 복지관에 나오셔서 혜택을 누리는 어르신들은 그나마 행복한 분들이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거나 홍보부족 또는 여러 사람과 어울리기를 꺼려하여 외롭게 생활하며 어려운 환경에서 근근이 살고 있는 어르신들도 많다.

지난달 88세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던 친정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다.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다른 아버님들과는 복지관에서 만나 인사도 나누고 어려운 문제들에 상담도 해드렸지만 정작 내 아버지의 어려움은 한 번도 진솔하게 들어드리지 못한 불효를 새삼 느끼며 장례 동안 내내 애통해하였다. 부모님부터 살펴드리는 것이 노인문제 해결의 시작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예전에 민속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할머니 한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 노인들이 가진 삶의 지혜와 경험들을 젊은이에게 가르쳐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이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다.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하면서 가정문제, 교육문제, 여성 문제등이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아닌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들과 아직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시니어들이 경제적 활동을 계속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륜을 사회에 다시 돌려주면서도 노후를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제도나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말처럼 인간은 누구나 마지막에 후회를 한다.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국가인권위원회 3기 노인인권지킴이 활동을 마친다.



노인복지관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소견과 문제점

김병철 (행복조)

저희 1조(행복조)는 2011년 7월14일 강북 노인 종합복지관을 필두로 2011년 9월22일 서울 노인 복지센터를 끝으로 10개 노인 종합복지관 모니터링을 무난히 끝마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함께 뜻을 한 행복조 여러분에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2기 노인 인권 지킴이단에 이어 제3기 노인 인권지킴이단에도 참여함에 따라 멀리에만 여겼던 인권이란 용어 말 자체가 익숙한 만큼 나에게 깊숙한 마음속 깊이 스며들며 노인의 여가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참여하게 된 것을 어느때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 사고로 임했으며 매우 유익한 활동이었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느낀점과 문제점

대다수의 복지관 프로그램은 비교적 많은 기간 동안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회원들의 선호도 및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그 프로그램은 50개 내지 100여개에 달하는 많은 프로그램 항목들은 비교적 대동소이하며 몇 복지관의 특이한 프로그램을 찾을수 있다

인권관련 프로그램과 인형극(인권관련) 장례서비스 후기 고령대상 평생 교육 프로그램등이 그 예이다 프로그램의 종류가 100여개에 달하는 복지관은 그실 효성도 한번 검증할 필요성도 느낀다

나에게 경이로울 만큼 느끼는 것은 복지관이 노인을 상대로 노인 인권에 대

한 교육을 정기적 또는 수시라도 교육하는 복지관이 많지 않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점은 이 기회를 통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듯합니다

개선 및 건의사항

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보면 시에서 보조해주는 일정 예산이 너무 부족하여 후원재단(기독교 불교)의 기금을 통해 운영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태껏 정부(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길이라면 이제는 노인들을 위하여 시에서 실천적 행동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계층은 65세 이상 노인들임을 감안하면 접근성이 용이하며(교통)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이 필요함에도 일부 복지관은 그 위치가 너무나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모니터링 활동 소회

■ 김선숙 (행복조)

모니터링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였을 때가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프로그램 강사로 복지관에서 활동한 지 20년 가까이 되었고 노인 복지에 관심도 있을 뿐 아니라,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신청을 하였지요.

그러나,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활동하는 것이어서 지킴이단 선생님들과의 10회기 활동 시간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간이 정해진 후부터는 지킴이단 선생님들 모두 한결같이 협조도 잘 해주셨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좋은 분위기 속에서 활동을 잘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활동 뿐 만이라, 특히 식사시간의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었지요.

모니터링 활동 시 느낀 점

- 1) 선생님들 모두 잘 해주셨지만, 굳이 시정해야 할 점을 들라면, 시간 약속을 지켰으면 합니다.
- 2)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활동 지침을 준수할 것을 바랍니다. 이 말은 지킴이 선생님의 말씀이 자칫하면 지적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어느 기관에서는 특히 협조를 대단히 잘 하는 곳도 있었고, 비교적 협조를 다 잘해주었습니다. 본부 측에서 복지관에 활동 협조 내용문을 팩스로 보낸 후, 복지관에서 확인 부서와 프로그램 실시하는 부서와의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던 곳이 있

어서 활동하는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4) 시청 노인 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시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습니다.

5) 코디 활동 보고서 작성 시 모니터링 활동과 중복 되어 별 쓸 말이 없었습니다.

복지관의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느낀 점

1) 복지관의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중 거의 대동소이했다고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컴퓨터는 기본이고, 바둑, 포켓볼, 노래교실, 한글 교실, 외국어교실, 스포츠댄스 등 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컴퓨터반에 어르신들의 신청이 몰리고 있어서 신청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 분야에 예산과 인력을 늘려서 컴퓨터 기기 확충과 교실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목욕 시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었는데, 가능하다면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3) 어르신들의 다양한 학력과 경력을 토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4) 노-노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상담교육도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 복지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기도 하지만, 행복조 활동했던 복지관 중에서는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모범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더군요.

5) 저 개인적으로 여러 해 동안 많은 복지관에서 실시했던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관계훈련 프로그램, 음악치료,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웰 다잉 프로그램,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 등입니다.

웰 다잉 프로그램은 노원노인복지관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이미 모범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지만, 타 복지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삶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존감 회복, 나아가 다가올 죽음에 대한 준비와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지요.

끝으로 10회기 활동하는 동안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노인인권과 복지의 밝은 비전을 보았습니다

김영길 (수락산천사조)

지난 6월에 출발했던 제3기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이 10월20일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얼마간의 성취감을 최소한 금년에는 더 경험할 수 없으리라는 아쉬움과 더불어, 매주 가졌던 작은 부담감을 덜게 되었다는 흥가분함을 함께 느낍니다.

솔직히 제3기 활동을 시작할 때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과 운영실태,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일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노인인권지킴이단 구성원들의 면면으로 보아서도 좀 가벼운 과제가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경우,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방문한 노인종합복지관의 수가 늘어나는 동안 처음의 회의적인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우리가 해 온 모니터링 활동의 효과를 몇 가지 점에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첫째, 다른 일도 그렇지만 복지관의 시설이나 운영, 프로그램의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노인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체계적,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진행 또는 인권적 측면에서 보다 올바르게 세심한 관리를 하게 되리라는 점입니다.

셋째, 이러한 활동에 이어지는 파급 효과 또는 기대 효과로, 우리가 방문하지 않은 전국의 많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점진적으로 인권과 복지의 관점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노인인권지킴이단의 멤버로 활동하기 전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체제와 분위기가 전통의 경로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활동을 통해 나 자신이 새롭게 느낀 것은, 복지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경제적 환경이나 관리주체의 성향에 따라 외관과 분위기에 차이가 없지 않았지만, 노인복지의 평균적 수준이 보통의 인식 정도 보다 좋다는 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몇 년간 운영해 온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을 계속하다보면, 앞으로 노인인권과 복지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견인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밝은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 여러분과, 고락을 함께하며 활동했던 수락산천사조(組) 지킴이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관에도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

김용덕 (서남조)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의 사업이 사회교육, 노인일자리, 데이케어센터, 경로당활성화, 재가복지, 상담사업, 자원봉사단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가장 핵심사업이 사회교육(건강, 교양, 컴퓨터, 외국어, 취미등)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보통 10,000명 이상의 등록 회원과, 매일 1,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10군데의 복지관을 방문하면서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은 복지관에 오시지 않는 어르신들이다.

복지관에 오시지 않거나 못하시는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첫째 직업을 갖고 계시거나 나름대로 바빠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둘째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셋째 모르셔서, 넷째 들을 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다섯째 수강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등이며 아마도 이 중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복지관도 오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복지관이 회원 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욕구조사를 정기적(대개 년 2회)으로 하고 있으나, 왜 안 오시는지, 어떻게 하면 오실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는 계시는지 등등을 조사하여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도 비회원이나 이용하지 않으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이런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 물론 조사 자체가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고, 조사를 했더라도 복지관의 여러 여건(시설, 인력, 비용 등)상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그래도 여건이 비교적 좋으신 분들이다. 종묘나 탑골공원으로 매일 출근하시는 분, 얼마 안 되는 돈이나마 생활비에 보태 시려고 하루 종일 폐지를 수집하시느라 동네를 헤메시는 분, 건강이나 다른 이유로 집에만 계시는 분 등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노인 복지사업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은퇴 후에도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하는 시대이다. 노인들에게 단순히 여가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노인들에게 좀 더 현실적이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활동을 마치며

김진영 (항나래조)

노인관련 복지기관의 여가프로그램운영실태를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되었다. 무엇보다, 노인의 시각에서 오늘의 노인의 위상과 복지 차원의 정책 및 관련된 운용실태를 살펴볼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감사하게 생각 된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또는 관련기관이 일방적으로 노인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이 눈에 띈다. 사실은 노인은 노인 나름의 인간적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데도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 됐지 무슨 요구가 또 필요하느냐는 자세로 밖에 안보인다.

프로그램은 천편일률적으로, 강의료는 몇 천원이라는 저렴성만 강조하는 현실을 그저 고맙게만 생각하기엔 서글픈 마음이 생긴다. 모든 일이 소비자 또는 수혜자 입장에서 시작 해야만 마땅 하건만 웬지 관리자 입장과 예산에 얽매여 본질을 망각한 것이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목(예컨데, 독거노인의 식사, 세탁, 건강관리 및 경제생활 등)이나 노인의 일자리 개발관련 노력이 아무데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현실적 예산을 무시한 무리한 요구라 말하면 할 수 없으나 점진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초고속화하는 고령화 시대를 맞는 적절한 대책이 아닌가? 돈이 들어야 우수한 강사를 모실 수 있거나 꼭 필요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면, 수혜자가 어느정도는 부담을 해서라도 실현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요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할 일이라면 조율을 해서라도 단계적 실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방적 베품이 아닌 상호 교류하는 공존이 노인을 그저 노인으로만 바라보고 정책을 시현하는 오늘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비전과 철학이 담긴, 다시말해 노인을 노인의 본질에서 존엄한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 대하는 자세야말로 오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노인인권지킴이의 가치있는 활동

김환동 (서남조)

제3기 노인인권지킴이단에 처음으로 참여하여 활동을 시작한 후 10여회의 모니터링을 마치고 활동을 마무리 할 시기가 되니 지금까지의 활동이 새삼 가치있고 아름답게 느껴지고 있는데 이는 아마 나 자신도 노인이라는 나이 범주에 속하고 있어 스스로의 인권을 소중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인권위의 사이버교육에서 인권교육을 수료한 후로는 인권에 대한 폭 넓은 인식과 인권은 스스로 지키고자 할 때 인권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특히 고령사회에 접어 든 우리현실에서 노인인권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활동목표인 노인복지관의 “여가선용프로그램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하여 모니터링을 하면서, 나 자신도 이용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어서인지 실무자나 이용자들과 대담하면서 피부에 와 닿는 대화가 많은 가운데 몇가지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보는 것으로 활동의 의의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현황

각 복지관별로 60~80여개의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하고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는 모습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

현재의 모든 프로그램이 전부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앞으로는 “친자연환경적인 야외프로그램 개발” (예 : 게이트 볼, 인근 공원의 워킹과 숲 해설, 문화유적 설명 등)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서울시 노인 복지과를 비롯하여 방문한 복지관 전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인권교육의 부족함과 이용자권리 게시가 미흡한바, 이는 인권에 관한 직접적인 사항이므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의 보완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용자 개인 정보관리상태가 매우 미흡한바 특히 노인의 정보가 쉽게 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복지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하고 조속한 대안 마련에 힘써 줄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번 지킴이 활동이 심도있게 진행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인을 위한 복지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인권위 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회를 향하여

■ 문수일 (경인아람조)

인천지구 노인여가프로그램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10곳을 방문하였다. 지나간 젊음을 아쉬워 하며 황혼의 시절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그리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복지는 과연 어떠한가?

여러곳의 노인문화센터는 쾌적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은 물론 풍부한 장비 등 각종시설은 수준급이었다. 복지관 역시 서울지구보다는 달리 어르신들의 활동을 배려한 아담하고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많은 신경을 썼으며,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등 건강에 대한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외형적인행사는 지향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과 건강검진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시설과 복지재단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어느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노인사회 역시 경제수준과 건강상태에 따른 양극화현상이 우려된다. 기본적인 노인복지강화를 비롯한 각종시설 증진은 물론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회정책의 방향이 이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2011 어르신복지관 등 모니터링 후의 느낌 및 건의사항

박명하 (경인아람조) |



2009년 말경 약 3개월에 걸친 ‘희망제작소 행복설계아카데미’ 수강과정 첫날 ‘프레드 니틀’의 Fix You를 듣고서 충격과 감명을 받았었지요. 그래서 이 지킴이단 신청을 했었지요. 3기 노인인권지킴이단 워크숍(5.30~31)을 통한 ‘세계인권선언’,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과 모니터링 방법, 활동매뉴얼 등은 방문기관의 상담자들과 복지사들을 배려하는 모니터링에 아주 유익하였습니다. 경인아람지킴이단 코디님의 수고와 지휘로 선생님들과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지킴이단 경인아람조는 부천 및 인천지역의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회관 등 10개소를 방문하였지요. 경인아람조는 매뉴얼의 일상적 체크보다 『실태-문제점(애로사항)-발전방향 또는 대안』을 위주로 모니터링에 임하였습니다.

- 실태 : 시설보강 등 약 3년 이내 ‘새복지관 건축 이전(중기계획)’을 부천시에서 가지고 있음. 복지사의 봉급이 열악하여 이직율이 높은 현실임.
- 의견 : 복지사의 봉급 현실화 및 보장은 복지관 질과 운영 및 서비스 향상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 됨 - 관련 예산의 지원 등이 고려되길 바람.
- 기타 발전 방향 : ☞ 복지시설 절대 부족지역임으로 송내2동 소재 ‘부천문화원(현 3층)’을 개축하여 복합복지관(수영장, 어르신, 어린이, 유아원, 통신대학습관 등 복합복지시설)화 하도록 부천시에서는 적극 검토 필요지역임.
- 실태 : 원미구노인복지관 (강사들과의 상담시 이 복지관 발전에 최우선 사항이 있다면?). 시설전체 선풍기 시설상태로 문을 열어놓고 음악등과 함께 체조시에 시끄러움에 의한 주택가 항의 등 어려움에 있음.

- 의견 : 복지사의 정규직화와 봉급 현실화는 우리사회 전체의 복지관 질과 운영 및 서비스 향상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 됨 – 관련 예산의 지원 등 고려 바람.
- 기타 발전 방향 : 시설 전반(교실, 체육시설 등)적으로 냉·난방기 설치가 이뤄지도록 부천시와 수탁기관에서는 협의 및 적극 검토 필요함.

근무 복지사 및 전담직원 매뉴얼 외 추가 보강설문

설문1) 귀 노인복지관의 가장 미흡한 분야는?

- 실태 : 하루 이용 인원 700~800명의 많은 인원이 복지관을 방문하심.
- 의견 : 이용 인원에 비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 (상담 및 사회교육 전담 복지사 1명). 여가문화시설 뿐만 아니라 어르신 각 개인의 경제적 · 신체적 · 정신적인 어려움의 토로를 모두 듣고 상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대안(또는 발전 개선안) : 노인상담 전담인력 배치 및 상담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설문2) 노인복지분야 중 가장 보완이 시급한 분야는?

- 실태 : 00구에 위치한 노인 관련 여가문화시설은 00구노인복지관이 유일함.
- 의견 : 노인대상 여가문화시설이 00구 노인 인구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상황.
- 대안(또는 발전 개선안) : 00구 어르신들이 좀 더 다양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문화센터의 설립이 필요함. 또는 00구지역 180개소 이상의 경로당들을 활성화하여 경로당 안의 작은 문화센터를 만들어 어르신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투입 필요.

설문3) 기타 복지발전을 위하여 제안 할 사항은?

- 실태 : 선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어르신 개인의 취향이나 여건에 맞지 않은 경우 복지관 규칙에 위반되어도 시 · 구청 및 정치인들에게 민원을 제공하면 복지관 측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
- 의견 : 사회복지사의 투명한 업무처리와 사기진작을 위해 정치적 압력행사는 지양되도록 보건복지부 등에서 예방적 공문을 시행함이 좋겠음.

복지관 발전방향 및 기타 의견(효성노인문화회관)

- 실태 : 예산제약선도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시설, 장소, 시간적으로 참여 한도 인원 이상의 인원 및 중단기 이동 거주 노인이 참석치 못하게 되는 아쉬움이 있음.
- 의견 : 어르신(노인)들이 자녀 집 방문 등으로 1~2주 정도 등의 중기 또는 단기 이동 거주시에 이동지역에서의 문화센터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 후의 건의사항

1. 사회보장법, 노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순화

어르신 입장에서 당사자에게 어감이 좋은 우리말 존중어로 순화하여 수정하길 건의함.

(예시) 노인→어르신, 노인복지법→어르신복지법, 노인복지관→어르신복지관, 노인문화→어르신문화, 노인종합문화회관→어르신종합문화회관, 노인문화센터→어르신문화센터(또는 어르신문화의 뜰), 경로당→어르신 쉼터, 고령사회→장수사회, 고령화사회→장수화사회

2. 예산의 확충 및 지역사회 자체해결 노력 강화

모든 어르신복지관 및 어르신문화센터 등에 예산의 부족함은 지역사회 및 유지들로부터 보완될 수 있도록 '나눔의 문화'가 지역사회 자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또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근무하는 복지사 등 종사자들에 대한 직업의 안정화와 보수의 증액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임.

3. 시설 어르신끼리의 자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배려와 교육의 강화가 필요

동아리 활동을 통한 동아리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산 권유할 수 있길 바람.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중간 형태인 '노인문화센터'가 어르신복지 향상에 좋은 방안임을 느꼈음.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 후기

▣ 박현숙 (행복조)

국가인권위 노인지킴이단 활동은, 퇴직 후 나의 첫 공식(?) 활동인 셈이다. 나름으로는 퇴직 후 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의 ‘노인복지관의 노인 여가 활동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활동 과정을 통해, 우리 노인들을 위한 서울시 노인 정책의 허와 실을 알 수 있었고, 노인 복지 정책에서 비켜 있는 - 소위,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층의 현실을 보게 되었다.

시설 및 교육 환경에 대해

내가 둘러 본 시설 중에, 참여하고 싶은 기관은 단 한 곳 뿐이었다. 아쉽게도 지역 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란다. 이제는 노인 세대에게도,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대부분 고지대에 위치하여 대상 이용자들을 배려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지금껏 과거의 노인세대에 초점을 맞춘 노인 보호 지원 정책에서, 퇴직 후 노인 세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게 하는 노인 주도 문화 환경과 여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장 종사자들의 높은 이직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 요인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국가인권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낮은 보수와 처우, 기관 평가 기준(인건비 부분)이 개선되어, 이직 요인을 감소하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복지관 내 노인 요양 보호 시설

노인 인권 차원에서 국가인권위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현실적으로는 노인복지관에서의 수용·보호가 대안이라고 하나, 치매 환자나 거동 불편자를 위한 보호 시설 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부분의 노인 복지관 공간이 이용자 대비 협소하였다. 여기에 노인요양보호시설을 설치하니, 이용 노인을 위한 야외 공간이 전혀 없어 산책, 일광욕 등 증상 개선을 위한 야외 치유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귀가 시간까지의 안전 수용 보호를 위한 문잠금 장치 못지않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노인 일자리 창출 시급

40대 까지 노인 복지관 휴게실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장면을 보고 가슴이 멍멍했지만, 아침부터 줄서서 식권을 구매하고 저렴한 급식비에 만족하며 맛있게 점심을 드시는 이용자들을 보며 여가 활동 못지않게 노인 일자리 창출과 기회 제공이 절실함을 느끼게 했다.



이 땅의 어르신들이 느끼는 마음속의 복지

서문원 (경인아람조)

그동안의 노인 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모니터링은 새로운 세계의 경험이었고 살아온 날들의 반성과 참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로만 느꼈고 노인이라는 단어도 귀에 와 닿지 않고 그저 머언 먼 이야기였다. 내가 그 즈음이 되어서야 알게 되는 우리네 세상.

여러 군데를 방문하여 모니터링 과정을 보면 정말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땅의 어르신들이 모두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진정한 복지와 여가 문화란 청춘을 모두 자식들과 일에 쏟아 부은 열정을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일에만 집중하다 여가 생활을 즐기며 개인의 나은 삶을 위해 지내시지만 많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남아 있는 시간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이 모든 어르신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의 경험과 살아오면서 생긴 지식과 생각들을 끄집어 내어 젊은이들 처럼은 아니어도 표현하고 활용 할 수 있게 한다면 어르신들께서 좀 더 나은 하루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저 힘없이 하루 종일 복지관에 와서 앉아 있다고 복지가 되는 것은 아닐
게다. 여하튼 제가 느끼는 어르신들의 복지란 보수를 떠나서 일이란 것이 많
은 어르신들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것이다. 해서 생기는 어르신들의 마음속의
평온이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

타인을 위하여 봉사하며 자기 발전을 꾀하는 어르신들이 존경스러웠으며
어르신들께서 매일 매일 바쁘게 배우고자 하시고 열심히 뛰시는 모습 또한 존
경이었으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더 많은 보수를 받고 더 오랫동안 일 할 수
있고 그동안의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마음으로 여가 생활이 되었으면 한다.

저희 경인 아람조 지킴이단 여러분 모두 너무 더운 여름날 걸어서 복지관
찾아오시고 힘든 내색하지 않으시고 같이 하신 그동안의 함께함에 깊은 애정
드립니다.



제3기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마치며

손귀자 (수락산 천사조)

경기 2조에 소속된 수락산 천사조의 활동이 10회에 걸쳐 마무리를 했다. 무엇보다 어려웠던 점은 모두가 멀리 멀리 푹 푹 떨어져 있어 전철을 몇 번씩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도 또다시 마을버스를 타야하는 상황도 있었다.

하필 첫 활동일은 비가 그야말로 억수같이 퍼 붓는 날씨에도 불평한마디 없이 모여주신 조원분들과 함께 그때는 홍보팀 소속인 정방섭 선생님도 함께하여 15분에서 20여분 이상 비를 맞으며 걸어가면서도 불편한 마음은 뒤로하고 오히려 “아,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일 아니면 언제 이렇게 비 맞으며 같이 걸어 보겠느냐, 재미있고 좋습니다.”라며 김영길 선생님의 선창에 장명자 선생님이 화답을 하며 서로를 북돋고 재치있는 말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활동장소를 문자로 안내하면 “생전에 처음 가보는 곳이지만 찾아가겠습니다.”라는 답을 받으며 물어 물어 찾아가기도 하고, 전철역간의 시간이 수도권 변두리로 갈수록 길어진다는 점을 몰라 전철역에서 한없이 기다려야하는 안타까움, 경전철은 환승하는 시간이 최소 20-30분 이상 소요되는 것도 몰라 또다시 한없이 기다려야하는 불편함도 감수하며 입가에는 미소를 잃지 않고 “선생님들과 오래 오래 함께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좋으네요 뭐...” 라는 재치로 분위기를 살려주는 선생님이 계셔서 더욱 즐거움으로 남는 활동이었다고 기억됩니다.

어느 때는 조금 빨리 가려고 버스를 탔다가 시골 아파트 동마다 다 들렀다 나오는 1시간 30분을 버스안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누렇게 익어 가는 들녘을 바라보며 고향은 기분을 느꼈고, 길가에 하늘거리는 코스모스길을 지날 때는 “우리, 지방으로 여행은 기분이다”라는 말로 화답하고, 봉숭아 꽃잎도 따서 손톱에 올려보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멀지않은 가까운 미래 내가 안주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하는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어 더욱 정성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로당 수준이 아닌 정말 수준이 느껴지는, 이 구동성으로 우리 이 지역으로 이사와야겠다, 정말 이사오고 싶다라는 말을 함께 나누며 부러운 시선을 주고 받은 기관과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점에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비전이 느껴지는 ...무엇보다 나의 미래에 아직도 도전하고 싶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이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받고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질적인 서비스, 등등에 향후 많은 발전이 기대되고 또한 인권이란 말이 무색해지는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거란 확신을 해 봅니다.



복지관 단상(斷想)

송기숙 (향나래조)

10여 개의 복지관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참으로 어르신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수원 청솔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정정덕(73세 여) 어르신은 얼굴이 곱기도 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노력한 결과인지 아직도 젊은이들 못지 않게 건강을 유지하고, 어학, 음악, 난타에 이르기까지 하루 여섯 강좌를 배운다고 한다. 복지관들마다 어르신들이 배움으로 북적이고, 노후 삶의 의욕을 불태우며,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배우고, 서예, 미술로 자신의 발전을 계발하고, 스포츠댄스, 라틴댄스를 경쾌하게 추고, 얼굴이 불과해서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이다.

누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는가? 정말 건강미 넘치는 분들을 보며, 우리 어르신들이 모두 이처럼 한결같이 건강해야 하는데...하는 생각과 ‘무한 돌보미’에서 봉사를 하면서, 나보다 어려운 어르신을 보살피며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어르신을 볼 땐 고개가 절로 수그러진다.

복지관마다 지원하는 형식이 다르고 프로그램 내용도 다르다고 하지만, 안산 상록구의 ‘사할린영주귀국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복학습 프로그램, 단원 복지관의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직은 어설픈 한국의 어르신 생활

에 많은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후원금을 내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복지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활력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생각하면, 우리 어르신들도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가프로그램을 활용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각이 든다. 80%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일자리만 주워진다면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한다니, 내 노력으로 일의 보람을 느끼고 합당한 보수를 받으며,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요즘은 노인들도 실력있고, 숙련된 기술을 지닌 분들이 많이 있어 무료급식에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 일터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

실력은 젊은이 못지않게 있지만, 나이 제한에 막혀 일자리를 놓치고 일자리라고 해서 시간제 환경미화원, 주차관리, 학교앞 어린이 보호 교통정리, 등으로 한정되니,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고속도로 김표원, 관공서 안내요원, 연수원 강사 등, 재취업, 재고용으로 노후에 자신의 능력을 활기차게 펼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힘을 모아 어르신 돕기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 어르신들의 모습이 내일 그대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노인에 대한 복지란, 거저주기보다는 일할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어 노후까지 생활만족도, 안정감을 지속시켜 드릴 수 있는 제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노인에 대한 복지일 것이다.



노인 여가문화

송충웅 (경인아람조)

건강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일자리 못지않게 우리사회 중요하게 여겨지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정책과 배려가 노인여가 문화인 것 같다.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삶의 3고(病苦 貧苦 獨苦)가 회자되기도 하는 세상이다.

노인을 수용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기관으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문화관 등이 지자체 시 군 구등에서 공공영역의 여가 문화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종교 단체의 사회복지기관 등에서도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여가 프로그램은 즐길 거리를 위주로 한 놀이프로그램(가요, 춤, 풍물놀이)과 배움을 통해 자아 성취를 위한 교육(컴퓨터, 영어, 일어, 중국어)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연극 악기연주단 사진촬영 풍물놀이 등 동아리 활동을 통해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 봉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80대는 경로당, 70대는 복지관, 60대는 문화관을 주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열정을 가진 6070의 일부는 복지관과 문화관을 오가며 자신이 좋아 하는 프로그램에 경쟁적으로 참여 하기도 한다.

복지시설로 식당(1식 2000원)이발소(방문), 물리치료실, 수지침, 케어, 헬스, 탁구, 당구, 장기바둑 건강 상담 등이 운영되고 있다. 거주지 시 군 구민에게만 이용케 하는 제약이 있긴 하지만 별다른 불편은 없는 것 같다. 학력 간 빈부 간 세대간(607080) 다소의 편견이 있으나 스스로 잘 해결해 가는 것 같기도 하다.

아들딸 교육 잘시켜 살만큼 키워 다보내고 나면 노부부 또는 독거노인 명절 때 한두 번 불쑥 왔다 가면 남같이 낯설기만 하고 외로움은 더 커져만 간다.

오늘도 아침이면 종묘공원에는 하나 둘 모여드는 노인들 하루 해가 길기만 하다. 공공영역 밖의 노인여가 문화에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다.



노인 인권 여가 프로그램 모니터링

신명자 (향나래조)

경기2조 향나래팀 6명이 2011년 7월 6일 조 편성하여 노인 복지관 10기관을 방문하여 사업 안내를 받아 활동하였다.

상담 사업의 복지관 이용의 편의와 어르신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서와 건강, 가정문제 등 다양한 욕구와 문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알맞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신체적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동안 평생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많았다.

건강한 체력관리와 노인 취미 생활 교육활동과 자아발전을 하고 여생을 보람 있게 보내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학교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역노인들을 위해 저렴한 실비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미용에 대한 친절함도 있었고 무료 급식 등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생활을 도와주고 있었고 어르신들의 편안함을 주는 복지관도 있었다.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물적 자원을 해주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복지관 인식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재정립함은 복지관 회원들과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보여주고 가정과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 가운데 정신건강이 악화 되어 스스로 해결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도 건강보호와 서비스

를 돌봐주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고령 어르신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있었고 노후생활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로 조성하는 기관들의 바탕으로 여가프로그램의 결실이 이어지면 행복한 노후와 건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참고상은 타기관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다. 3년 동안 자기적성에 맞는 동아리 여가 프로그램을 실무자 입장에서 폐강시키고, 얼마후 에 다시 여가 프로그램 시작하여 어르신의 자존심과 마음의 상처가 되어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옛말에 구관이 명관이라는 속담처럼 오래된 어르신들의 즐기던 여가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실무자들의 성실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노인들 입장에서 일을 할 것을 고려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어르신들의 자아실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로움과 희망을 섬김과 행동으로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노인인권지킴이단 3기를 마치면서

■ 양창식 (항나래조)

본인은 2기와 3기 동안 지킴이단으로서 경륜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노인관련 분야 모니터링에 참여하였던 일은 보람 있었던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노인관련 공공시설을 방문해서 질문으로 얻은 내용이 사전에 서면으로도 습득할 수 있는, 공개돼도 무방한 내용들이므로 인식될 때는 지킴이단으로서 사전준비가 부족하였음을 자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회 본부에서 지킴이단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일주일에 2~3일 출근하는 비정규직이면서 임시직인 코디 한 사람이 30명 이상의 지킴이단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 분야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코디 1인이 담당하기에는 벅찬 업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사전예약 11시-12시)를 방문했을 때의 경우는 15명 이상의 노인 지킴이단이 방문하고 복지부 쪽에서는 과장이 나름대로 설명은 하였지만 양측이 다 미진한 느낌이 가는 분위기였고, 노인지킴이단이 예약을 하고 방문하였음에도 이 장소가 다음 시간 사용자가 예약된 장소라며, 지킴이단이 불쾌함을 느낄 정도로 질의응답도 빨리 끝내도록 복지부측에서 재촉하는 등 12시 점심시간에 지킴이단이 떠밀리듯 길거리로 내몰려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수모를 느끼는 지경에까지 이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킴이단을 관장하는 인권위의 주무과 직원과 일선을 담당하는 코디가 매년 새사람으로 교체돼서 지킴이단을 이끌어가는 현재의 상태는 다시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킴이단이 하루 나와서 일하면 봉사료를 2만원 지급하는데 하루 나와서 할 일을 조정하고 1일 봉사료를 3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모니터링이 끝나면 즉시 모여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별도로 책정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 지킴이단 활동을 마치며

■ 위광년 (서남조)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 노인인권지킴이단 지원서를 내면서 작년도에 미흡한 점을 후회하고 금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해보고자 마음먹었지만, 오히려 작년도 활동보다 더 부족한 것 같아 관계자 여러분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

국가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후 3년전 정년퇴직하고 난 후부터 배우기 시작한 초보의 사진촬영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킴이단원들 모두 내가 무슨 사진작가나 된 듯이 대해준 것은 나에게서는 너무 영광이고 더욱 나자신을 분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듯 싶다.

작년도에는 개인사정상 발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금년의 경우는 2011.5.26 발대식, 충주워크샵 모두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였고 수도권지킴이단 과제인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위하여 송파 노인종합복지관의 6곳을 방문하여 노인들의 노후생활 실태를 둘러보았다.

내가 맡은 분야가 우리 지킴이단의 홍보팀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지킴이들의 활동 내용을 카메라에 담아 내는 것이 나의 임무라서 직접 모니터링에 참여하지 못해서인지 도무지 노인 당사자들의 애로점이라든지 활동 소감은 떠오르지 않는다.

다만, 노인 당사자인 우리 지킴이들이 모니터링 시간을 어김없이 지켜 참여하고 모니터링 분야를 분담하여 진행하는 등 동분서주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역시 우리 지킴이들의 사명감은 알아줄만하다고 자평한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우리 지킴이들의 노고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출된 보고서나 2011년도 활동을 마감하며 제출된 소감문 중 개선발전시켜야 할 내용을 선별하여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문제 정책 과제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금년도 활동을 마무리한 우리 지킴이들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제3기 노인인권지킴이 활동 소회

| 윤명희 (경인아람조)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센터 노인문화센터 대상으로 10번의 활동에서 노인 복지법에 제1조(목적)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실무자들의 열의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노인들의 천국인가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② ③항과 제3장 보건·복지조치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는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미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언제까지 우리의 복지가 노인들을 위할 수 있나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지금의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없는 현상이다. 이는 경제 침체 문제와 저임금 대상의 외국 근로자 갈수록 편리하고 다양한 기계화 이익을 추구 하는 기업들의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이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젊은이들도 얻기 힘든 일자리를 노인들이 얻는다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것이다. 미래에 소수의 일자리를 가진 젊은이들이 수없이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장구치고 복치고 남녀 서로 붙들고 춤추며 노래하며 놀고 편안한 대우만 받자고 내일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들의 자식들이 침체된 경제 속에서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나 몰라라 하고 과거에 일본식민지 생활과 보리 고개를 겪고 6.25전쟁을 겪으며 월남의 전쟁터 독일의 광부의 생활 뜨거운 열대지역에서 일을 마다하지 않고 견디어 낸 어르신들이기 보다는 기력이 쇠하여질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어 더 부강해지는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내일의 자손들이 건전하게 잘 살아가는 일에 기여하는 일이 우리 어르신들의 희망일 것이다. 생산적인 삶을 갖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활동적이기 위해서, 재정적 안정과 새로운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미 선진국에서와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희망적인 성공의 대책에 골몰하며 전현희 의원은 '노인일자리 법안'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개발·보급을 통해 노

인의 사회적 활동 및 참여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한다.

또한 노인고용을 늘리는 민간기업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노인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노인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민간영역에서 체계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들이 규정돼 있다고 하는데 부디 그렇게만 된다면, 유능하고 경험 있는 일꾼들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공공정책과 규정을 통해 나이 많은 근로자들이 실망 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줘야 하며, 개개인은 세대간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일과 은퇴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기업들은 나이든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식 변화와 함께 유동적인 근무시간의 제공, 나이든 사람들이 일하기 좋은 근무처로 만들기 위해 환경을 조성한다고 한다.

G7국의 어떤 정부는 나이든 사람들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리

고 있고, 나이든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창의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 선진사회는 나이든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고용주나 기업들은 줄어드는 젊은 노동력과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들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숙련 근로자들을 대처할 수 있게끔 주요 직종에서 경험 있고 나이든 노동자들을 일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노동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확보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이나 노인 문화센터의 실무도 젊은이들이 모두 맡는 것보다 우리 어르신 당사자들도 능력에 따라 참여했으면 한다.

<참고>

G7(Group of Seven)은 산업화가 일찍 앞장섰던 7개 국가의 재무장관 모임이다. 1976년 구성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태리, 프랑스, 독일, 일본을 포함해 말한다.



노송의 향기와 아름다움

윤옥석 (수락산천사조)

인간은 향긋하고 좋은 느낌을 주는 향기를 좋아한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고운 향취에 취하여 감상에 젖는다. 오월은 계절의 여왕이며, 가정의 달이다. 나는 솔밭을 거닐면서 솔 향과 노송들의 자태와 자연의 향기를 마신다. 숲은 각종의 나무들이 모여 수풀이 생기어 나는 것처럼, 국가의 형태와 역사 등을 보면 개인이 모여 국민으로 성립됨을 알 수 있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곳이 있다. 나는 이런 국가 인권위원회에 소속 되어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였다. 그들의 삶의 질과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고령화 사회에서 기본적 권리가 위협 받고, 침해 되지 않나 지켜보기로 했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의 지원과 사회적 활동에 대한 질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복지관 등이 운영하는 활동 상황을 모니터링함도 중요하다. 또 인권 문제 관련 법제와 세부적 정책 영역의 개선점 역시 필요하다.

몇 년 전 나는 속계(俗界)와 선계(仙界)를 넘나든다는 곳을 향해 갔다. 초록빛 풀잎과 나무, 향기로운 꽃향기 등은 속리산의 솔 향과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약 4억 년 전 수풀의 탄생을 축하 하는 듯, 꼬꼬리들이 앵가(鶯歌, 黃鳥歌) 리듬을 던진다, 소나무는 모든 나무의 어른이다. 라고 본초강목(명나라 이시진 저서)에서 말했다. 또 신령과 영험을 지니고 인간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

기도 했다. 아기의 첫 울음과 함께 금줄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장식은 솔향관으로 끝 맺는다.

국보 제1호 송례문의 금강송과 속리산의 정이품송(천연기념물 제103호) 등이 훌륭한 문화재와 민족수 혹은 음양수라는 위상을 보여 준다. 소나무는 한자로 松(송)인데 木+公을 쓴 것은 나무 중에 으뜸나무란 뜻이다. 일본에서는 마쓰인데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린다는 뜻이다. 영어로 pine 역시 소나무 뜻 외에 누구를 애타게 사랑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사명대사의 시에 ‘소나무야 정말 푸르구나, 풀과 나무의 으뜸이로다. (중략) 라고 읊었다.

훌륭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여栋梁재(棟梁材)나 인재로 표현한다.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기개와 충절 등을 상징하여 민족수라고도 불리어 지기도 한다. 또 십장생중의 하나이다. 사람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듯이 솔도 자라서 노송이 되어 우람한 자태를 뽐내기도 하고, 기둥이나 대들보에 쓰여 지기도 한다. 솔솔 바람이 불어오는 날은 솔 향의 향기가 향수처럼 아련히 펼쳐진다.

가만히 살펴보면 나무의 세상이나 사람들이 사는 세상 역시 비슷한 점이 많다. 점차 나이를 먹고 노년을 맞을 때 그들을 냉대하는 것 보다는 지식, 경험, 지혜 등을 이용 사회에 기여하도록 대우해야 한다. 향기는 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이 바로 선 사회와 국가에도 있고, 교양을 겸비한 고상한 인품이 있는 사람과 매력을 지닌 노인에게도 있다. 꽃 중의 여왕 장미는 짙은 향수를 만드는 마술을 지녔나 보다. 험난하고 깊은 절벽에 자정을 지나 새벽 2시경, 칠혹 같은 밤에 흑한 속 피어난 꽃에서 얻은 향수가 최고품이란다. 마치 풍진 세파와 고된 시련을 이겨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의 이치이다. 사회 곳곳에 차별화되고 억눌린 인권을 정당화 시켜 인간답게 만드는 것도 아름답고 고운 향기를 샘솟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을 표현할 때, ‘얼마나 오래 되었는가’ 라고 서양인은

말한다. 한국인은 ‘나이를 먹는다.’라고 한다. 예를 들면 20 살은 ‘20 years old’ 20 년만큼 늙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스무 살 먹었다.’ 혹은 약관(弱冠), 약년(弱年) 등으로 표현한다. 세월의 흐름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인생은 늙어감에 따라 깊은 내면에 지식, 교양, 경험 등을 쌓아간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며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 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기에 합당한 귀중한 자격을 지녀야 한다. 인간으로서 값진 책임과 권리의무는 필수적이다.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그 이하의 대우를 받아서도 아니 된다. 인간은 이 세상에 두 주먹 불끈 쥐고 첫 울음을 터트리며 태어난다.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지녀야 할 숭고한 인권이 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기본 권리이다. 즉 사람이 사람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인권선언은 1789년 8월26일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의 결의에 따라 발표된 것이다. 전문 17조의 선언에는 평등에의 인권을 확인한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일, 또는 사적 관계에서도 타인의 자유를 속박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된다.

남대문이 한 순간에 불타는 광경을 보면서 몰지각한 행위가 국보 제1호를 손상시키는 일을 보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느꼈다. 이와 같이 인권 역시 수모와 유린을 당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으랴. 우리 선조들의 문화재와 나무사랑 덕분에 금수강산을 잘 보존한 것처럼, 우리들 역시 잠시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나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뉘우쳐야 하겠다.

인품과 매력을 지닌 노인들의 생활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맞이해야 되지 않

을까. 소나무에서 발산하는 강력한 피톤치드의 항균작용과 테르펜 등의 성분은 사람을 건강하고 유익하게 해 준다. 인간에 부여된 기본적 권리에 강력한 보호대책과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등은 인권을 유익하게 만드는 원리와 다를 바 없다.

〈솔 향의 의미〉

싱그런 솔 향내음 숲 옆에 풍겨오네
숲에서 부는 바람 인생의 향기런가
잉태의 그 순간부터 휘날리는 자유여
고운 꽃 아름다움 인권에 피어나네
들녘에 부는 바람 존엄의 깃발인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불러 보는 평화여
풍성한 좋은 열매 온 세상 펼쳐지네
권리에 부는 바람 지킴의 솟대런가
첫 울음 그 순간부터 불어오는 평등아

나는 오늘도 숲속을 거닐며 송홧가루에 풍겨오는 향취에 취하여, 의미 있는 시향에 젖어 노래를 불러 본다.

만일 황금을 한 아름 안겨 준다 할지라도,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한다면 난 그것을 돌 같이 여기리라. 이런 생각을 하니 속계와 선계를 넘나드는 숨어오는 바람소리가 내 가슴을 스쳐간다. 청명한 오늘은 솔밭에서 불어오는 청풍이 더욱 향기롭고 아름답다.

과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존엄하며 평등한 것인가? 이 말이 솔 향보다 더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향기로 남아 내 앞에 다가온다.



2011년 제3기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보고서

윤은식 (행복조)

작년도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모니터링 활동에 이어 금년도 수도권 노인 인권지킴이단은 지자체에 소속된 서울시내 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복지관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이용하기 불편한 대중교통과 멀고 접근성이 떨어지며 시설이 낙후되어 개보수 한곳들이 많았으며 모든 복지관이 수용인원에 비하여 장소가 협소하여 지금보다도 2배로 증축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은 복지관별로 특성에 따라서 차별화되어 있으나 대동소위하였고 동적인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정적인 프로그램이 대다수이었음은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의 부지 선정과 프로그램이 정적인 프로에 치중되어 야외에서 진행되는 텃밭 가꾸기, 정원 가꾸기, 야외 스포츠 활동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은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와 신 노년 문화운동에 대비한 세대 교체와 현실에 맞는 프로를 다양하게 바꾸어 IT, 미디어, 취미 활동, 동아리 활동, 의 폭 넓은 프로그램 개발에 치중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종사자들인 사회복지사들의 박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질적 수준 저하는 프로그램 발전에 문제점으로 드러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수용 능력에 맞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앞으로 신설되는 복지관은 접근성, 편의성, 수용능력에 맞추어진 공간과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겸비한 시설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원등록자수, 1일 사용자수, 경로식당의 이용자수 등 수요 예측을 하여 신문화 노년층을 대비한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지관의 위탁법인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혜택이 많도록 분기별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며 아울러 직원들의 처우 개선으로 인한 질적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으로 노인당사자들이 노인의 인권 상황을 찾아 스스로 과제를 도출하고자 구성된 것으로, 그 운영은 일상생활 속의 건강한 비판자 역할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인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인권교육

이국영 (향나래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인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노인을 위한 UN 원칙’(1991. 12)에서는 정부가 고려해야 할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의 5개 영역의 18개 원칙을,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2002년)에서는 건강과 영양, 주택과 환경,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에서 취해야 할 98개 권고 조항을 제정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1)을 기초로 2006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노인복지시설 인권 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이 제정되어 있다.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하였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지킴이단에 참여하여 수원 버드내노인복지관 등 10개 노인복지관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안양시청에 나가 노인과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인권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방법은 노인복지관 교육환경 및 시설확인 10개 항목, 실무자 인터뷰 11개 항목, 프로그램 참관 및 이용자 인터뷰 14개 항목 등 총 35개 항목의 노인인권 모니터링 매뉴얼에 의거하였다.

그런데 모니터링과정에서 노인 인권 침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산재하여 있음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노인복지관에서 과다하게 노인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사업인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외에도, 지역복지사업, 경로당운영혁신사업, 사회체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었다.

둘째, 노인복지관 가용면적에 비하여 과다하게 많은 회원을 수용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의 등록인원은 2,200~20,000명, 1일 평균이용회원 600~1,500명이며, 식당이용인원이 150~800명이다. 고령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현재 시설로는 수용의 한계점에 곧 도달하게 될 것이다.

셋째, 노인복지관 회원자격을 당해 지자체에 거주(주민등록)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에 한하고 있다. 당해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회원이 될 수 없다.

넷째, 실무자들의 노인인권보호에 대한 관념이 부족하다. 실무자 교육에 ‘노인 인권보호’ 과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회원의 개인정보가 입회로부터 내부결재를 거쳐 보관하는 과정에서 담당 외에 노출되는 등 소홀히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권, 물리치료권 등 발급 및 사용시 봉사자들이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섯째, 각종 프로그램 수강 및 이용 신청시 임원, 자원봉사자에게 선 접수권을 부여하거나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어 참여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건의함도 거의 형식적으로 비치되어 있거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자와 실무자, 그리고 노인 회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인권교육은 노인인권지킴이들에 의한 노인인권모니터링이었다. 지금까지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던 노인인권 침해 사례를 새삼 깨닫고 놀라는 표정이다.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노인복지관의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노인복지관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업은 행정위임에서 직접 수행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노인복지관이 노인인권침해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다.

현재 225개의 노인복지관이 65세 전후 초로(初老) 회원들의 전유물인 것도 문제이다. 85세 전후의 노인들이 이용하는 58,749개(2010년기준)에 달하는 경로당 역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이므로 노인복지관 사업의 일부를 경로당에 이양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노인복지관 실무자에 대한 인권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 및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모니터 활동을 마치면서

이회승 (수락천사조) |



느꼈던 점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외관상으로는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었으나, 지나치게 오락과 흥미 위주의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노인 인권면에서 볼때 프로그램 편성과 참여시 강사의 선정, 프로그램 선택의 자율성, 프로그램 안내와 상담, 프로그램 접수 시 참여자의 공정성,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와 수요조사 등 여러 면에서 노인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음을 느꼈다.

아울러 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심리적 고독감과 사회적 소외감에서 벗어나 활기찬 노년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에 지원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나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더 많은 노인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유는 어떻던 크게 걱정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문제점

프로그램의 선정은 주로 회원들의 욕구조사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노인들은 대부분 건강하고, 시간이 있고, 경제적 걱정이 적은 노인들이 참여하게 되므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요 복지관이 되고 있지 않은가 염려가 되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대책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

다. 한편 현재의 오락과 흥미중심의 프로그램 외에도 독거노인이되었을 때 홀로 살아가는 방법, 집안에서 일어나기 쉬운 안전사고(욕실, 주방, 계단 등등)의 예방과 대처방법, 자녀들과의 갈등문제 해결방법 등등 노후적응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나 일자리사업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도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개선사항

프로그램의 선정을 온전히 이용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복지관 자체적으로도 노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인기는 적더라도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각 분야의 프로그램을 균형있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편성해 나가는 것이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수명 100세 시대 맞이하는 노인의 삶

임건택 (행복조) |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곧 100세 수명의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IMF외환위기 이후 직장 근무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인생의 4분의 1은 배움의 시간이고, 4분의 1은 돈 버는 시간, 그리고 인생의 절반은 쉬어야만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 따라서 노년 대비계획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100세까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육체적·경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1955-63년에 태어난 한국의 베이버부머들의 경우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부모부양과 자식양육에 경제력을 쏟아부려 자신의 안정된 노후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계층으로, 노년기는 길어졌으나 노후기반이 취약한 현실에 처해 있다.

노년기의 대비의 핵심은 '자발성'이다. 은퇴를 계기로 사회로부터 밀려나며 심리적 고립감과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휩쓸리면 심각한 우울증이나 자살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맞는 대비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한 방법으로 노후대비를 위한 꼼꼼한 금융계획이나 활발한 여가활동, 일자리를 통한 사회기여, 자원봉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종합적 사고가 결여돼 있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많은 정책들이 나오지만 시스템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정

책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부실해 고용자 고용률이 이미 OECD 상위권으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고령자 고용률을 추가로 높이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고령화 대책은 인적자원의 질적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근본임을 깨달아야 한다.

고령자에 대한 연금이나 복지확충도 필요하다. 고령층의 소득안정은 미래에 대한 삶의 희망을 갖게 하는 만큼 청년 및 중장년 세대의 지출을 증가 시킬 것이며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에 조응할 수 있다. 퇴직 고령자들이 숙련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 개발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제도의 재설계, 생계보호형·자원봉사형·사회기여형 등 고령자 특성에 맞게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2010년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처음으로 총 인구의 10%를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42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4858만 명의 11.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5년 새 24%나 급증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두 자릿수를 넘어선 것은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그 비율은 2020년 15.6%, 2050년 38.2%로 치솟을 것이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이상인 고령사회, 2026년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선진국들은 80~90년에 걸쳐 초고령사회가 됐는데 우리는 불과 26년 밖에 안 걸린 셈이다.

100세 이상 장수 인구 증가세도 만만치 않다. 2010년 11월 1일 현재 100세 이상 인구는 1836명으로 5년 전 961명 보다 2배가량 증가 했다. 보다 문제는

이들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거다. 단순히 복지확대 등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노인들에게 알맞은 역할 찾아주기가 우리사회의 과제로 떠올랐다.

행복한 노후는 모두의 꿈이다.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지에 달려 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나만의 노후를 사장시키는 일 없이 사회에 공헌하며 보람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면 이보다 행복한 노후가 있을까. 무엇보다 노후를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과 노인들의 의식 변화를 받쳐줄 우리 사회의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 노인의 3고(苦)인 가난, 질병, 외로움을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빈곤노인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국가적 의무이지만 노인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노인들의 잠재력, 구매력, 정치적 파워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자산과 경험을 가진 새로운 노인집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모습과 사회의 활력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발표한 ‘2011년 세계보건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80세를 돌파했다. 평균수명이 80세는 역사상 최초다. 1970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1.93세였으나 불과 40년 만에 “일생”이라는 개념이 20년이나 늘어나 버린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평균연령 40대에 이미 손자를 보고 노인 대접을 받았다. 과거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사람들은 인생을 두 번 사는 셈이다. 60세까지 사는 게 얼마나 귀했으면 장수를 축하하는 의

미로 회갑연을 준비하기도 했지 않은가. 때로는 임금이 직접 나서 70세를 넘긴 신하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기로연(耆老宴)을 준비하기도 했다. 앞으로 젊은이 두 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 한다면 고령화가 재앙으로 닥칠지 모르는 호들갑을 떨 문제가 아니다. 이제 노인은 더 이상 부양 받을 대상이 아니라 훌륭한 경륜을 바탕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 충분히 교육 받고 육체적으로도 훌륭한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 분들이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늙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만 자연의 섭리이니 어쩔 수 없다.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복지제도의 확충뿐 아니라 우리 사회 다방면에 걸친 제도개혁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 정부 지출과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데만 기대지 말고 그보다 광범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잃지 않으면서 고령화시대를 맞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러나 대한민국 평균 정년은 57세다. 백수시대를 코앞에 둔 지금 직장생활에서의 은퇴가 더 이상 사회에서의 은퇴를 말하지는 않는다. 아직도 가보지 않은 길은 많다. 좀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이모작을 위해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잘 늙어 가는 것 한 걸음 나아가 잘 죽는 것이 행복의 정답이다. 지공도사의 여행과 식도락 - 모두 좋은 일들이다. 그러나 비생산적이다. 또한 한시적이다. 죽을 때까지 늘상 그렇게만 살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떻게 제2의 인생을 엮을 것인가. 해현경장(解弦更張) - 거문고의 느슨해진 줄을 어떻게 다시 단단하게 조일 것인가- 찾아보면 눈높이 낮춰서 할 일 들이 있을 것이다.

크고 작은 봉사를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65년 이상 쌓아 왔던 경험과 지혜를 세상에 되돌려 주는 자질구레한 기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낙엽의 자세로 살아가면 될 것이다. 시인 천상병이 시 귀천(歸天)에서 노래한 것처럼 이승은 즐거운 소풍이다. 이 화려한 봄날 내 마음은 더욱 분주해 지고 있다. 나는 지금 제2의 소풍을 시작하고 있다.

탑골공원에서 부유하고 있던 노인들의 정착을 위하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다. 소기의 정책과 목적은 이룩하였다고 평가하고 싶으나 아직도 종묘 등 공원에는 무수한 노인들의 무리한 방향을 볼 수 있으며 묵과 할 수 없는 과제인 것 같다. 여러 복지관을 둘러보고 당국 및 각 복지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좀 더 노인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사명감을 가진 운영의 묘를 기원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국가와 사회 모두 보다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고령사회가 국가적·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어 광범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범 국가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과 ‘건강한 노후’에 초점을 맞추어, 지자체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여가프로그램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 하게 되어 천만다행이고 시기적절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박수치고 있다.

따라서 노인대상 여가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현실을 파악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아서 구호와 행사에만 그치지 말고 국가정책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개선이 되어 주기를 기원한다.



노인은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야 한다

▣ 임병량 (향나래조)

금세기는 100세의 수명 장수시대로 돌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수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겨우 30% 미만이었다. 그만큼 우울하고 괴로운 여생을 지내는 노인들이 많다는 뜻이다.

‘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의 미덕을 살려 자손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한다.’고 노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부양은커녕 노인을 유기하고 학대하는 자식까지도 있다. 자녀들만 키워놓으면 그들이 부모를 봉양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제는 노인의 여생을 가족이 아닌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책임져야 할 때이다.

오늘의 노인들은 전쟁과 굶주림 속에서 국가경제건설에 이룩하는데 전심전력 했던 원동력자이다. 굶주림 속에서도 오직 자녀들의 교육에만 전념했던 것은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겠다는 내심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노후준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은 뒀안길에서 눈치나 살피며 점심 얻어먹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갈수록 노인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 질 것 같다.

노인복지관을 모니터링하면서 느낀 공통점은 사업내용이 구태의연한 여가 지원 프로그램이나 생활·건강 및 교양교육에 편중되어 있었다. 물론 복지관이 여가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창업이나 생산성에 관련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다행히도 00

복지관에서는 특화사업으로 온라인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노인들 스스로 온라인 창업 일자리를 만들어가며 다소나마 용돈을 벌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어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해마다 복지관을 이용 하는 노인이 늘어나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증·개축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노인인구의 증가를 감당하기엔 터무니 없이 시설이 부족하다. 그중에도 건강한 노인은 충분히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노인으로 취급당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회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스스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배양의 훈련이 필요하다. 앞으로 20년 혹은 30년을 살아가야 하는 노인들은 정부의 시혜나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창조적인 평생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수명 100세 시대에는 자기계발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다.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을 얻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노인들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



활동을 마치며

장덕현 (수락산천사조)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이 새롭게 느껴 집니다. 교직생활 35년을 정년하고 나와 몇년을 서성거리다 어느 후배의 소개로 인권위 노인지킴이 활동을 알게되어 우리 조원들과 함께 해당지역 노인 복지원을 방문하며 새롭게 태어난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현직 근무시절의 생각을 버리고 내 인권보다 다른 분들의 인권을 보다 존중하며 남을 배려하는, 서로가 더불어 필요한 존재로서 모여사는 사회를 발견하게 되며 비록 여러가지로 달라도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느끼게 합니다.

저에게는 사람은 죽을때까지 배운다는 철학이 있습니다. 인생은 즐겁게 보람있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먹는것만 가지고는 살수없지요. 누구나 자기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존중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건강은 필수적이고 자신의 경험, 지식, 소질, 취미 등을 살려 자신에게도 보람되고 남에게도 유익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복지관을 다녀보면서 공통점도 많지만 아직도 많은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종류며 시설 면에서도 복지는 무한정입니다. 공짜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장래 경제 세계화의 흐름 등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노인 회원들이 장기 바둑을 두는 모습, 각종 상담을 하시는 분들, 선생님의 구령에 맞추어 율동을 하시는 분들, 컴퓨터를 배우는 분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분들, 외국어 회화연습 중인 분들, TV시청하시는 분들 모두가 어느 누구도 소홀히 할수없는 분들입니다.

저도 어느사이에 경로대상자가 되었네요 지난주에는 집에서 가까운 성북노인 복지원에 회원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2주 후엔 회원증을 받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실버들에게 제 2의 인생을 선물 하는 곳

장명자 (수락산천사조)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복지관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얼마 전 그러니까 한 2~3년 전에는 '복지관' 하면 할 일 없는 또는 몸이 불편하고 경제력이 없는 이들이 모인다는 선입견이 있었다. 막상 복지관을 방문해 보니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내 눈에 들어왔다.

활기에 찬 실버들의 표정 밝은 미소 가득 머금은 얼굴들이 우리를 반겨 주었다.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남녀 친구들과 어울려 대화의 꽃을 피우기도 한다.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실버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음이 여실히 보인다.

복지사가 친절하지 않으면 당장에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이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강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쾌하게 한다면 강사를 바꿀 줄 아는 노인들의 인권을 잘 살리고 있었다. 건물이 오래 되고 작은 복지관에는 사람의 냄새가 폴폴 난다. 서로 배려하고 경제적인 또는 학벌의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저 정으로 역어 놓은 듯하다.

건물이 번듯한 곳은 약간의 경제적이나 학벌의 차이가 있음이 느껴진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도 수강료를 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없는 실버들에게는 만원이라는 돈이 크게 생각이 되어 참여할 수가 없다. 그 문제가 조금은 아쉬웠

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복지관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도 뒤 떨어지지지는 않을 것이다.

프로그램이 50~60개가 있어 다양하게 참여할 수가 있다. 70세가 넘은 할머니가 영어를 배우며 “내 인생에 이렇게 멋지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 꿈만 같으나 현실이다.”라고 한다. 80세 할아버지는 컴퓨터를 배운다 “나야말로 인생 3모작이다. 컴퓨터는 젊은이만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공부하니 작은 컴퓨터 속에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다니 놀랍다 행복하다.”라고 한다.

난타를 배우는 69세 할머니는 “난타를 배우니 모든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예전엔 몸이 늘 아팠었는데 지금은 건강하다 살 맛 난다.”라고 한다. 이렇듯 복지관을 활용하는 실버들은 각자에게 행복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복지관이 없었으면 그 많은 실버들이 어디서 많은 시간들을 소비했을까? 앞으로는 점점 더 복지관을 찾는 실버들이 많을 것이다. 나 역시 복지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야말로 나는 큰 선물을 받은 것이다. 이번 모니터링을 하고 보니 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실버들에게 권장해야겠다. 그러나 문제는 교통편이다. 큰 복지관은 교통편이 다 제공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복지관을 건축하려면 교통편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우리 천사팀은 복지관 거리가 너무 멀어 전철 타고 버스로도 한 30~40분 정도 가야 한다. 그래도 불만 없고 빠지는 사람 없이 모두 한 마음으로 즐겁게 다녔다. 우리 코디가 잘 리드했기 때문일 것이다. 내 생애에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다.



교육에 길이 있다

전화수 (서남조)

무더운 여름에 시작한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이 오늘 강남시니어플라자의 모니터링 활동을 끝으로 마감하게 된다. 1기 노인인권지킴이단에 이어 3기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노인 여가활동을 모니터링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과연 인간에게 여가란 무엇인가? 아니 시니어에게 여가란? 여가의 영어 낱말 레저(leisure)는 14세기 초 중세에 처음 나타난 옛 프랑스어 leisir를 통하여 ‘허가된, 여유가 있는’의 뜻을 가진 라틴어 licere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레저란 노동이나 직무로부터 일시적으로 면제되어 갖게 되는 자유시간을 말한다. 이 말은 노동과 직무뿐만 아니라 일체의 용무(用務)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어 개인이 자기 뜻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자유 시간 또는 자유시간을 갖게 된데서 오는 자유로움이나 좋은 기회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위키백과에서 정의하고 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 직장생활을 하던 시절 얼마나 갈구하던 자유시간이었던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그렇게 갈구하던 그 자유시간을 의미있는 시간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낄 수 있었다.

나에게도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다른 시니어들처럼 은퇴 후의 최대 관심거리였다. 은퇴 직후에는 일, 시간 죽이기, 등산, 골프, 해외여행 사이에서 한참 동안을 방황하였다. 지금은 적당한 일, 봉사활동과 사회활동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등으로 시간을 배분하여 살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수확은 자유시간을 의미있는 시간으로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교육이라는 내 소신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가 시간을 교육받는 것으로 활용하는 시니어가 많다는 것, 교육을 받으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정상에서 느끼는 등산의 즐거움이나 여행에서 느끼는 즐거움 못지 않다는 것을. 시니어의 여가 활용, 교육에 그 길이 있다.



노인의 빈곤, 노인의 건강 - 국가적 차원에서 살펴져야 한다

정방섭 (수락산천사조)

내가 가본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노인이 천국이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복지관의 시설은 증가하는 노인의 수를 따라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결론부터 내려 본다. 복지관으로 모여 드는 어르신들의 수를 줄여 보면 어떨까 한다. 어떻게 줄인다는 말인가? 맨 마지막에 해결책을 제시코자 한다.

장기나 바둑을 두는 어르신, 컴퓨터를 열심히 배우는 어르신님들, 장구를 치거나 댄스를 즐기는 분, 붓글씨 연습을 하시는 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진정 하고 싶고 좋아서 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아서 하시는 어르신도 계시겠지만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장을 몇 번 가보았다. 일자리 박람회장에서 얻은 일자리, 과연 양질의 자리일까? 마지못해 해야 하는 일자리가 태반이 아니던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서울시장 입후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그리 쉽게 되겠는가? 이 많은 노인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다 마련하겠는가?

먼 앞날을 내다보고 젊어서부터 노후를 대비하는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거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란 누가 서울시장이 되어도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어려운 과제이다. 나

는 젊었을 때 38년이란 공직을 무사히 마치고 생활을 하며 때로는 국내외 이곳 저곳을 여행도 하며 시간나는 데로 여가를 즐기며 노후의 삶을 즐기고 있다고 하면 과장일까?

내가 젊은 시절 공직에 근무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었다. 그게 무엇일까? 술자리 앞으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입버릇처럼 말한다. “공직자가 무슨 돈 있어요. 제가 오늘 멋지게 걸게 한판 대접하죠.”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기가 죽고 왜 나는 저렇게 사업을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38년 공직에서 퇴임한 나는 그렇게 말한 사업가를 본다. 지금 사는게 별로다. 왜 그랬을까? 이들이 사업하기 좋은 사회임에도 사업에 실패했을까?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들 - 그들의 건강은 어떠한가? 노인성 질환? 젊었을 때의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젊었을 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이 있었던가? 나는 여기서 먼 안목을 보고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복지관의 노인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건강체육을 강화하면 좋겠다. 직장이고 가정이고 일정한 시간을 내서 건강다지기를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체육이 건강교육으로 격을 높이면 좋겠다.

둘째, 젊어서부터 노후경제를 대비하는 교육과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사업하기 편한 사회적, 국가적 환경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를 대통령이 아니 서울시장이 혼자 다하겠는가? 우리 모두 이런 사회가 되도록 서로 양보하고 협동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복지관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 실태 모니터링 소감문

정은영 (행복조)

노인인권지킴이단의 일원이 되어 복지관 운영실태를 돌아보면서 각 행정구마다 하나 이상의 복지관이 시립 혹은 구립과 같은 공립으로 대개 운영되는 것을 알았다. 물론 몇 군데는 사립 복지관도 있었다. 공립 복지관도 재정 지원은 설립 주체가 하고 있지만 운영 주체는 종교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재단의 지원이 많은 복지관과 그렇지 않은 복지관과는 시설 환경이나 운영실태가 사뭇 다른 점도 있었다.

대체로 복지관의 위치는 지하철역과 같은 대중 교통시설과 인접해 있어 이용 노인들의 편리성을 갖춘 곳도 있었으나 몇몇 복지관은 지하철역에서 멀고 고지대에 위치하여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나 새로운 건물로 이전한다든지 하는 것은 엄두도 못내고 있고, 노후 시설이나 환경 개선 사업은 그때마다 예산 요청을 하여 개선한다고 했다. 어떤 복지관은 아파트 관리건물을 일부 빌려서 운영하는 웅색한 곳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객들의 희망을 들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강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인기 프로그램은 수요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였다. 제한된 시설과 예산으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개설하지 못하거나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쉽거나 대기공간이 협소한 경우도 있었다.

복지관에서 상근하는 직원들은 대개 사회복지사들이는데 낮은 임금과 위탁운영 주체에 소속된 신분상의 불안정으로 잦은 이직과 담당자 변동으로 전문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어르신들이 복지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일하고 있었다.

다만 복지관이 여가프로그램 운영 뿐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데이케어 센터나 노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적은 인력과 시설, 재정으로 너무 많은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복지질의가 낮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대부분 복지관의 점심식은 기초수급자에게는 무료이지만 일반 어르신은 2500원의 실비를 부담하게 하는데 예산을 확충해서 전체 이용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실제로 J복지센터는 무료 중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용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특히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사교의 장이 되어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사실 복지관은 이용 어르신과 운영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아름다운 복지공동체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여러 문제들도 있으니만큼 운영방식이나 예산지원 등에 대해 당사자 모두 노력을 통해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세워주길 바란다.

이번 노인인권지킴이단의 일원이 되어 어르신들의 복지문제에 관한 알지 못했던 사실을 새롭게 알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르신들의 복지문화 향상에 봉사하고 땀을 흘리고 있음을 보았다.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



인권지킴이 활동을 마친 후에

정정환 (경인아람조)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복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관련기관은 해결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인생 이모작’이란 말이 유행어처럼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미래의 희망과 행복을 심어주는 좋은 메시지로 간주된다.

나에게 비슷한 또래의 옛 직장동료(친구) 둘이 있는데 이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지킴이봉사단 모집이 있으니 응시해 보라”고 했더니, A 친구는 “늙은 사람이 무슨 자원봉사야, 편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끝까지 참여를 거부했고, B 친구는 제2기 모집 때는 거절하다가 이번 제3기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인생 이모작’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꼭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고, 발견하게 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시작하는 것이다. 일류직장에서 40대 후반이 되면 나와야 하는 판국, 50대부터는 제2의 삶의 준비를 위한 후반전 경기에 뛰지 않으면 낙오자가 된다.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 지금 시작하자 이것이 ‘인생 이모작’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어르신 및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위한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노인복지의 영역인 노인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모습이 아름다웠고 이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인권위원회에서 마련 해 준 체크리스트를 사전검토하고 가야 했는데 이유는 중복된 질문을 피하고 내용을 사전에 잘 이해하기 위함이다. 방문 시 친절 한 태도를 보여주려고 노력했으며, 컴퓨터교실, 여성체조 교실 등 사진도 찍고 인터뷰에 잘 응해 주어 현장감 넘치는 자료도 수집할 수 있었다.

앞으로 노인을 사회복지의 수혜자로만 보지 말고 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노인 스스로 해결하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으며 이에 따른 ‘노인 멘토링’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인생 이모작’이란 소중한 결실을 거두었다. 끝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님과 지킴이단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수도권 노인 인권 지킴이단 활동 소회

조희상 (행복조)

내가 수도권 노인 인권 지킴이단에 가입하게 된 동기부터 말하고자 한다. 지킴이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정환씨가 지원하라고 하여 지원하였더니 합격이 되어 부폰 가슴을 안고 워크숍에 참가 하였다.

나를 이끌어 준 정정환씨께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워크숍을 마치고 나서 활동조를 편성 하는데 나는 이 활동에 처음이라서 먼저 활동하는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활동하는데 같은 조원 분들이 너무나 열심히하는데 나는 감동이 되지 않을수 없었다.

활동하는 기관은 노인 종합 복지관이였다. 어느 복지관은 내가 위치를 아는 복지관도 있지만 처음 가보는 복지관을 찾아가기에 물어 물어 가니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다른 분들한테 무척 송구스럽고 대하기에 미안하기 그지 없었다. 그래도 그분들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였다. 모두가(나는 한번 불참했음) 한 번의 불참도 없었다는 점에서 단체 행동의 모범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싶다.

활동하면서 좀 서운하다하는 생각은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운영 책임자는 관장일 것인데 우리가 활동을 나가면 그분들을 대면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이다. 결코 대우를 받고 예우를 받지는 것은 아니다. 만난 분들 중에서 가장 고위직은 부장 정도인 것 같다. 또 한가지 지적하자면 방문기관과 시간 조율

이 잘 안되어 운영상 차질이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사전에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함이 좋을 듯 하다.

내가 활동하며 보람된 일을 한 가지 내어 놓자면 종로종합복지관이 인근 전철역 안내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노인들이 찾아가기에 불편할 것 같아 관계 기관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여 등재토록 조치한 일이다. 하겠다는 연락은 받았으나 그 후에 현장 확인은 하지 않았다.

그간 활동하면서 느낀 개선할 사항을 한 두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활동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기간으로는 진정으로 활동의 보람과 진미를 느끼지 못 하는 것 같다.

둘째, 우리는 자원 봉사로 사회에 노인 복지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지만 기왕에 주는 활동비라면 최소한의 실비는 되도록 개선함이 어떨 가 한다. 활동일이 되 며는 그 날은 온종일 그 일에 매달리게 된다. 오고 가는 시간에 기관 활동을 하고 보고서까지 써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하루가 완전히 소모되어 다른 일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하여 관과 민이 하나가 되어 노인복지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큰 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업이 크게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나는 앞으로 이 일에 나를 다시 선정하여 준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가져 본다. 그간 운영하기에 애를 쓰신 코디분들과 직원 여러분, 인권 위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노인종합복지관 여가활동 프로그램 모니터링에 대한 소고

진중경 (서남조)

지인의 연락을 받고 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1년도 노인지킴이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앞으로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각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분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이며, 또한 각자치단체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상태 및 노인들에 대한 관심, 배려, 서비스 등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의 주요 포인트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신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관 종사자들의 노인에 대한 인권존중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며,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신 노인분들이 본인의 인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 또한 현 복지관 시설 및 환경상황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10여 곳의 복지관을 다니면서 이런 부분 이외에 복지관들이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참여자들이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등도 아울러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이번 모니터링의 주요 포인트인 노인인권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복지관 종사자분들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노인분들에 대한 인권부분에 대하여 많이 인지하고 있으며 노인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시설부분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꾸밈에 노력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시설의 청결상태라든가, 조명, 노약자를 위한 배려 등에 대하여도 준비상태가 좋은 것으로 보였다. 아울러 대부분이 노약자인 이용자분들에게 이용에 따른 불편이라든가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안전시설물 배치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좀 미흡한 부분은 많은 복지관들이 노인분들의 욕구를 조금이나마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고 개발하려는 의지는 있어 보이지만 대부분 예산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에게 복지관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문의한 결과 많은 분들이 불만 보다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기타, 운영부분에서는 자치단체들이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종교단체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대리위탁하고 있었다. 대리위탁이다 보니 일부 관장들의 자세에 따라 보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아서 복지관 이용자분들은 물론 주변

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분들에게 복지관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다른 복지관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새롭고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에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음을 느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적극적인 연구를 통하여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개발되어 이용자들에게 즐거움과 보람을 배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지역별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과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보다는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역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이번에야 주변에 복지관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점을 감안 할 때 복지관에 대한 홍보가 저조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노인 세대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아울러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단순 참여하거나, 여전히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계신 노인분들이 수동적인 참여로 여가를 보내기 보다는 주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노후를 봉사하며 참여하는 복지시설로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인권 지킴이단 활동 소감

최강주 (경인아람조) |



2009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인권지킴이단에 들어가 금년까지 3년 동안 지킴이 활동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노인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인권의 기본적 권리를 옹호하고 그 현실을 살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인 인권에 관한 실태를 노인 당사자들이 직접 조사하여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자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시작했다.

1차년도(2009년)에는 독거노인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을 찾아가 상담과 자원봉사 활동을 했으며, 2차 년도에는(2010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으며, 금년 3차 년도는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했다.

첫해의 시작은 의욕적이었다. 효창공원에 단체로 나가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상담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 내의 어르신 상담센터에서 상담에 관한 교육도 받고,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특히 종로 3가와 영등포의 쪽방촌 방문을 통해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대다수 노인들은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고 유기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노인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보고 인권 신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다.

2차 년도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구청의 복지과와 건강보험공단 및 요양보호센터 등을 방문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였다. 시립이나 구립복지관은 시설도 깨끗하고 노인들의 생활도 비교적 활발했으나 소규모 요양보호센터들은 시설도 열악하고 이용 노인들도 의욕도 없고 자기 의사나 감정표현도 하지 않고 그저 음식을 얻는 것에만 욕심을 내고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3차 년도인 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 등 의 여가활동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다. 나는 경기도 서부와 인천지역의 노인들의 여가활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경인아람조에 편성되었다. 부천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소규모복지관들은 시설도 협소하고 이용자들의 욕구도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소규모시설은 노인들의 접근성이 좋아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늘려야하고 시설이나 프로그램 내용도 더 풍부하게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어떤 복지관은 방음장치가 잘 안되어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었으며, 시설부족으로 주변의 민간시설을 무상 지원받아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인천노인 문화 회관은 대규모로 신축하여 공간도 넓고 시설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다양하여 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다. 전국의 모든 시설이 이정도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3년 동안의 지킴이단 활동을 하고 느낀 것은 노인들의 여생을 편안하게 해주기에는 많은 것이 부족했으며 국가 사회 및 가족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요양보호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우리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노인들의 가장 큰 욕구는 적은 수입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또한 일부 복지사 들은 가끔 노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복지사들의 처우도 큰 문제였다. 복지사끼리 결혼하면 그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농담은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다. 노인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높여 주어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나 역시 예산이 문제이다.



서울경기지역 활동평가

▶ 노인복지관 여가활동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1) 교육환경 및 시설 확인, 2) 실무자 인터뷰, 3) 프로그램 참관 및 이용자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 ‘교육환경 및 시설 확인’의 경우 복지관과 프로그램 진행 공간의 협소함과 거동불편자에 대한 편의시설(엘레베이터, 경사로 등)이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과 복지관 시설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반면 교육 교구재의 비치나 안전 및 재해 대응 시설에 대한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다만 비상탈출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상구가 잠겨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실무자 인터뷰’와 ‘프로그램 참관 및 이용자 인터뷰’를 종합한 결과 프로그램 선택시 자율성 보장에 대한 방안 강구와 강사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아래의 문제들은 많은 지킴이단에 의해 여러 차례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 강사료의 현실화 문제 ; 잦은 강사 교체의 문제와 연결되고 있으며, 또한 초·중급 수준의 강좌에 비해 고급 수준의 강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 보통 70여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많은 내용이 단순 반복적이어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건강과 관련된 강좌들이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이와 관련해 복지관 외부의 다른 단체 또는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ex 강당과 수영장 대여 등)
- 야외 활동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가 있으나 노인들의 건강과 응급 의뢰서비스의 문제로 인해 야외 활동 프로그램이 크게 부족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 지역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검정고시반, 스마트폰 활용법 교실 등)의 경우 이용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확대실시에 대한 지킴이단의 의견이 있었다.
- ▶ 이용자 권리의 공개적 게시나 인권교육 진행 여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인권교육의 경우 거의 실무자 대상의 인권교육만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용자 대상의 인권교육의 경우에는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소비자 보호 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었다.



김소아



김양중



김영미



김옥숙



김충수



김태욱

부산지역

노인인권지킴이단



박행순



변상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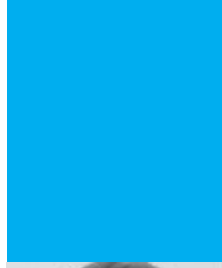
변정류



서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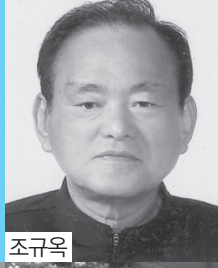
양세화



임금철



임용흠



조규욱



진갑



최돈자



최안자



홍진호

부산지역 활동일지

- 05.20 노인인권지킴이단 발대식
- 05.30~31 노인인권지킴이단 총주 워크숍
- 06.08 노인인력개발원 교육
- 06.10 1조 부산시내 어르신들 면담
- 06.17 2조 부산시내 어르신들 면담
- 06.13 3조 부산시내 어르신들 면담
- 06.21~23 부산실버백스코 참여
- 06.27 부산고용센터 방문
- 07.12 부산시청 고령화대책과 및 고령종합인력관리센터 방문
- 07.21~08.01 상반기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방문(조별 활동)
- 09.14~10.04 우리동네 일자리찾기(개별 활동)
- 09.06~09.30 하반기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방문(조별 활동)
- 05.26~10.19 각종 회의 및 교육
- 11.24 노인인권지킴이단 해단식



활동을 마치며

김충수 (단장)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가족들은 행복을 누리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님을 뵙고 싶은 날, 기차를 이용할 때 오랫동안 역에서 기거하고 있는 노숙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그들의 눈빛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나라 일을 하고 있는 관공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매년 늘어나는 노인인구. 지하철 우대권 발급창구 앞에 세워진 무료승차안내 해당 연령을 말하는 ‘1900년생’ 안내문과 같이 노인세대는 날로 크게 늘어난다.

올해 3기 노인인권 지킴이단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진행과정을 알아보기로 하여 부산광역시 소관부서, 고용노동부서, 관련 수행기관으로 시니어클럽, 복지관, 인력개발센터 등을 방문하였는데 노인들은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을 많이 하나 참여 총원 중 5분의 1 수준만 취업결정이 된다고 한다.

국가일자리사업은 월 20만원 7개월 한정으로 생업에 도움이 적어 기업과 연계하여 고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증대를 위한 노력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창업비 지원으로 두부공장, 반찬가게, 과일도시락, 단술 등 고용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지원 일자리사업만으로는 예산 한계로 늘어나는 노인의 일자리 마련에 미흡하여 각 수행관련 기관에서는 다양한 전문 직종개발, 고소득 취업체제로 전환해 보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노인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여러 기관의 취업알선은 홍보 효과 뿐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통일된 양식에 의해 개별 취업카드화를 통한 전산입력 관리체제로 전담 기구설치를 하여 전시 방안이 아닌 효율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이 제한 없는 취업제도 실시 즉, 남녀노소 구분 없이 건강하고, 전문성 있고, 경력 우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우선 취업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년제도 연장을 연구하여 고급인력을 활용한 효과적인 사회구조 혁신을 바라며, 65세~75세 노인들 중 아주 건강하고 전문능력 뛰어난 인재들을 저임금 제도를 만들어 활용하면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현 사회에서는 노인 대부분이 구직이 어려워 건강 유지 등을 목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본인의 경우 월~금요일까지는 지역 봉사단체를 통하여 1~3세대 어린이 봉사지원, 요양시설 위로방문 및 노력봉사, 사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지원에 전념하고 있으며, 인권신장을 위하여 본인 스스로 저변 노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일조하고자 지역의 저소득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방문하고 있다. 이를 통해, 봉사할 수 있고 자신의 건강함을 가늠하게 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우리 지킴이단은 짧은 만남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처음 만났으나 함께 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동안 정이 많이 들었다. 회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열과 성을 다하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원히 잊지 않고자 한다.



노인인권지킴이단 새내기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본다

양세화 (1조장)

친구의 권유로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지킴이단에 입단을 하게 되었다. 새내기로서 긴장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겁없이 단원님들과 어울려 지나온 것이 벌써 1년이 되었다. 이렇다 할 실적도 없으면서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아쉬운 생각도 든다.

더운 날씨에 이곳저곳으로 비지땀을 흘리면서 조원들끼리 사업체를 찾아 브리핑을 듣고, 질문도 하고,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나에게서는 부담이 되었으나 또한 잊지 못할 영원한 추억이 될 것이다.

자랑은 바보가 하는 짓이라고 하지만, 우리 1조 자랑을 조금 하고 싶다. 어느 단체, 어느 모임이든 분위기가 중요하고,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해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주인정신의 마음으로 모두가 불평불만의 말 한마디 없이 자기책임을 완수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친절하게 지킴이단을 인도해주신 부산인권위원회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유능한 명강사님을 모시고 때때로 좋은 강의를 듣게 해주신 배려에도 감사함을 느낀다. 또한 몇몇 복지관과 사업체를 방문했을 때, 다과 및 음료수와 자료를 챙겨주고 환대해주신 업체에도 감사의 정을 느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면 사람의 인권을 다루는 곳이라 생각해서 ‘혹시나 방문할 때 냉대를 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찾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다.

노인인권지킴이단이 하는 일은 사업체와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애로사항이나 불만 사항을 경청하고,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여 더불어 잘살아가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인인권지킴이단의 작은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살맛나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기업체와 노인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

■ 임금철 (2조장)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다. ‘빠름과 느림의 정의는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껴본다. 이번의 국가 인권 위원회의 활동이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말해 주는 것 같다. 이번에 주어진 임무인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장실습과 일자리 창출이 어찌면 평소에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기에 그렇게 즐거웠던 것 같다.

노인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각 기관과 단체들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의 정책과 실시하고 있는 일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인권위의 동료들과 조별로 활동을 하고, 노인일자리의 실태와 성공사례 등을 듣고 조원들의 느낀 소감들을 챙겨 인권위원회에 보고하는 일들은 정말 보람된 일과였다.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교육을 할 때면 정말 모르고 지냈던 내용들의 새로운 상식들은 정말로 삶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노인 일자리를 위하여 각 기관과 기업체와 조합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도 참 많이 듣기도 하였다. 새로운 일자리를 요구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구하는 기업체도 많았다.

현장에서 느낀 소감을 옮겨 보면, 우리나라의 정책에 조금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일례를 들어보면 노인들의 대부분은 지병을 가지고 있는 실

정이다. 이들을 고용한 한 업체의 예를 보면 작업 중에 지병에 의해 쓰러져서 병원에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고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다. 물론 산업의 현장에서 쓰러졌기에 산재처리가 당연하다고 가족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체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개인 지병에 의해 생긴 사고를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잦은 산재 사고 처리는 회사운영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 발생하다보니 단순노무의 인재가 많이 필요한 기업체에서도 노인들의 취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 창출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노인 근로자들에게 노동법의 적용 보다는 단체 협약에 의한 취업으로 기업체와 노인들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의 재정이 필요 할 것 같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각계에서 청취해 주었으면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자리를 찾아 해매는 많은 노인들에게 단순 경비 직 보다는 보다 안정되고 믿을 수 있는 생산 기업체의 일을 알선해 주었으면 한다. 점점 늘어가는 고령사회의 노인들의 앞날에 서광이 비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계속해서 뛰고 싶다.



소외 받는 노인이 없는 사회를

조규옥 (3조장)

‘국가 인권 위원회’라는 용어를 가끔 들어보았지만 막연히 ‘소외 받는 국민
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였으나, 지난 봄에 노인
인권지킴이단에 입단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인권’에 있어서는 기초
도 안 갖추어진 어린 아이의 모습일 뿐이다.

세계인권선언을 토대로 그 중 극히 일부인 ‘노인 인권’ 문제에 관해 연구하
고 노인 인권에 저해되는 요인을 찾아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노인인권지킴이
단 활동의 목적일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그 일의 추진은 정말 어렵
고 힘든 일이라고 여겨졌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문제는 심각한 경지로 치닫고 있다. 전체 인구의
12% 가량이 노인이고 머잖아 고령사회의 기준인 14%가 내일, 모레라고 할
때, 그 심각성은 실로 큰일인 것이다.

노인의 여러 가지 문제 중 노인의 경제적 결핍에 따른 소외된 노인을 보호
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인권지킴이단이 주로 활동하였다.
노인 일자리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 관계 기
관을 방문하여 그 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애로 사항을 파악하였다.

또한 직접 일하시는 노인들을 만나서 그들이 가지는 문제점, 애로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인권위원회에 보고하는 일들을 하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느껴졌다.

수요와 공급이 지나치게 어긋나고 있는 현실,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은 많은데 일자리는 태부족인 실정, 그나마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일이지만 취업한 일자리에서 노인들이 갖는 고용 차별에 따른 위기감도 간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하루 빨리 해결 되어 진정 노인이 살맛나는 세상, “어르신은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밝은 구호가 국가와 사회에 통용되기를 바르게 되었다.

노인들이 대접받는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경제적 빈곤에 따른 소외감, 건강문제. 이 노인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하지 않을까?



활동을 마치며

김소아

2011년 5월 19일 물만골 역에서의 발대식, 그리고 5월 30일 충주인권교육센터에서의 노인인권지킴이단 워크숍을 시작으로 활동이 시작되었다.

벌써 3년째..... 능력있는 새로운 노인인권지킴이단 3기 분들의 참가로 먼저 활동했던 경험이 많은 1기, 2기 분들과 활동조를 재편성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배움터에서 간간이 교육도 받고, 각 기관을 방문하면서 활동에 참가했다.

첫 해 시작할 때보다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속해있는 3조의 활동에 동참했지만, 새로운 기관의 새로운 담당자 분들을 만날 때마다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면서 참여했다.

우리 노인인권지킴이단을 담당하신 김명희 선생님, 그리고 유성열 행정코디 선생님의 친절한 배려에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임했다. 나의 동참이 우리 지킴이단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노인의 세계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생각하며!

김양중 |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위원회 노인지킴이단의 노인일자리 찾기 활동을 마치며 소감을 적어본다. 정년퇴직을 하고 자원봉사를 찾던 나에게, 동생의 권유로 노인인권 지킴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활동을 하면서 과연 우리 노인인권 지킴이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들을 찾아내고, 실태를 관찰 연구하는 시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인권 증진에 얼마나 기여 할 것인가? 또 활동하면서 발견 된 여러 가지의 그 문제점들은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정부에 건의 되어져 과감히 속 시원한 해결 방안들이 나올 것인가? 나 자신 노인으로서 궁금하였었고 나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다.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관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사회로부터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고 노인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경제적 빈곤과, 건강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노인들이 생각보다는 많다는 현실에서 답답함을 느꼈다. 아들, 딸이 있어도 부모를 봉양할 수 없는 형편이 많고, 국가 기관이나 사회단체가 이들을 모두 수용은 불가능하고 현실법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마음 아픈 모습도 있었다. 정부에서 그동안 고생한 노인들에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섬세하고도 다양한 장치와 정책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법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 일자리 문제 실태를 어떤 각도와 측면에서 접근할 것인가? 건강한 노인들이 한 해가 갈수록 점점 쏟아져 늘어나는 현실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우리 사회의 '기초적인 문제'로 점진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사안이라 생각된다. 진정한 노인복지는, 노인들에게 경제적 환경을 만들어 주어 그들이 자기의 일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보람을 느끼며, 노후를 스스로 선택 할 수 있게 하는 길이 진정한 노인복지 사회가 아닐까?

오늘날의 노령화사회를 대비하는 1차적인 일은 안정된 노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진정 노인건강과 복지를 위한 길이며 행복한 사회가 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활동을 마치며



김영미 |

나는 65세가 되어도, 지하철 무료 이용권 혜택을 받고 싶지 않다. 경제적 여력이 없어도, 무료 급식소를 찾아 방황하고 싶지 않다. 편안함을 빌미로 경로당을 기웃거리며 여생을 결코 보내고 싶진 않다. 나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이지만, 이 사회에서 당당히 일을 할 수가 있다. 내 삶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당당함은, 나 자신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일터에서 하루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이 사회에 강력히 주장한다.

노인인권 3기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문제와 노인 복지 프로그램 전문인 강의를 통하여 공부를 하며 많은 정보를 들었다. 그런데 점점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에 대해 깊은 고민과 실망을 안게 되었다. 왜 그런지 그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노인복지와 노인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정부의 허구적인 정책일 뿐이라는 생각이 고개를 자꾸 가우뚱 흔들게 했다.

바라건대 노인들이 이 사회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으로 일하게 될 때, 정부가 나름대로의 경제적 지원을 조금 해 줄 수 없을까?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분야에서 일 해왔던 우리 노인들의 많고 커다란 자원 덩어리를, 왜 우리 정부는 제도적으로 나라에 도움을 주며 실제 쓰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영국처럼 정책을 강구하지 않았던 것일까?

해가 갈수록 쏟아져 나오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젠 모두 노인 아닌 노인들

이다. 과연 그들은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노인들인가? 나는 정부에게 정말이지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이, 이제는 하나의 방편이 아닌 실제로 절실히 버린 현대 사회의 쟁점이지 않은가 묻고 싶다. 퇴직을 하여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작은 월급으로도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 노인복지 법제도를 만들어 주길 강력히 바란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 한다. 그리고 노인으로 스스로 당당해지고 여유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다. 자식들에게도 행복의 씨앗이 되고 삶의 본보기가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된다. 자식들에게 일을 할 수 있을 때 까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의 지혜롭고 열정적이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다!

노인을 경제활동 인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김옥숙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현대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의 경험과 경륜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및 봉사 영역을 개발하고 노인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켜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질적인 노인들의 생계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사업이 되었으면 한다. 경험과 교육을 통해 전문 기술을 습득한 건강한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자리라면 더더욱 좋겠다.

다수의 중복적인 노인복지 사업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등의 예산의 과부족 현상을 해소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근로 가능한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일자리 사업기관과 인력간의 매칭 노력이 민간과 공공기관 간에 필요할 것 같다.

노인들의 지난날 살아온 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점이 빨리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며, 그로 인해 힘든 부분들도 보였다. “고령화 65세 인구 500만 돌파. 생산인구 감소. 노인 부양이 증가...” 신문이나 방송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들어봤을 만한 고령화 대란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젊은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기반이 되고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회참여 할 수 있는 활기찬 노후를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활동을 마치며

| 박행순

올해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 해보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사회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구청 등 몇몇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노인일자리 참여자분들에게서도 여러 문제점을 청취도 하였다.

물론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가장 공통적인 점은 ‘일자리 부족’이었다. 한정된 일자리에 신청자는 10배도 넘는다고 한다. 당연히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만이 많을 수 밖에.... 노인 일자리사업 담당자의 고충 또한 적지 않았다. 누가 보아도 건강상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일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억지부리는 일이 많다고 한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져 2000년도부터 자활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시작된 매우 좋은 사업이지만 지금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분들의 가장 큰 불만은 보수는 차치하고라도 연간 7개월뿐인 근로기간을 적어도 10개월 정도로 연장해야 된다는 것이다.

평균수명연장과 저출산으로 인하여 베이비붐 시대는 가고 실버붐 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에 대비하지 못해 너무나 어렵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노인세대들이 많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다 정작 자신의 노후대책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노년이 닥치고 만 것이다. 자식들의 공격 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야 할 분들이 지금 소외되고 버림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고령화 시대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다. 노부모 봉양의 책임은 자녀에서 점점 국가로 그 중심축이 이동되어 가고 있다.

각설하고, 다시 일자리 사업으로 되돌아 가보자. 지금까지는 사회 취약계층 중심으로 양적 위주였지만 2011년도부터는 질적 성장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아주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일자리 사업을 만나게 되었다. 서구 시니어클럽을 방문했을 때 여러 일자리 사업이 있었지만 가장 나의 관심을 끄는 사업은 '시장형 사업'이었다. 떡을 주문받아 만들어 주는 떡방아 사업이었다. 정말 노인 일자리사업으로서 최고인 것 같았다. 주 3회 일 3~4시간 내외 45만원의 수입을 얻는다고 한다. 이정도만 된다면 웬만큼 소득보충이 되니 대다수의 노인들은 만족하지 않을까?

정책 입안자들은 노인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 노인일자리 개수도 중요하지만 고령자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 시장 경쟁력과 일자리의 지속성, 또한 일자리의 질을 높여 노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우리 노인들도 나라에 불평, 불만, 요구만 하지 말고 국가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



활동을 마치며

변상홍

부산시는 올해 일자리사업에 208억을 투입했다. 부산지역 65세 이상 노인 41만여명의 3.38%에 해당하는 1만 4천명 가량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얻었다. 이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주2,3회 하루 3~4시간을 근무하고, 월 20만 원을 받았다. 매년 3월에서 9월까지 7개월 정도 일한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은 구,군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실버자율방범 파견 사업, 문화재사업 등 수십 가지에 이른다. 크게 공익형, 복지형(공공분야), 시장형, 인력파견형(민간분야)로 나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가 보조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공공분야의 인원이 제일 많다. 지자체가 아파트택배, 자연체험 학습장 등 사업장을 만들어 노인을 고용하는 시장형, 지자체가 소양교육만을 담당하고 인건비는 업체가 지급하는 인력파견형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부산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부산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의 18.4%(전국 평균 34.4%)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원자가 과도하게 몰리는 상황이다. 부산시 중구 관계자는 “정원의 3배가 넘는 노인이 사업에 지원해서 소득 및 재산이 낮은 순으로 선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참여해도 급여가 월 2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생계비보다 용돈에 가까운 것이다.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들이 일자리를 얻은 것은 기쁘지만 급여가 너무 적은 것이 아쉽다고 아우성이다. 또한 전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직종이 소수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다. 구직자의 욕구는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노인을 채용하는 업체는 경비나 미화 쪽이 대부분이다. 고용인력종합관리센터에 방문했을 때, 담당자는 “공무원, 전문직 등 은퇴 전 사무직에 종사했던 노인들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다.

최근 호텔, 카페, 편의점 등에서 활약하는 노인들이 많은 만큼 민간 기업이 노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청년 일자리만큼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다. 노인들에게는 일자리가 생계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노인 재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관련 예산을 늘려야한다.



2011년 활동 소감

변정류

‘인권위’에 대한 낯설음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활동이 마무리 단계라니 벌써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2% 부족한’ 느낌이 여기에도 해당 되구나 싶습니다. 우선 명함을 사용 할 수 있다는 게 기분 좋았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지를 기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명함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리 예약된 유관 기관에 갔을 때, 운영 정책을 듣습니다. 운영 실사례도 듣습니다. 이때, 내가 무슨 자격으로 듣는지가 불확실합니다. 성실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그들에게 격려차 가는 것인지 민원차 가는지가 헷갈립니다. 둘 다 아닙니다. 나는 폐가 되지 않아야겠다는 예를 갖춥니다.

맞이하는 쪽도 다양합니다. 젊은 복지사는 어른을 대하듯 조신한 언행으로 대합니다. 중년의 여직원은 극히 공적인 모드로 슬라이드 영상 브리핑을 합니다. 침침한 사무실에서 한 장의 유인물로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끝내는 노련한 분도 계십니다. 아마 어르신들 앞에서 어리광 부리는 풍류(?)는 지니지 못했을 것 같은 끈대(?)같은 실무자였습니다.

실버 엑스포에서 벌인 취업 성향 설문제시에서는 노인 세대가 생계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취업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자체 단체장 후보자의 소견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개발은 그만하고 복지에 더 힘써야겠다”는 지당

한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언행이 다르기로는 세계적입니다. 원만한 일자리가 그들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그런 걱정을 할 만한 여유가 있기라도 한 건지 의문입니다. 취업노인을 위해서 노인인 내가 깊이 생각해 보는 일도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이릅니다.

유관 기관에 찾아가서 하는 연수에서는 자체 모니터링 전문 부서가 소개되기도 했는데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강사님을 모셔와서 듣는 연수가 제일 호감이 가는데, 지킴이단을 훌륭한 봉사라고 해서 듣기가 좀 거북스럽기도 했습니다.

지킴이단으로서 할 만 한 일은 취업 노인의 고충을 직접 듣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 그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될 수 있으면 ‘좋은 게 좋다’는 사고로 살아오셔서, 개선이나 건의를 ‘분란’이라고 생각 하십니다.

‘풍요를 건네주신 노인 세대’라고 부산노인 신문에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말만 들어도 행복해집니다. 젊음을 바쳤지만 아직도 일부 취업에 놓이신 노인 세대의 풍요는 무엇일까요?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노인지킴이단이 취업 노인을 일일이 찾아가는 날이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억에 남은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만났던 통역 봉사자는 잠깐 쉴 곳조차 없어 아쉽다고 하시면서 우리 일행을 지하철 역무실로 안내 하셨습니다. 그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오랫동안 생각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광객 걸음로 다가가면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피할까? “VOLUNTEER” 이미지에 걸맞지 않은 조끼와 모자 때문일 거라는 것 이상의 생각은 접어 두 기로 작성 했습니다.

시장형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은 담담한 태도로 일관 했습니다. 취업되기 전까지의 열린 답소도 예상했었는데 불편 없다고만 하셨습니다. 생계가 달렸으니까요. 독립하여야 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악 관행이 생성될 소지가 많겠구나’ 하는 예감입니다. 이런 느낌이 기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이었다는 20만원대 노인 일자리에서 주 5일제로 하루 2시간씩, 일당 만원, 20일 출근하는 근무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루 두 시간이니까 매일 출근해도 좋으시다’고 했다지만 2시간을 칼같이 잘라 퇴근 할 어르신이 몇 분 이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 도우미는 2시간으로는 세척기로 하는 설거지 한 번도 제대로 못 돕습니다. 숙달된 직원이면 몰라도, 짧게 예비 인력으로 투입되다보니까 퇴근시간을 칼같이 못 지키기 십상 일 것입니다.

퇴근 시간을 알리는 알람은 없습니다. 가끔 점심 요기도 하시면서 도우미의 실력을 과시하며 스스로 최선을 다 하실 것입니다. 버스비, 품위유지비 등을 지출 하면서 20일 출근하는 근무 조건은 여가선용도 아닙니다. 혹사에 가깝습니다. 얼핏 운을 띄웠더니 그렇게 희망하는 분들이 대다수였다고 하십니다. 시키는 쪽에서 판단 할 일이지 다수결로 정할 일은 아닙니다. 늙으면 병원에 갈 일이 더 많습니다. 손주는 언제 보러갑니까? 주말에 가면 사생활 침해되는 요즘입니다. 격일제로 출근해야 친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들이라지만 젊은이만큼 할까요? 그럭저럭 병을 키워 가겠지요.

취업중인 노인 당사자의 말을 들어 볼 수 있는 확실한 제도가 마련되어 말 그대로 인권을 논할 수가 있었으면 합니다. 충분한 전문을 갖춰야 인권 사각지대에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 유관기관 방문 할 때에도 열심히 듣고 많이 공부해야겠습니다.

더 앞서 행정일선에서부터 일자리 노인들을 좀 더 세심하게 융통성 있게 배려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킴이단이 필요 없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킴이가 필요하다면, 더 확실하게 밝혀준다면, 백전노장의 이름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노인인권 지킴이단 활동을 기대하며

| 서규원

금년도 국가인권회 노인인권지킴이단의 활동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인권침해나 고용차별의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여러 복지관이나 노인회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곳을 방문하여 주최측의 설명과 일자리사업에 대한 여러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증가로 한정된 일자리에 많은 취업 희망자가 몰리면서 고용차별 문제가 생기기도 하여 취업 희망자의 불만이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고령자에 대한 차별처우금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실시한 노인일자리 취업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그나마 일년 12개월 중 7개월만을 일하며 작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불평도 많았다.

2011년 부산시 노인일자리 경진대회(6.23-6.24)에서 만난 한아주머니는 어느 복지관에서 주방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재취업에 불리할까 염려해서 5개월을 무료로 봉사한다면서 ‘신바람 나는 취업’이 아니라 불만뿐인 취업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반면, 모범적인 사례도 있어 어느 복지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 스스로 경제적 자립 및 사회적 활동을 위한 전문일자리로 방편으로 직접 쿠키 및 베

이커리를 생산하여 복지관에서 전시판매와 주문배달 하는 등 스스로 노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 주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지킴이단 활동을 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노인들을 위해 지킴이단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보람된 활동을 같이하신 회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활동을 마치며

| 임용흠

‘일 할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지는 우리 어르신들 그분들이 제 쓰임을 찾아 신명 나게 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것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주된 목적인데 현재로서는 그마저도 자리가 많이 모자란다고 한다.

나이 제한은 안 하는 편이라는데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문이 좁아서 취업이 힘들고, 힘들게 취업이 되어도 만족이 안 되어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나와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아직은 나이가 취약점이라 하겠다. 이는 사회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에서 노인 빈곤율이 높고, 독거노인도 많은 상황에서 노인문제 해결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같은 사회적 활동을 늘려 생계비 마련은 물론 건강과 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노인인구비율이 11%로 인구 10명 중 한명이 노인이던 것이 2030년에는 24.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인구 4명 중 한명이 노인이 되고 2050년에는 38.2%로 인구 5명 중 2명이 노인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39.6%) 다음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이 OECD의 예측이라고 한

다. 수명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노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노인층 중에서도 60-70대 노인들을 경제활동인구로 흡수하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노인세대는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에 대한 노후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는 세대이다. 거기에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국가 중 최악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 더 많은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여 적은 수입이라도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인의 사회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새로운 노인상이 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활동을 마치며

최돈자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고 출산률은 낮아져 앞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신문지상에서 걱정하고 있다. 칠십을 바라보고 있는 나로서는 수명이 길어져 기뻐해야 할지, 후손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미안해야 할지 내 마음의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

인권위에서의 금년의 과제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모니터링이었다. 몇 달 동안 여러 곳을 방문하고 여러 기관의 실태와 계획을 담당자들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노인의 복지와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본인 개인의 능력과 하겠다는 열정만 있다면, 적재적소에서 열심히 사회를 위해 봉사하기도 하고, 노후 생활에 활력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직도 계획의 시작단계라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과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생기가 돋고 생활에 활력이 넘치며 자기의 위치에 아주 만족해했다. 그러나 일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누군가는 밀려나야하는 과정을 이해는 하지만, 어쩐지 불공평 한 것 같은 불만이 있었다.

보살펴야 할 노인은 많고 도움을 줄 젊은이는 부족해진다니..... 그렇다면 그 노인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해 이 사회가 돌아간다면 어떨까? 젊을 때보다 속도는 좀 느릴지 몰라도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를 임금피크제 같은 제도를 두어 나이 들어 갈수록 임금을 낮추고, 어느 선까지 가면 거의 봉사하는 수준까지 되어 노인들의 능력을 최대한 쓸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

그 좋았던 경험과 능력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계획이 짜졌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일 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노인인권지킴이단에 참여하면서

김태욱 (1조 활동코디)

7개월 가량 노인인권지킴이단을 함께 하면서 올해의 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관련 교육과 활동 그리고 평가를 체계적이면서도 조직적인 활동을 통하여 소기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역할을 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0년대의 혁명적인 “잘살아보세”라는 새마을 운동은 국민의 정신의식을 농경에서 공업 중심으로 바꾸는 행동 운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대변혁운동으로 경제는 부흥되었고, 지금은 세종대왕 이래로 국민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IT최강국으로 OECD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그 동안 산업의 주역이었던 노인들이 이제는 일자리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흥의 주역이었지만, 지금의 일자리 환경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을 환경에 맞출 수 없고, 미리 준비한 교육도 없어 노인일자리 사업이 개인의 능력 개발 없는 단순하다는 점과 공동체의식을 살리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7개월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일자리는 일자리의 개념과 노인의 욕구에 맞는 자기계발과 임금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과 필요한 일자리교육이 철저히 선행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노인인권지킴이단 올해의 활동에서는 1.일자리 피교육, 2.일자리 간접체험, 3.일자리 소통의 3단계를 통한 노인 일자리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지킴이단 역할에 필요한 단계별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던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이었고, 끝까지 이끌어주신 위원회 관계자와 지킴이단 회장님의 물심양면 지도와 협찬 및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기관을 탐방하며

최안자 (3조 활동코디)

올 한해도 노인복지관과 노인관련 관공서인 ‘부산시고령인력종합 관리센터’와 ‘부산시노인취업교육센터’ 등을 방문했다. 그 취지는 노인이 처한 현황 파악과 ‘노인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빈곤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간절한 바램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들의 일자리는 고용 기간도 짧고 임금 수준도 낮다. 소위 전문성도 없으며, ‘환경미화’나 ‘지하철지킴이’ 같이 단순노동이며 상황도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활동에서 제외된 박탈감으로 의기소침해 하는 것 보다는 살아 있다는 생동감의 원천이 곧 ‘일과 소속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시장형 노인일자리’가 반갑게 와 닿았다.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머니들이 주축이 되어 YWCA가 주관하는 유기농 사업의 일환으로『좋은 쌀 식혜 만들기』를 하고 계신다. 할머니 스무 분이 5명씩 4개조로 팀을 조직해 하루 평균 1.8리터 26병을 만들어 4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10년째 해오고 있으며 주문 생산 체제로 운영한다. 일 년에 천만 원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적어도 창의성과 전문성이 있어 좋았다.

이렇게 ‘노인기관’을 탐방하면서 무엇보다 노인당사자인 나의 위치와 현황, 그리고 미래를 조망해 보는 귀중한 기회를 가지게 되어 보람이 있었다. 돌아본 나의 자화상은 탐방을 통해 만난 노인들처럼 역동적이고 생동하는 생활인의 모습이 없었다.

이미 정오의 태양이 머리 위를 지나며 외로운 제 그림자만 길게 드리운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생(生)의 누수를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준비만으로 끝난다. “젊은 시절은 과업 달성 중심으로, 노년에는 의미와 소명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앞선 사람들의 이 말도 나의 내면을 점점하게 만든다. 부끄럽게도 과연 나의 ‘노년관’ 안에 ‘의미와 소명’이라는 구체적인 주제가 정립되어 있는지조차 잊고 살아왔다. 맹목적인 삶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나에게도 최소한의 ‘자위의 견해’는 있다. 나는 ‘재교육’에 생의 의미를 두는 사람이다. “21세기의 문맹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하고, 교정하고, 재학습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앨빈 토플러-”는 말처럼 재학습을 통해 나의 사고력과 판단력, 인생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울 수 없다. 지금은 재미가 창의성을 만들고 창의성은 행복지수와 비례한다는 말

이 설득력을 얻는 시대이다. 그리고 행복을 물질에서 찾는다면 행복의 공급량을 계속 늘리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신적인 만족과 영적인 행복은 무한정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일이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가치, 즉 ‘배움’을 통한 깨달음으로 내면을 확장시키는 일이 이렇게 재미있고 신이 날수가 없다. 사회가 변하면 따라 변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변하지 않으면 고립을 자초하는 셈이다. “살아남는 것은 강한 종도 우수한 종도 아니다. 오로지 변화하는 종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다윈의 말이 증명하듯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동시대의 문화에 이방인이 되지 않으려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인권위의 활동으로 노인계층을 두루 살펴보면서 비록 가난한 현실이지만 내면까지 남루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본다. 그래서 실종된 자아를 찾아 자기만의 가치기준을 확립해 즐겁게 웃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지킴이 활동 종료에 즈음하여 섭섭합니다

홍진호 (홍보단) |



1기, 2기, 3기 내리 3년을 하고보니 섭섭함이 우선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매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활동으로 무언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인권에 대한 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참여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날씨가 무더워지는 만큼 의지와 활동력이 지지부진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나아지겠지’하는 막연함이 이번 결과도 “역시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에서 매사에 대하여 소극적인 활동지침을 주었는가’ 할 정도로 우리가 의기소침 해지는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인인권 지킴이 이전에 자연인으로써 당연한 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킬 수 없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최말단의 말초신경은 너무 무력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조직에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것 같은 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활동목적이 노인인권지킴이단 존재의 홍보인지, 아니면 노인인권지킴이단이 노인의 인권을 침해당한 현장을 찾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의 모니터링 대상자가 우리보다 모든 것이 우위에 있음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찾기란 어렵고, 어찌다가 얻는 것이 있다면 이미 약효가 지난 정보를 주워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정도의 모니터링 결과이었기에 섭섭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부산팀은 처음에 각오가 대단하였습니다. 무더운 더위에 방향 감각을 상실하였는지 쇠잔해지는 모습이 역력해졌습니다. 조직을 활성화하고 자립심을 고취하기 위한 적당한 대가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겸업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의 활동 중에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과 맞물려있는 청년 일자리사업 등에 인권지킴이단이 서야할 위치가 참 모호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각 지역 자치단체장 이하 사회단체에서 하는 노인일자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우리지킴이들이 배타당하고 또 약간의 금품(식사, 교통비)도 그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차이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신분보장도 되는지 아니되는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지킴이들에게 신분보장을 해주시고, 약간의 대가(노인일자리 대가정도)도 지급하고, 자연인의 즉, 국민의 기본권리 알권리를 행사하는 차원에서 의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킴이조직이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지킴이단 조직은 어떠합니까? 유익한 활동으로 무엇이래도 가지고 오면 이익이고, 아니라도 상관없고, 홍보는 되니까, 이렇게 있으나 마나한 조직 운용으로는 정규직 근로자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알바도 아니고, 일

용직도 아니고 어디에도 붙일 때 없는, 책임도 있는지 없는지 하는 조직으로서 국민이 아닌 인간의 천부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현재의 노인인권지킴이단 조직으로는 아무래도 모든 면에 미흡하지 아니한가 좀 섭섭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지킴이단원 중 누가 활동 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지킴이단에게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하면, 국민이 아닌 인간의 인권을 다루는 인권위의 올바른 처신이라고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는 그러한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해에는 지킴이 당사자의 잘못까지도 대표가 책임지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하고, 또 지킴이단 개개인에게도 책임과 권리가 있으며,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 되도록 하는 그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첨언하면 현재의 지킴이단 조직을 인권위의 산하단체화 하든지, 노인일자리 정도의 대가와 책임소재가 분명한 조직, 혹은 인권위의 순수한 홍보요원화 함이 어떨까 생각되어서 사족을 붙임 합니다. 난필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로의 삶

진갑 (홍보단)

어느 지인의 소개로 독일 신부가 쓴 『제3의 인생』이란 책을 읽게 되었다. ‘제1의 인생은 부모님 보호를 받는 시기, 제2의 인생은 직업생활을 통해 수입을 계산했던 시기, 제3의 인생은 퇴직 후 자신을 위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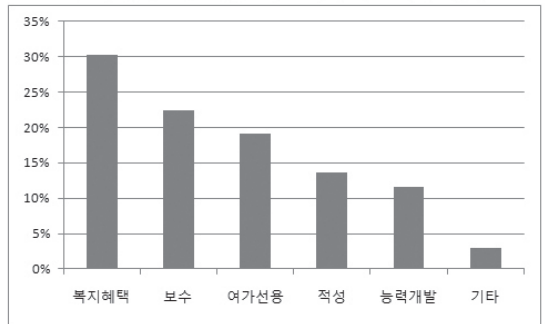
이제 내 인생도 제3의 인생에 들어섰기에 ‘제3의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만의 인생을 값지고 보람 있게 살아가야하는 방법은 무엇 일까를. 그래서 생각한 것이 신앙의 영향도 있었지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려 하였다. 봉사의 생활 속에서 터득한 것은 봉사를 통하여 나 자신이 도리어 봉사를 받고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나의 봉사는 아주 미약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우연한 기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인인권지킴이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청을 하였으나 많은 응모자중 선택의 가능성을 별로 두지 않았는데 희소식이 왔다. 홍보단으로 활동하란다. 사실 인권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아오던 터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 5월 25일 부산광역시 노인지킴이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5월 30일 충주 1박2일 노인인권 워크숍을 통해 인권이 무엇인지, 지킴이 단이 어떤 것인지 겨우 눈을 뜨게 되었고, 6월 22일부터 3일간 2011년 부산국제 실버엑스포를 마치고 나니 약간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거듭된 교육으로 노인의 인권과 일자리에 대하여 머릿속에 흐릿하게나마 정리가 되었다.

금년도의 목표는 노인일자리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 공급의 엇박자, 일자리에 관련된 다양한 개발과 교육의 필요함과 노인 자신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석 등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일자리를 담당할 공무원 중에는 실적에만 연연한 나머지 취업자의 사후 관리는 대단히 미흡한 상태로 보였다. 취업 후 적응, 적성, 보수, 인과관계, 희망사항 등 사후 관리가 부족한 부분. 이는 관리 일손의 부족, 예산의 불충분 등 때문이라는 생각도 하게 하였다.

2011년 부산국제 실버엑스포의 3일 동안 활동에서 구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는 복지, 보수, 여가선용, 적성, 능력개발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 안에는 '인권'이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겠다.

구직활동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다.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나 복지의 예산이 초고령화로 가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인권에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바램이다.

노인의 인권 다른 사람이 찾아주기를 기다리기보다 평생공부를 통하여 자신이 먼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인이라 생각하고 노인대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인생의 내적 충만함과 지속적인 공부로 자신이 노인이라 물러서지 말고 초고령화로 가는 우리 사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찾아 활동적인 여생을 보냄으로 소속감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산지역 활동평가

▶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사회공헌분야와 민간분야로 나뉘며, 사회공헌분야는 다시 공익형(자연환경정비, 거리환경개선 등), 교육형(숲생태해설사, 교육강사 등), 복지형(노노케어, 육아지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민간분야는 시장형(아파트 택배, 밀반찬 제조 및 판매 등)과 인력파견형(주유원, 신문배달 등)으로 나눈다.

▶ 2011년 부산시의 노인일자리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규모 : 13,800개 일자리, 207억원(국·시비 각50%)
- 수행기관 : 16개 구·군 등 94개 기관(시니어클럽, 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 참여대상 : 65세 이상 건강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어르신

▶ 모니터링 결과 부산인권위원회 노인인권지킴이단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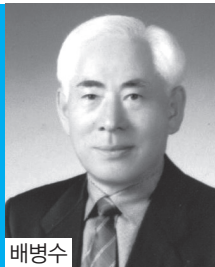
- 사업의 개발단계에서 대상자선정과 불특정다수에 대한 홍보 등의 기회나 선행사업 비용이 책정되어 실제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 발굴 및 기관과 공동사업개발을 통한 사전 사업에 대한 기회 제공 등의 실사구시를 위한 여유 있는 정책의 실천이 필요하다.
-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는 채널 개발이 시급하며, 사업참여자에 대한 비용과 사업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지역별 소득수준별 모집단을 선정하여 표준화 일자리 교육을 실시 한 이후 선정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사업 참여 전·후와 정보유입 채널을 파악하여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노인들은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의 창업 경비일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기업 인턴쉽 프로그램 등을 통해 능력을 가진 노인끼리 모여서 협동으로 일자리를 준비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1년 중 일자리사업에 7개월 참여한 이후에 나머지 5개월은 자원봉사로 활동하지 않으면 다음해 일자리 선정에 불이익이 명확하여 어쩔 수 없이 무료 봉사에 참여하는 관행 개선해야 한다.
-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의 다양화와 교육체험을 넓혀서 노인들의 일자리 지평을 넓혀야 한다.(이와 관련해 취업교육과 함께 시니어 인턴제도의 활용이 건의되었다.)
- 고령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서비스업 혹은 제조업의 발굴도 필요하다.
- 사전 직업선호도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 시행에 참여한 노인의 직무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직업선호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 ‘노인 일자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ex ‘시니어 호텔리어’)



김금자



김장곤



배병수

광주지역

노인인권지킴이단



송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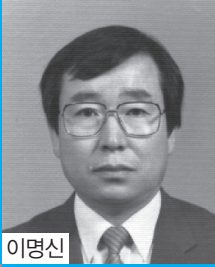
심영애



안익현



위무량



이명신



임안식



정대연



이정자



최재열

광주지역 활동일지

- 05.27 제3기 노인인권지킴이단 발대식
- 05.30~31 2011년 노인인권지킴이단 전체 워크숍
- 06.07 인권상담 & 홍보(금남로 4가역)
- 06.08 인권상담 & 홍보(금남로 4가역)
- 06.10 2011 인권조례 정책워크숍 참가
- 06.15 성희롱 예방 교육
- 06.29 시설현황파악 및 공문발송
- 06.30 5, 6월 조별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 07.05 인권상담 & 홍보(금남로 4가역)
- 07.06 인권상담 & 홍보(금남로 4가역)
- 07.12 기관방문 (조별 활동)
- 07.21 기관방문 (조별 활동)
- 07.26 기관방문 (조별 활동)
- 07.28 7월 조별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 08.18 진정함 점검자료 분류작업
- 09.06 인권상담 & 진정접수(금남로 4가역)
- 09.08 기관방문 (조별 활동)
- 09.22 기관방문 (조별 활동)
- 09.28 기관방문 (조별 활동)
- 09.29 8, 9월 조별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 10.04 인권상담
- 10.05 인권상담 & 진정접수(금남로 4가역)
- 10.06 기관방문 (조별 활동)
- 10.18 기관방문 (조별 활동)
- 10.31 10월 조별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 11.08 인권상담 & 진정접수(금남로 4가역)
- 11.09 인권상담 & 진정접수(금남로 4가역)



요양원이 사망을 기다리는 대기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최재열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폭염이었다, 요양원시설의 인권 진정함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모니터링 하기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아간 요양원은 예나 다름없이 무거운 분위기였다. 어느 노인은 인기척이 나자 걷지도 못하시면서도 엉덩이 걸음으로 나와서는 사람이 그리웠는지 반가워하면서 말을 걸어왔다. 시설관계자가 만류하고 제지하면서 들어가시라고 해도 막무가내곤 하였다.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랬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언짢고 측은하여 만류하는 사람에게 그냥 두시라고 하였다.

진정함 설치 실태와 시설 책임자와의 인터뷰를 끝내고 양해를 구하고 요양원 각 실을 탐방했다, 병원의 중환자실도 아닌데도 자력으로서는 거동도 불편하고 거동도 할 수 없는 죽음만을 눈앞에 둔 분들이 많았다. 아무리 핵 가족 시대라고 하지만 이럴 수가 있을까? 지금의 노인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아준 장본인들이 아닌가? 그러한 분들이 늙어서 힘과 동력을 상실하자 가족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허름한 시설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니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미래의 나를 본것만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다. 시설관리인에게 가족이 면회는 자주 오느냐고? 문자 1개월에 2~3회 찾아오는 것이 고작이라고 한다.

요즈음의 자식들은 부모가 병들고 거동이 불편해지면 시설에 입소시켜버

리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버렸다는 요양원 시설장의 말을 들었을 때 어찌다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말문이 막혔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65세이상 인구가 10%를 넘어섰다고 한다. 사회규범의 변화와 가족기능의 변화 등으로노인의 부양책임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서 국가나 지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의 추세가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노인요양기관들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났지만, 점검해본 시설 중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시설이나 처우등 모든면이 열악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당국에서는 정치인이나 당국자들이 복지를 내세우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요양원의 실태와 노인복지를 실제로 탐방해보니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어보였다. 선진국에 비해서 복지제도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시기가 짧은 측면도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노인들의 노후를 돌보는 책임이 국가나 지자체의 몫으로 된이상 한 단계 더 나아간 노인복지제도로써 시설들을 더욱 꼼꼼이 관리하고 예산지원을 늘리고 정책을 개발하여 더욱 향상된 서비스로 노인들의 복지가 향상되어 업그레이드된 명실상부한 복지국가가 되어서 세계속의 복지국가로 발돋움 하였으면 하는 느낌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지킴이단에서 활동하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한층 넓어졌으며,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았고, 흡족한 마음으로 노인인권지킴이단 3기를 마무리 한 것 같아서 기회를 주신 광주인권사무소 관계관 모든 분들께 심신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았다.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임을

정대연

우리 인간들은 나이 들어서 다섯 가지 복을 손꼽았다. 수(壽)-오래 살고, 부(富)-부자로 살고, 강녕(康寧)-건강하고, 맘 편하게, 유희덕(攸好德)-덕을 좋아하여 즐겨 행하며, 고종명(考終命)-제 생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은 ‘신 오복’이라고 “1건(健)-첫째, 건강. 2처(妻)-부부가 백년해로를, 3재(財)-재산, 4사(事)-소일거리, 5붕(朋)-친구로 변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 고종명과 관련된 제3기 노인지킴이단들의 활동의 초점이 다수인 보호자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관리자 방문을 택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싶었다.

“인간이여, 자연으로 돌아가라.” 나는 자연철학자 루소를 신봉한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그래서 환경지킴이와를 해오다가 ‘국제인권위원회광주인권지킴이’로 활동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2011년 5월 7일(목)에는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제 5차 다수인 보호자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관리자 교육교재’ 연수를 받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교육 받고 보니 더욱 신이 났다.

더구나, 2011년 5월 17일 금요일 낮 11시에는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에서 ‘제3기 노인인권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우리들의 활동기간은 2011.05.26-2011.12.31까지였고 활동 바운더리는 ①광주, 전남, 제주 65세 이상 인구

765,730명에, ②시설 수는 주거 48개소, 의료 586개소, ③입소자수는 16799명(65세 인구대비 2.19%)이었다. 진정함은 서면 점검위주, 23개 시설 정도 동일시설에 대한 활동 전후로 구분하여 간계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제 열과 성을 다해 진짜 인권지킴이가 되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5월 30~31일 양 일 간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는 교수님들의 강의와 상호 인사 역할극 등을 보고 시연을 해봄으로써 많은 자신을 얻었다.

그리고 또 2011년 06 10일에는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크리스탈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주최로 ‘2011 인권조례 정책워크숍’의 일환책으로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전망과 모색’이라는 주제 하에 - 패러다임의 진화- 라는 부제 하에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전망도 밝아져가고 있음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그 뒤 6월 7~8일 양일간에는 금남로 4가역에 나가 인권상담, 진정 접수하는 일을 도와주고, 노인인권분야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복잡도 단정히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지킴이북’을 입고, 열심히 홍보활동을 펼쳐 보았다. 하지만 그것이 지하철 역사라 내라 주로 유동인구와 그곳에 상주해 놀러 다니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국한된 일이어서 열심히 했지만 그 성과는 미지수였다.

6월 15일에는 성희롱 예방교육활동설명회를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에서 가졌다. 정말 훌륭하신 강사님의 교육내용도 좋았고, 배운 점도 너무 많았다. 특히 언행에 극히 삼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 자신부터’ 크게 신경을 써야 겠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그 후, 진짜 본업인 제3기 노인지킴이단 다수인 보호자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관리자 방문을 하면서 크게 느꼈던 것은 첫째, 우리가 조별 방문으로 3인 1개조가 되어 그래도 뭔가 증빙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는 사진과 보고서가 최고라서 매 번 홍보단 김장곤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더니 정말 손발이 잘 맞고, 시간을 잘 지켜줘 금과옥조였다.

둘째, 방문지를 선정해 가보니 최고의 책임자가 공문을 안받았다든가 출장을 갔다는 식으로 기피하는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하는 곳이나.”고 반문하는 걸 보고 우리를 눈 안에 가시로 여기는 것 같아 ‘우리는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 인권함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보호시설들 중에 특히 장양해야 할 점은 뭐가 있나 배우러 왔다.’고 하고, 보호시설도 돌아보고 왔다. 그 결과 입소자들 대다수가 보호를 필요로 하나 자기네들의 불편한 상황을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할만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시설장들은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자들이 찾아와도 어떠한 명목으로 든 피보호자들이 우리 지킴이들에게 침해된 사실을 말해버릴까 싶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단하려함을 느꼈다.

셋째, 진정함 설치에 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소가 적당하지 않은 곳은 우리가 시정을 요구하면 곧 시정을 하겠다고 답했지만 입소자들은 연령적으로 건강상, 혹은 문자 미해독자나 난청자, 치매환자들이라 이용할 수 없었다.(이용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걸로 보아)

넷째, 시설에 들어 사시는 분들은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써서 노인들에게 질 좋은 보살핌을 주는 것은 참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요, 솔직히 오히려 그분들이 효자 이상이 아닌가 싶었다.

다섯째, 이 사업이 수익사업으로 투자의 대상이 된다고 공공연한 소문이 나 있다. 그래서 마땅히 관계기관에서는 건강관리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감독을 게을리 말아야 할 걸로 사료된다.

여섯째, 시설물과 노인들의 거처를 우리가 요구하여 인사라도 드리고 대화를 나누고 손목이라도 잡아 드리고 왔다.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친자식이라도 만난 것처럼 두 손을 꼭 붙잡고 반겨주심이라니!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을까를 피부로 느꼈다.

일곱째, 시설장님과 종사자들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잘 모셔주고 계신 것을 보고는 참 거룩한 일들하고 계시구나. 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건의 사항을 말씀 드리면 ,

첫째, 광주 이외의 전북이나 제주에 대해서는 전혀 한 곳도 들러 보지 못했다. 이 사실은 차제에는 꼭 실시해야 마땅하리라 사료된다. 밭 작물들은, 주인의 밭자국 소릴 듣고 자란다고 한다.

둘째, 돌아 본 곳마다 근무자들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을 보지 못했다. 빛 좋은 개살구 같았다. 셋째로는, 시설장님들이나 종사자들을 노고에 감사한다. 그러나 그곳 보호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 돈벌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감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분들도 신이 아니다. 보호시설에 사는 사람들은 그분들 앞엔 죄송하지만 ‘고양이 앞에 쥐다.’ 아니, 쥐만도 못하다. 아니, 보호자들은 피치 못해 부모님들을 모셔 놓고, 혹시라도 내 부모님께 피해를 즐까봐 같이 고양이 앞에 쥐가 되고 있으니, 오죽하면 오복 중에 고종명(考終命)이 끼어 있을까?

이번에 제3기 노인지킴이단 다수인 보호자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관리방문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대한민국, 어디를 가 봐도 금수강산, 살기 좋은 나라, 그 나라에 내가 ‘노인 인권지킴이’라니 시위소찬하고 있음이 부끄럽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관계자 송병관, 김희경 선생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린다.



2011년 노인 지킴이단 결과 보고

| 이정자

2011년 제3기 노인지킴이 활동 상황을 기록하는 시간이다. 뒤를 돌아보니 손에 잡이는 몇 가지의 키워드가 뚜렷하게 떠올랐다. 2기와 3기 노인 지킴이 단체에 소속되어 나는 누구에겐가 어떤 그림으로 남겨졌을까 하는 의문문을 던져보니 뚜렷하게 이미지 개선을 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양증스러운 실버도 없었다. 그냥 무덤덤하게 눈도장을 찍는게 전부였을까.

아니다. 한 번씩 인권위 사무실에서 맛 집을 찾아 묵으라고 할 때는 재미가 솔솔했었다. 그나마도 없었다면 재미 빵이었을 건데. 묵는 것 밝히는 내게는 최고의 재미 속담에 염불에는 관심 없고 공양에 눈 어둡다라는 것 있죠! 바로 민들레 월정입네요. 보고서 작성은 딱딱해서 잠깐 농담을 담았으니 이해 주시 와요.

2011년도의 노인지킴이단이 해야 할 일은 빗고을 조와 무등산 조로 팀이 결정되었다. 나는 무등산 팀 조 출서기에 해당되었다. 가장 먼저 모니터링 간 곳이 자산동에 있는 용연 실버빌이었다. 화순 넘어가는 터널이 눈앞에 보이는 좌측 아담한 길을 돌돌돌 따라 올라가니 외에 없이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 나무가 먼저 우리를 반겼다.

나무그늘 아래 60~70대 쯤 보이는 마을 아주머님 서넛 분들이 모시 있을

다듬고 계셨다. 아마 마을 공동 작업으로 수입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분들께 위치를 물어 한참을 올라가니 용연 실버빌. 아담하고 자연 친화 실버 센타였다. 환자 분들도 편안하게 안식 한 것 같은 느낌을.... 지킴이단이 하는 일은 단순했다. 진정함 설치·미설치 확인 .

어딘가 모르게 아쉬움이 담긴 지킴이 활동

첫째는 활동하는 회원님들과의 소통시간이 단절된 상황에서 단체의 모임이 적어 서로 주고 받는 정보나 재미가 어둡했다. 또 중도에 빠져 나간 팀원을 비롯해서 소통의 벽이 두절 상태인 점도 있었고 살인적인 무더위에 주위를 건드릴 기력조차 상실된 기후 탓도 한 몫 끼었었다.

둘째는 지킴이단이 해야 할 일이 단순하게 진정함 설치 미설치 확인하는 것 외에 인권이란 방대하고 누가 누구를 감히 인권침해를 한다고 단정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확실성을 요하는 우리들에 입장이 어리 버 리 한 탓에 진정함 설치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았다. 또한 진정함은 현실성에 뒤진 형식에 불과 하다고 말하고 싶다. 병이 들어 실버 센타에 가족으로 인해 들어온 환자가 진정함을 활용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환자 가족이 방문해 환자와 대화를 시원스럽게 할 환경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진정함은 환자 가족이 활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형식에 불과하다고 그냥 묵인하면 더 안 좋은 결과를 낳 수 있지 않을까? 형식이 제도권 속에 끼어들기까지는 형식이 먼저 힘을 써야 될 것이다.

우리3조 팀은 용연실버 빌을 시작으로, 한사랑 실버타운, 한울요양원 시온 간호센터 조은너싱홈 등을 방문해 진정함 설치 미설치를 확인했다. 그중 시온 간호센터와 조은 너싱 홈 상호와 기록물들은 근사한데 내실이 없는 환자도 없었고 운영자가 힘빼나 있는 분이었는지 잠시 생각에 잠겨들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공간의 시차를 기록하지 않고 그냥 느낌대로 기록 한다는 게 인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팀원들과 시간을 맞추어 인권위사무소에서 원하는 일에 충실을 다 했노라고 말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국가 인권위 노인지킴이 홍보로 노인 건강타운이 있는 노대동 노후를 즐겁고 행복하게 삶을 멋지게 설계하는 노인건강 타운에서 사탕이 든 홍보물을 배포 하면서 인권위 사무소 직원님들과 정겨운 홍보를 펼쳐 인권이 살아 숨 쉬는 광주 인권에 도시하면 광주를 기억해 주이소.

그나저나 광주는 빛고을 무등산 입석 대 서석대가 우뚝 커니 사시사철 말없이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 힘 있게 좋은 일 많이 하며 건강하게 해피 합시다 요...노인 지킴이단 인권위 광주 사무소 행복하세요.

통과의례 고종명을 생각하며

위무량 |



무당들의 굿판

낙목한천을 눈앞에 두고
현란하게 불타는 산천을 바라보며
환희하는 군상들이여

송백은 풍상을 거둬 할수록
푸르름을 더해 가듯만
청산에는 어찌타 백설만 서릴고.

손수 깎아 만든 지팡이도 부실하고,
우글대던 까마귀도 자취 감춰
그림자도 볼 수 없이 소식마저 끊겨 버렸소.

노인인권지킴이단원들이시여,
실버들의 고종명을 위탁받아 벌려놓은
무당들의 굿판이나 잘 지켜 보자구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우리는 세상사의 변함을 말할 때 그런 말을 흔히 쓰고 있다. 그에 따라서 우리들의 전통 가정도 3, 4대가 함께하며 살던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으로 분해 된지 오래다. 그에 따라 조부모들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밥상머리 교육도 받을 수 없게 됨과 동시에 미풍양속의 뿌리까지 뽑혀버렸다.

과거엔 남의 부모일지라도 웃어른에게는 조건 없이 공경하고 복종을 했으며 잘잘못을 떠나 웃어른이 책망을 해도 바른 태도로 받아드렸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는 예전처럼 부모에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버렸다.

현세는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겉으로는 생활의 여유로움을 만끽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일확천금을 하려는 사고방식이 확산되고 파사로운 인간미는 시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예로부터 유형무형으로 내려온 오복(五福)도 세상의 변해가는 모습에 편승하여 변해가고 있다. 오복이란 말은 중국 유교의 5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書經) 1편인 홍범(洪範)’편에 나온다. 그 뒤 다른 경전이나 문헌에도 인생에서 온갖 복을 갖추었다고 말할 때 이 오복이란 말을 사용하였다. 옛날부터 집을 지면서 상량식을 할 때 대들보 상량문에도 年 月 日 時를 쓰고 그 밑에는 ‘응천상지삼광, 비인간지오복(應天上之三光 備人間之五福 : 하늘의 세 가지 빛에 응하여 인간 세계에는 오복을 갖춘다)’이라고 쓰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적인 관례가 되었다.

사회의 변천에 따라 변화해가는 오복을 형태별로 구분하여 음미해보면 서

경 주서 홍범 편에 나오는 오복은 수(壽), 부(富), 강령(寧康),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으로. 첫째, 수(壽)는 장수하는 것이고, 둘째, 부(富)는 물질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것이다. 셋째, 강령(寧康)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것이며, 넷째, 유호덕(攸好德)은 덕을 낙으로 삼음이다. 다섯째, 고종명(考終命)은 제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을 말함이다.

서민들이 원하는 오복으로는 첫째, 좋은 치아. 둘째, 많은 자손. 셋째, 부부해로. 넷째, 적당한 재산. 다섯째, 명당에 묻히는 것으로 들고 있다. 현대판식신 오복으로는 첫째, 건강. 둘째, 부부해로. 셋째, 적당한 재물. 넷째, 알맞게 할 수 있는 일. 다섯째, 속말을 할 수 있는 참된 벗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말하는 오복의 조건 중에서 모두 뒤로 하고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의 요인이 된 것은 ‘고종명’이다. 그래서 자기를 나아준 노부모를 멀리하고 버리려하는 부도덕한, 도덕적 잣대를 치우고자 하는 곳이 노인복지 요양원이 아닌가한다. 다시 말해서 요양시설은 오복 가운데 노인들의 고종명(考終命)을 위탁 받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설에 입소한 대부분의 요양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자의견 타의견 싫건 좋건 가족의 품을 떠나 시설에 몸을 의지한다는 것이 마음이 몹시 허탈하고 쓸쓸하다는 것이다. 그래, 입소한 처음에는 못 먹고 아파도 좋으니 집에 가서 살겠다고 퇴소를 원한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쓸모없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자식들에게 죄책감이 들어 죽고도 싶었지만, 시설에서 잘 챙겨주는 생활에 적응 하다보니 요양원이 따로 없는 천국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탁을 시켜놓고 보면 시설 이용자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측이 규정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지도 감독하는 것이 관계당국의 책임일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노인인권지킴이단의 자원봉사인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 노인 인권 지킴이단이 자원봉사의 사명을 띠고 요양원마다 첫발을 내디뎠을 때 모든 시설이 한결같이 “나라 사랑, 가족사랑, 자연사랑을 컨셉으로 한 인테리어” 환경을 잘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시설 종사자들의 자세 또한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뭉쳐진 요양원이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자기 직분에 열중하는 모습과 함께, 시설에 입소한 분들에게도 하나도 불편한 점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시설장에게 여러 통로를 통해 시설 방문 모니터링을 예고했음에도 인권지킴이단의 방문 도착 예정 시간에 맞춰 시설장들은 대부분 자리를 피하고 없었다. 시설 측에선 인권지킴이단에 대한 선입견도 자기내부의 흠집이나 잡아내려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그렇게 달가워하는 표정도 아닌 듯 했다.

그런데 시설측이 설치해둔 진정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대부분 건의함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 설치되어 있는 시설도 장소와 설치 높이도 알맞지 않는 곳이 많았으며, 확인도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었고, 단 한 건도 진정함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쓴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시설자 측의 말에 의하면 진정함은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나 필요할 뿐, 치매 및 중풍에 걸려 식음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고 의사소통도 힘든 노인요양 시설에는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는 견해였다.

우리 지킴이단의 주 임무는 진정함 설치운영 실태파악 모니터링의 큰 의미를 갖는 봉사활동이었다. 하지만 노인인권지킴이단의 활동범위가 진정함 설치 운영 실태의 제한된 모니터링으로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그렇다 할 큰 보탬을 주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 자체는 보람된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천사 같은 사람들

배병수

모든 물품에는 변화의 과정이 있다. 어떤 명품이거나 하찮은 물건일지라도 수명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물건은 폐품이라는 종착점을 향하여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누구나 어머니 뱃속을 나오면서 춘음을 쉬지 않고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유아시절엔 어느 사람이나 천사와 같이 예쁘지 않는 어린이가 어디 있으랴! 내 주변에서 젓먹이 어린이를 보고 있으면 나도 어린 아이의 웃음처럼 구김이 없이 환한 얼굴임을 느낀다.

그토록 해 맑은 어린아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장년을 거쳐 잠시도 쉬 없이 세월 따라 종착지를 향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늙은이나 '마음은 청춘 같다.'라고 말한다. 세월의 흐름에는 누구나 거역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앞만 보며 바쁘게 살아온 흔적을 이제야 뒤돌아보면서 좀 더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기도 한다. 이제야 뒤도 돌아 보이고, 옆도 보이는 여유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전·후·좌·우가 떡통처럼 감감했다.

요즈음 언론매체를 보면서 일생동안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에게 헌납하는 미담이 보도 될 때는 귀가 번쩍 뜨인다. 나는 그럴 때마다 소인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짓누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젠 나도 2011년 봄 무렵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머리에서

멤버들 무렵 광주인권사무소에서 ‘노인 인권 지킴이단’원을 모집한다는 반가운 소식에 응모를 하여 1차와 2차의 과정을 거쳐 ‘제3기 노인지킴이’로 위촉장을 손에 쥐게 되었다. 전국 노인지킴이단원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충주교육원에서 빈틈없는 계획에 따라 워크숍이 이틀 간 진지하게 열렸다.

그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노인 인권지킴이단에 입단하였지만, 이곳에서도 활동을 잘하려면 배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다. 그럴 때 광주 인권사무소에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카페가 있다. 나로서도 수시로 카페를 찾아 들어가면 많은 회원님의 좋은 글도 올라와 있고, 광주 인권사무소에서 노인지킴이단에게 활동할 내용과 공지하는 글도 있었다.

광주인권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금남로 지하상가와 지하철역 주변에서 인권 피해에 대한 신고와 홍보전단지도 배포해 보았고, 시민과의 모니터링도도 안내 보았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내에 산재해 있는 여러 요양원시설을 분담하여 방문도 하였다. 나는 평소에도 봉사를 하면 즐겁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다. 나도 대수롭지 않는 봉사 활동이지만 그날이 오면 왠지 아침부터 기다려져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생동감을 느꼈다.

요양원의 방문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요양원측과 시간을 약속

받아야 했다. 지정된 시간에 요양원 시설을 방문하면 관계자님은 흔쾌히 영접하였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시설을 단장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모두 청결하였고, 시설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하나같이 단정한 몸가짐에 친절할 모습이였다. 우리 일행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꼼꼼하게 점검하였다.

특히 올해 광주지역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요양원에 진정함 비치 결과는 모두 만족스러울 정도로 지정된 규격과 장소에 잘 비치되어 있었다. 체크리스트를 마치면 요양원 주무자와 함께 시설을 돌아보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타 요양원 시설에서 본 받아야할 점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졌다.

어느 요양원에서나 방문하고 나올 때에는 시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의 가슴을 가득 메웠다. 연령과 남녀 구분 없이 나이가 많으시고, 행동에 제약 있는 분들이 시설에 계셨다. 어떤 노인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서 도우미가 모든 것을 챙겨 줘야 되는 이도 계셨고, 관리하기 힘든 치매환자와 호흡곤란을 느껴 코와 입에 호스를 끼워 무작정 연명만 하는 사람도 계셨다. 그분들을 보고 있으면서 사람이 이승을 마감하면서 좋은 감정으로 징검다리를 건너가듯이 수월하게 생을 마치면 좋을 것인데... 신은 왜 생을 마감할 때 이토록 괴로움을 주셨을까 하고 원망도 하였다.

하지만, 신의 작품엔 결함이 없지 않은가?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몸은 쇠약해진다. 눈이 침침하면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지 말라는 뜻일 것 같고, 코가 안 좋아지면 아무거나 다 냄새 맡지 말라는 것일 것 같으며, 귀가 어두운 것은 모든 것을 다 듣지 말라는 뜻일 것 같다. 그리고 입이 아플 때면 말하고 싶은 것도 입 다물고 살라는 계시인 것 같다. 그리고 보면 희로애락에도 감정이 무뎠던 것은 저승을 가기 전에 자연스럽게 조금씩 준비하는 과정처럼 생각된다.

시설에 계신 노인들은 건강상태에 따라 각자 달리 시간을 갖는 듯 자유롭게 보였다. 하지만,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잃어버리고 녀을 잃고 멍하니 먼 산을 바라다보다가 눈만 깜박거리고 계신 분도 계셨다. 그런 노인들을 자기 가족처럼 돌보아 주시느라고 애쓰시는 시설요양원 직원들의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렵게 주어진 환경에서 봉사적인 마음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모두 다 천사들이라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여러 요양원과 여러 직원 중에는 힘없고 약한 노인에게 함부로 대하는 직원이 있을 때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권 사무소의 역할과 노인 지킴이단의 노력이 한 층 요구된다고 보여졌다.

내가 돌아본 요양원은 주로 종교시설에서 운영되는 곳이었다. 사설요양원 이어도 주무 담당자는 역시 꽃보다 아름답고, 천사 같은 사람이 많다고 여겨졌다. 우리가 시설을 방문한다는 약속에도 요양원에 따라서는 더욱 신경을 써서 시설을 잘 갖추려고 노력할 것이고, 보호시설에 계신 노인 분에게 더욱 친절하게 돌보아 주실 기회가 될 것 같다. 대부분의 요양원에서는 관리자님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모습이어서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싶었다.



모니터링의 폭을 좀 넓혔으면 한다

■ 심영애

지금은 대부분의 가족이 핵가족으로 분해 되어살고 있다. 그런데다 분주하게 살다보니까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오손도순 훈훈한 정을 나누는 보금자리 기능도 사라져 가고 있다. 그 결과 가정에서 이뤄졌던 일들이 틀에 짜인 시설 쪽으로 급속도 이동해 가면서 가정이라는 보금자리에서 노후의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가정도 찾아보기 힘들어져가고 있다.

노후의 여생을 지탱해주는 요양시설이 일장일단이 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하고 좋은 시설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일찍이 어머님께서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시고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생계를 꾸려가야 할 가정형편 때문에 어머니를 편히 모시지 못했다. 지금 같아서요 요양원에서 주간보호라도 시켜드리면서 일을 했으려면,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지 못한 죄책감이 인권지킴이 요양원에 발을 디딜 때면 생각이 내 머리를 괴롭힌다.

사람들이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찾아가는 곳이 병원이라고 한다면, 자기 심신을 자율적으로 가누기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요양원일 것이다. 병원이나 요양원을 찾는다는 것은 권리 의무도 아니다. 하지만, 병원을 찾는 것은 우선 내 몸속에 들어있는 병을 퇴치해야하기 때문에 일단 조건을 따지지 않고

도 입원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요양원 입소는 명백한 절차의 조건이 부합될 때 입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양원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재택 요양을 할 수 있는 형편임에도 자식들이 억지로 입소시킨 바람에, 가족의 품을 떠나기 싫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입소해있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무의탁자나 사회적 약자는 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어도 입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나이 먹을 만큼 먹었지만 아직 건강한 몸으로 자원봉사자 일원이 되어, 요양시설에 발을 딛고 활동을 해움이 더 없이 즐거운 생활의 일편이 아닐 수 없었다.

요양원을 드나들 때면 시설종사자들은 천사의 성품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며 드나들었다.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는 시설 이용자로 이곳을 찾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생각도 해보았다. 그럴 때면 바로 이 자원봉사 활동이 남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도 이용하게 될 곳에 안전장치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는 생각을 하고 내 판에는 열심히 활동에 참여를 했었다.

하지만 2019년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지킴이단의 자원봉사 활동은 시설내부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면을 살펴보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 그런대로 활동다운 봉사활동을 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진정함’이라는 단 하나의 명제를 가지고 설치 유무와 운영 관리에 대한 제한된 폭 좁은 활동이었다.

첫째로, 시설에 입소한 요양인들의 인권지킴이라는 책무를 띠고 봉사활동을 나가, 요양인들과는 말 한 마디도 나눌 수 없이 진정함만 쳐다보고 사진이나 한 장 촬영하고 돌아온 것이 전부이고 보니, 활동 폭이 너무 좁아 봉사활동이 미흡한 감이 들었다.

둘째로, 우리 지킴이단을 시설운영자 측에서 보는 눈초리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들이 마치 자기네들의 운영 면을 간섭이나 하러온 것처럼 받아들인 감이 있었다. 그리고 한 곳에서만 시설장이 방문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 여타 시설장들은 약속이나 한 듯 한결 같이 자리를 기피하고 없었다.

셋째로, 좀더 많은 시설을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 시내 요양시설이 무려 634개소가 된다니, 우리가 찾아가 본 것은 빙산에 일각이었다. 그렇게 수많은 시설을 나두고 국한 된 몇 군대만을 살펴보고 이렇게 저렇다고 거론한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끝으로 이러한 봉사활동을 지속하려 한다면 모든 시설에 방문을 통보는 하되, 몇 군대만 방문 모니터링을 할 게 아니라 좀 많은 시설을 무작위로 방문하여 여러 분야를 폭넓게 살펴봄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킴이활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활동을 마치며



김금자 |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들뜬에 풍요로움이 가득한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 지킴이단 활동은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며, 염미봉 강사님의 강의는 성희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양원을 방문하다 보면 ‘진정함’ 비치에 대한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은 곳이 있으며, 공문을 접수한 곳에서도 설치를 미루고 있다가 인 권지킴단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설치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진정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미 지정 장소에 형식적으로 설치한 요양원에 대해서는 설치와 시행 방법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향후 잘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천동의 ‘세실리아 요양원’은 다른 곳의 모범이 될 정도로 취지에 맞춰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진정함 비치 및 운영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 기관에 공문 발송 작업을 하는 경우 연로한 나이에 늦도록 작업을 하다보니 피로감과 배고픔이 엄습합니다. 간식 정도는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지킴이단의 이야기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기 노인지킴이단 선생님, 송병관 선생님, 코디 선생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작은 보람을 느끼며...

| 이명신

개요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삶에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음은 정말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관 방문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전국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많은 것은 좋은 현상이라 생각 하지만 시설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요양원이 있고, 또한 관리, 감독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도 있어 정부에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장의 요양원운영미숙과 편법 등으로 국가 예산 낭비를 좀먹고 있는 실정이나 감독을 소홀히 하여 시설장만 배불리는 기현상이 발생함으로 보다 더 감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노인들에대한 건강과 복지에 관련한 정부의 법이나 제도가 아직은 미흡함으로 연구기관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여 내실 있게 누구나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해서는 요양보호사, 복지사, 영양사, 실습생등의 권리와 의무가 확실치 않아 시설에서 새로운 사건이 터지면 누구나 책임을 회피

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어 보다 더 확실한 법률과 시행령이 필요합니다. 시설에서는 노인인권에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많이 시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인권을 확실하게 지켜드려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하고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노인들에 대한 건강을 매일매일 체크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시설에서 생활 하고 있는 노인의특성과 성향을 잘 분석하여 인권침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수시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시설에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친절하고 명랑하며 노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① 밤에도 적당한 조명을 유지시켜 환자들의 갑작스런 아픔에 대처한다.
- ② 환자의 수준에 맞는 그릇닦기, 걸레빨기, 옷접기 등의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고취시킨다
- ③ 매일 20~30분 평지걷기 할 때 안전하고 편한 복장에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착용하도록 한다
- ④ 미끄러운 슬리퍼보다는 운동화를 착용하고,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 ⑤ 환자가 설령 잘못된 주장을 하여도 주의를 주거나 무섭게 해서는 안되고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얘기하고 맞서 싸우거나 고치려 하지 않는다.
- ⑥ 음식은 적당히 섭취하도록 하고 환자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 둔다.
- ⑦ 환자가 대소변을 잘 못해도 나무라지 않고 잘 닦아준다.
- ⑧ 자극적인 TV화면은 가급적으로 피해서 조절하여 보여 드린다.



인권지킴이 활동

| 안익현

세상살이가 천차만별이고 삶에 과정이 다양하다. 개중에는 남을 부리며 관리하고 살아야하고 개중에 그 지시를 따라 소속멤버로서 충실해야 할 상황도 있다. 그 중에서 자기 인권을 지키고 남의 인권을 돌보아주고 사회를 정화해야 함은 어찌면 당연한 것 같은데 현실에 부닥쳐보면 자기 마음도 그 현실 속에 따라 젖어진 마음으로 무감각 되어 짐이 현실이다.

금년 지킴이 활동으로 노인수용시설을 방문하여 인권함 비치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인권함 비치 모델로 정규 규격함이 제작 되었는가? 적절한 장소(예, 눈에 잘 띄는 한적한 곳)에 비치 되었는가? 편지를 쓸 종지와 봉투와 볼펜이 제자리에 쓸 수 있도록 되어있는가? 그리고 인권함이 무엇 하는 물건이라는 내용설명서가 부착되어있는가? 꼭 중요한 것은 노인시설 종사자나 수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인권함을 사용하라는 안내나 교육이 되어있는가? 등을(확인하고)모니터링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제차 안내 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찾아간 곳은 M동안 종합요양시설로 오밀조밀한 작은 방들로 원래 병원하든 곳을 적당히 개조하여 요양시설을 차렸다고 한다. 그곳 시설 자체가 요양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보였으며 그곳 관리책임자가 경기도에도 시설을 운영하므로 그곳에 가 있으면 이곳은 말단 직원들만으로 조직체계가 당장 필요한 일만 하는 모양이다.

인권함은 딴 나라 이야기고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다. 또한 그 말을 물어 볼 책임자는 부재다. 입소되어 있는 보호받을 대상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도 그 책임자가 관심 없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물어보는 자체를 귀찮아한다. 그래도 우리 인권은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겠기에 몇 분씩 모아 놓고 삶에 기본 권리임을 설명해주었다.

반대로 E동산 노인종합시설은 규모가 큰 광주에서 1세대 요양시설로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정양이라는 분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38세 처녀다. 이곳에서 16년을 근무하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였다. 소신이 뚜렷하고 업무가 신선했다. 방문객에게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듯한 신선했음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인권함은 물론 규모, 모양, 설명서, 준비물비치, 기록 일지까지 완벽하게 구성원에 대한 교육도 잘 이루어졌고 일지에 기록되어 있었다.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곳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역시 행복하겠구나! 더불어 거쳐하고 계시는 클라이언트들을 만나 봐도 깨끗하고 맑아보였다.

그런데 제 주변에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어느 시설이 좋아서 우리 부모를 좋은 곳을 찾아 모셨다는 말보다는 어느 시설이 돈이 싸서(수용비가 적어) 그

곳에 모셨다고 자랑 삼아 선전함을 들었다. 그때는 무심코 몰랐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 M요양원은 지저분하고 우울하고 E요양원은 깨끗하고 명랑하니 돈이 잣대가 아닌 삶의 생존권이 아니겠는가?

아주 영세한 생활가정요양원 방문 소감이다. 이곳은 장기요양보험법으로 양성화되기 전에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다 2010년에 등록한 가정에서 9명 이내로 노인을 요양하는 기관이다. 건물자체가 무허가 건물 같은 브로커 벽에 스투드 지붕으로 드나드는 출입구 역시 비좁아 돌고 돌아 들어갔다. 선풍기가 없어도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것 같았고 할머니 옷차림도 몸배 차림의 옷으로 색이 우중충한 활기 없는 노인의 군상이었다.

가정 요양원이어서인지 아버지가 설립자이나 아들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노인요양 시설규정 같은 것 자체를 무식하게 모르고 있었다. 막무가내라는 말이 맞을까? 참으로 우리 노인복지 현실은 잘 보여주는 대표 현상이다. 뒤돌아서서 나오려니 머리를 멩하게 울려주고 있었다.

인권함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돈을 아주 적게 들려고 플라스틱으로 새 집만큼 하게 적당히 못질하여 만들어 덜렁덜렁하게 달랑 그것만 걸어 놓았다. 한마디로 그런 것이 뭐 필요한가하는 반문 같은 웅변이었다. 그래도 귀찮게

찾아온다고 하니 걸어 놓았을 뿐이다.

결론은 우리 주변에 인권이 무엇인가? 왜 인권이 지켜져야 하는가? 귀찮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았다. E요양원처럼 사회의 귀범이 되는 곳도 있어 앞으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다시가고 싶은 요양원을 염원하면서

■ 임안식

본인은 2009년~2011년, 3년동안 노인인권 지킴이단으로서 노인의 인권과 요양원 실태파악에 얼마나 알고 있으며, 내 자신이 봉사정신으로 지금까지 해왔나를 생각하며 나의 행동에 반성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요즈음 너무나 요양원이 남발되어 국민의 눈은 그리 좋게 보지 않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하고 찾아가면 책임자 되신 분은 자리에 없고 제3자가 우리의 질문에 자세한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한 실태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2011년도 역점사업은 진정함 설치, 편지지, 볼펜등 정위치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가를 조사했으나 부진한 사항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해 봅니다.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건의 사항이 본인 의사대로 실천에 옮겨져 우리 사무소까지 전달될지 의문이 납니다.

가족의 한사람이나 친척들이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방문하여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남은 여생을 즐겁고 건강하게 주위사람과 협조하여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취미생활로 음악, 요가, 장기바둑, 독서, TV등 다양하게 놀이 시간이 규칙

적인 운영의 묘미로 내가 여기요양원에 오는 것이 참 잘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현실에 만족함을 느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어가고 살아가는 동안에 신체적으로 병마와 싸우고 고통을 이겨내어 살아가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은 소외감과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도 보았습니다.

요양원 운영자에게 권고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내 부모님을 모시듯, 희생 정신으로 보살피 다시 찾아가고 싶은 요양원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봉사합시다



활동소감문

김장곤

2010년 11월 정년퇴직을 2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영상 제작(촬영, 편집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었다. 평소에 해보고 싶은 관심 분야 이어서인지 제법 열심을 내었다고 생각되어 진다. 같이 교육을 받는 많은 은퇴자들의 모습을 통해 노년의 이상적인 삶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며 인권, 자원 봉사, 나눔, 사회적 책임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11년 미디어 봉사단-S에 가입하여 조금씩 자원 봉사 활동의 폭을 넓혀가는 중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시각으로 노인 문제를 점검해 보고 인권 및 요양시설 현황(진정함운용)을 모니터링 하는 노인 인권 지킴이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좋은 정책이라 생각되어 홍보단의 일원으로 지원, 참여하게 되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처음하는 홍보 활동이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이었지만 훌륭하신 3기 노인 인권 지킴이분들과 국가 인권위 광주 사무소 직원분들의 배려 속에 안정을 찾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린다.

충주 워크숍과 진정함 교육, 인권 교육, 요양시설 현황 등을 통해 인권 및 노인 요양 시설등의 개략적인 파악을 마치고 시설 방문을 통한 실질적인 진정함 점검에 나서게 되었는데, 00요양원 00성노원등 사전에 섭외되어 방문

하는 시설은 대체적으로 환경도 좋은 편이었고 종사자들의 사명감도 돋보였지만 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표정은 일부이긴 하지만 그리 밝은 편만은 아니었다고 생각되어졌다.

그래도 전체적인 느낌은 긍정적으로 좋아 보였고 희망적인 발전의 과정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진정함 모니터링을 통해 볼 때 설치 여부만을 주로 체크하고 실제적인 사용 실태는 볼 수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노인 인권 지킴이단의 활동 한계성으로 인해 시설 이용 어르신과의 대화 제한이라든지, 시설 직원의 설명만을 들어야 하는점, 시간의 제약, 초상권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장의 모습등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 게재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카페에 국가인권위원회와 노인 인권 지킴이단들의 활동 모습을 올림으로써 관심있는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었던 점은 작은 보람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무작위로 섭외 없이 불시 방문하여 점검하여도 같은 결과일까 하는 강한 의구심도 들지만 모든 시설들이 방문한 곳처럼 좋은 환경과 원만한 서비스가 있기를 희망해 본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부단한 노력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노인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모두가 지나가야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경제적으로나 건강, 질병 면에서 약자일수밖에 없는 노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짐으로 생각하고 냉대하는 풍토는 없어져야하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인간답고 행복하게 사는 더불어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시설을 방문하면서 진정함 점검과 아울러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를 보기 위해 노력해 보았다. 그리 밝지 않은 무표정한 모습은? 질병, 소외감, 무력감 등에서일까? 안전의 면에서나 시설을 관리하는 문제에서 애로 사항도 있겠지만,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관리로 인한 속박감, 불안감등 심리적인 문제로 기인함도 크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중한 질병이나 치매 정신병 등으로 인한 활동 제한은 어쩔수야 없겠지만, 활동이 가능한 분들은 각기 개성과 취향대로 획일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맞춤형으로, 능동적으로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다

고 느껴봄은 아직은 시기상조일까...

끝으로 시설기관이나 이용자 ,보호자 모두가 애로사항이나 어려움 등을 서로 진실된 대화를 통해서 논의해가며 모두가 만족되는 시스템을 만들기를 바라며, 그래서 시설 입소에 대한 일부의 편견(불효라는 개념)도 사라지고 ,양질의 서비스가 모든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사회, 인권의 차원에서 당사자 위주의 맞춤형 복지가 시행되는 사회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보며 두서없는 글을 마친다.



아직도 자식을 위해... 나는 뒷전?

송현기

따르릉...

저~ 광주 인권사무소 송병관입니다.

예,안녕하셨습니다까?

다름 아니라, 저의 사무소에서 제3기 노인 인권 지킴이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홍보단을 처음으로 선발하는데요...관심가져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작년에 인권 영상교육을 수료 한 후 관심 밖에 일하던 인권위원회 활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한 교회를 다니는 김장곤 집사께 전화를 걸어 함께 활동 하여 보자고 제안을 하였고 동의를 얻었다.

우리는 홍보단으로 지원을 하였고 5월 27일 11시 제3기 노인인권지킴이 발대식을(지킴이단 18명, 홍보단 2명, 총 20명) 하였다. 곧바로 5.30~5.31, 이틀간의 전체 워크숍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는 접하여 보지도 못한 다양한 인권지킴이 활동을 알게 되었다.

2011년의 주요 활동 내용은 광주, 전남, 전북 등의 노인 주거복지·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진정함 설치 실태를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고 우리 홍보단은 지킴이단의 활동을 홍보하는 것이다.

김장곤 지킴이와 나는 발대식 장면을 촬영하여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카페에 올리고, 충주 소재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실시한 전체 워크숍도 촬영을 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우리의 영상홍보를 보시는 지킴이단체에서 대체로 만족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7월12일에는 빚고을 팀에서 성 요셉 요양원을 모니터링 하러 가는데 첫 동행 촬영을 하게 되었다. 원장 수녀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눈 뒤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촬영 할 것을 약속하고 촬영을 하였다.

시설 여기저기를 촬영하면서 요양 중인 노인들의 눈치를 살폈다. 한 가족처럼 보이는 요양자(할머니)와 면회자(아들과 손자 그리고 며느리 인 것 같았음)를 만나게 되었는데... 조심스레이 자주 오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주 들리는 편이고 또 요양원에서 연락이 오면 곧바로 들려 본다고 하였다. 그러나 촬영은 하지 못하였다. 카메라를 기피하고 촬영하는 것을 거부했다.

또한 할머니에게 여기 생활에 만족하시느냐는 질문도 던져 보지 못하였다. 불편하더라도 자식들 앞에서는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보아 절대로 불편한 것이 없다고 하실 노인들이다.

조금은 넓은 공간이 보이는데... 여러 분들이 모여 담소를 하고 있는데 유독 한 할머니만이 창밖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무척이나 외로운 모습이 풍겨졌다. 가만히 다가가 뒷모습을 촬영하면서 나도 저 분처럼 될 것인데 하는 생각이들었다. 아, 노인 인권이 바로 나의 미래이구나...

항상 늙지도 않고 평생 젊게 살면 좋으련만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줄곧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삶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여기저기 시설을 둘러보았는데, 참 잘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정도 시설이면 나도 여기에서 인생의 말년을 보내도 좋을 듯싶었다. 진정함이 잘 설치되었는지 만을 확인하고 나오면서 요양 중인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갖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쉬웠다. 방문 전에 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청결 상태나 요양자들의 요양하는 모습, 그리고 시설물과 식당 등의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꾸밈을 것도 같은데...

다음에는 그냥 연락을 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요양자 3~5명 정도는 면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여러곳의 촬영 자료를 모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다음 교육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킴이단 모든 분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를 맡아 수고하신 김희경 코디와 송병관 조사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광주지역 활동평가

▶ 광주 노인인권지킴이단은 노인복지시설(주거 시설 + 의료 시설) 내 진정함 설치 여부를 모니터링 하였다.

- 점검대상 : 481개소 - 완료 : 144개소 점검율 : 29.93%

▶ 각 팀당 평균 5곳의 복지시설을 방문 하였으며, 금남로4가 역과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등에서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 서면과 현장모니터링 병행을 통한 활동은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현장위주의 활동이 부족하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현장 모니터링 활동은 시설에서의 방문에 대한 부담감 작용으로 섭외에 애로가 많았고, 서면점검의 경우에도 일부 시설에서는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아예 자료를 보내주지 않은 시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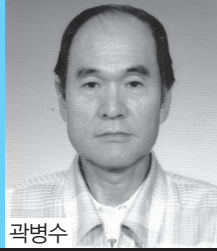
▶ 진정함 점검 후 노인시설에서 진정건수가 증가하지는 않았다. 시설 이용자가 종종으로 거동이 어렵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노인 당사자의 진정서 작성 등은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시설종사자나 보호자, 병문안을 오는 친인척들에게 진정함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모니터링 참여 여부와 별도로 시설별로 시설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문의나, 진정함을 비치하겠다는 시설들의 전화가 있었다. 노인시설의 증가 추세와 발맞춰 해당 기관에 대한 인권 교육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시설 내 진정함 설치 및 점검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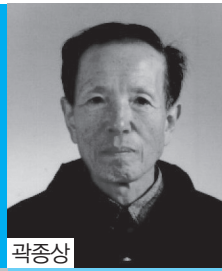
▶ 지킴이단 끼리의 보다 친밀한 관계형성을 위한 계기가 부족하고, 지킴이단의 활동과 행정지원 사이의 소통이 미흡해 활동초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1, 2기 활동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지킴이의 경우 팀 내에서 소외되는 분위기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강석규



곽병수



곽종상



김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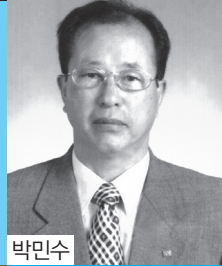
김동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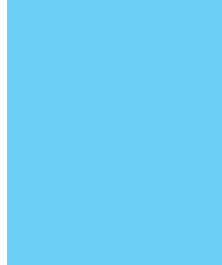
김성통

대구지역

노인인권지킴이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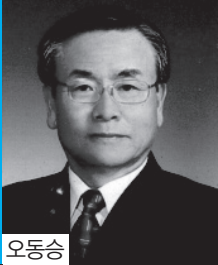
박민수



박진동



여경해



오동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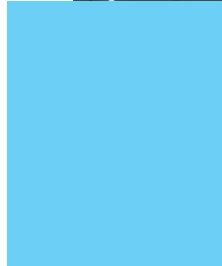
이희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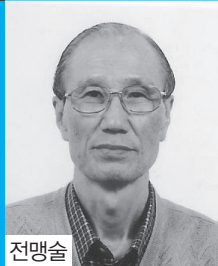
임영태



임효준



장성수



전맹술



최길자

대구지역 활동일지

<1조>

- 06.17 대구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센터 복지사 면담
- 07.01 달서구청 주민복지과 담당자 면담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원스톱 지원센터 관리자 면담
- 07.08 수성구청 복지과 담당자 면담
- 07.15 독거노인세대 방문
- 07.22 독거노인세대 방문
- 07.29 독거노인세대방문
- 08.19 조별모임
- 09.09 중구노인상담소 노인상담 활동
- 09.16 중구노인상담소 노인상담 활동
- 09.23 중구노인상담소 노인상담 활동
- 09.30 중구노인상담소 노인상담 활동

<2조>

- 06.13 2조 조별 모임
- 06.20 어르신마을 독거노인 담당 팀장 면담
- 06.27 어르신마을 및 주변 독거노인 가정방문
- 07.04 중구청 주민복지과 담당자 면담
- 07.16 독거노인 세대 방문
- 07.18 독거노인 세대 방문
센터 자원봉사자 대상 인권강의
- 07.25 독거노인 세대 방문
- 08.01 조별 모임
- 08.26 어르신마을 후원행사 참석
남구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 인권교육
- 08.29 독거노인 세대 방문
- 09.19 독거노인 세대 방문
- 09.26 독거노인 세대 방문
- 10.10 독거노인 세대 방문
- 10.17 독거노인 세대 방문
- 10.24 독거노인 세대 방문

<3조>

- 06.17 대덕노인복지관 복지사 면담
- 06.24 대덕노인복지관 복지사, 노인돌보미 면담
- 07.01 대덕노인복지관 노인돌보미 (12명) 간담회
- 07.08 남구청 복지지원과 담당자 면담
- 07.15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 면담
- 07.22 독거노인 세대 방문
- 07.29 독거노인 세대 방문, 돌보미 면담
- 08.19 조별모임
- 09.02 달서구 상인3동 주민센터 담당자 면담
- 09.09 중구노인상담소 노인상담 활동
- 09.16 중구노인상담소 노인상담 활동
- 09.23 중구노인상담소 노인상담 활동
- 09.30 중구노인상담소 노인상담 활동



적극적인 대상자 선정

임영태

작년도엔 전국 공동과제로 요양원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요양원 운영 및 관리와 요양사에 대한 실태조사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 개선 등 많은 건의 사항을 관련부서에서 수용하였다는 결과에 대하여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부와 긍지를 가지는 바입니다.

올해엔 대구팀에서는 독거노인서비스에 대한 과제가 채택되어 이 과제를 3개 조로 나누어 활동을 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구청, 동사무소), 종합복지관과 독거인의 집을 방문하여 독거노인과 돌보미를 어떻게 관리하고 돌보며 운영하고 있는지와 독거노인을 직접 만나 대담하는 등 독거노인 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모니터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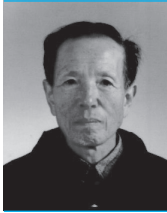
돌보미 1인당 30여명의 독거노인을 담당하여 1일 5명의 대상자를 방문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25명은 전화로 안전확인(안부)정도이며, 방문시 대화와 건강체크 및 잔심부름정도하고있지만 시간은 부족한 형편이다. 돌볼 노인이 가까이 인접해서 사는게 아니라 떨어져 살고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또한 많이 소요되어 많이 불편한 실정이다.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지자체별 차이가 많음을 느꼈다. 물론 똑같을 수는 없지만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제도의 핫점이 아닌가 싶다.

독거노인의 성향 또한 다양하여 돌보미의 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대화를 너무 좋아해서 장시간 붙잡아 다음집 방문에 지장이 있는가 하면, 대화 또는 면담 자체를 싫어해 문을 열어 주지않고 선물이라도 가지고 오면 문을 열어 주는 등으로 돌보미를 황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돌보미의 사기를 돌아주는 방법은 수당을 올려주고 교통비도 주면 좋겠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보미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받아주는 것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대담할 때는 허위·과장되게 진술하지만 돌보미와는 인간적으로 진솔하게 대화를 많이 나누니 꼭 참고가 될 것으로 믿는다.

독거노인 서비스대상자 선정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하여 좀더 많은 노인이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 복지 서비스등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었으면 이번 독거노인 서비스모니터링에 대한 바람이다.



즐거운 노후를 위하여

| **곽종상**

노인들이 혼자 살면서 어떤 불편이 있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억울함은 없는지 살펴봤다. 용케도 임대주택에 입주한 독거노인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설치해 놓고 편리하게 살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구석진 좁은 방에서 감방처럼 불편하게 살고 있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도 엄청나게 큰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지어 독거노인을 집단적으로 살게 하다보니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하여 주민들끼리는 물론, 이웃 주민들과도 불화가 생겨 더는 짓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살아도 문제가 있고, 단독 주택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도 문제가 있으니 어떤 좋은 방법은 없을까? 환경이 좋고, 살기가 편리하게 지어놓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자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자니 너무나 따분한 삶이 된다.

그럼 큰 돈 들이지 않고 모여서 즐겁게 살아가는 멋진 노인마을은 만들 수 없을까? 외롭게 혼자 따로 살면서 밥 지어 먹고, 난방하고. 그러다 어떤 사고나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어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수시로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면서 신경은 쓰고 있지만 그 불편함과 외로움을 덜어줄 수는 없으며,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들도 늘 불안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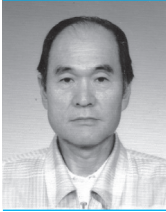
이렇게 불편하고, 불안하게 살기보다는 한 데 모여서 식사는 공동으로 하고, 잠도 가급적이면 여럿이 모여 자면서 적당한 소일거리도 만들고, 때론 간단한 오락도 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된다면 생활비는 훨씬 절감되면서 여럿이 함께 먹으니 밥맛은 좋아질 것이고, 서로 웃고 떠들다 보면 사소한 아픔도 잊고 지낼 수 있을 것인데…

좀 빗나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나의 경험을 소개해 본다. 여든이 가까운 여섯 부부가 동해안 나들이를 했다. 3박 4일을 민박집에서 같이 자며, 밥 짓고 된장 끓여 둘러앉아 먹으면 어느 식당의 음식보다 맛있고, 윗놀이나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도 배가 아프도록 웃었다. 경비는 한 사람당 3만원 안팎이라 십여 차례 다녔다. 이 나들이를 하면서 모두 같이 의논을 했다.

“우리는 누가 혼자가 되더라도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살기로 하자. 그래야 덜 외롭고, 아이들도 걱정을 덜 할 거고, 생활비도 줄일 수 있을 거니까.”

사람은 식성과 취미와 성격이 제각각이라서 그렇게 함께 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아예 생각조차 않는다. 그러나 모여서 살다 보면 좋은 점도 많다. 우선 가장 큰 문제인 외로움을 덜 수 있고 떨어져 사는 자녀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돈이 많이 드는 실버타운과 요양원 그 중간쯤 되는 이런 노인마을을 도시나 농촌에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것을 적극 건의하는 바이다.



기초생활수급의 선정 및 탈락

| **곽병수**

나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지킴이로서, 올해도 늙고, 갖지 못하고, 소외되어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살펴보며 지킨다는 소위 지킴이라는 거창한 일에 작은 한 자락이나마 발을 딛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직접 도와주고 공급해 주는 적극적 도움이 못되고 그냥 살펴보기(모니터링)만 하게 되는 간접적인 역할만 한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작년에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부자유한 몸과 질병에 고생하는 분들과 그분들을 돌보아 주는 돌봄이들과 시설들을 찾아보았으나 올해는 홀로 외롭게 사는 독거노인들의 현황을 살펴보게 되었다.

실은 나 자신도 고령의 노인으로, 또 여러 가지 질환도 함께 갖고 있어 살피러 갈 독거노인들보다, 독거 아닌 것만 빼고는 별로 나은 환경에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직은 그래도 늙고 불우한 그들 노인들의 권리 지킴이로서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관내 모 주민센터에서 관계직원으로부터 현황을 들었다.

거기서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면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11.2%로서 농어촌 지역보다는 월등히 낮고 기타 지역에 비하여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

나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그 증가속도가 가파르다는 말을 들었다.

일차 나에게 지정된 방문대상자 독거노인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77세의 여자 노인이었다. 이분의 이야기는 결혼하여 30대까지 딸 둘을 낳고 살았으나 어떤 사유로 곧 집을 나와 별거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달세방 등에서 혼자 살아 왔고 그 과정에서 신병을 얻어 활동력과 생활능력이 없던 중 2007년 7월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었고, 2010년 7월에는 영구임대 아파트까지 배정받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왔으나 뜻밖에도 2011년 4월, 당국에서 수급자 탈락이라는 엄청난 처분을 내렸다. 그 이유는 이분의 소생 딸 둘 중에서 부양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분 1명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직계혈족 중 누구든지 부양능력이 증명되면 기초생활 수급이 탈락될 수밖에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 때문이다. 수급권이 탈락되자 노인의 생활은 급전직하로 어려워지고 당장 생활이 막연하다고 호소한다. 자신의 소생에 딸이 둘이 있으나 하나는 행방도 알 수 없고 하나는 부산 어디에 산다고 가끔 전화가 오지만 부양해 준다는 기대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분에게 기초생활 수급 탈락은 생명 줄을 끊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라고 하면서 명색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 나라가 불쌍한 노인의 생명 줄을 끊는 처사는 있을 수 없다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었다. 아픈 몸 때문에 생

활을 위하여 노동도 할 수 없는 처지이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연하다고 호소하였다. 이의 신청을 해 보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다. 이런 급박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지만 지킴이로서는 성실히 듣고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 이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한계를 느꼈다. 다만 부산에 거주한다는 딸이 실제로 부양능력이 있다면 법적인 부양청구가 될 수 있다는 정도를 귀띔해 주었으나 그런 방법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눈치였다. ‘민법에 규정한 직계 혈족간의 서로의 부양의무’는 임의 규정이 아니고 강행규범으로서 부양의무자로 된 혈족이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부양이 요구되는 혈족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법에 호소하여 부양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고 따라서 국가의 복지혜택조차 제외되는 너무나 딱한 처지에 있다.

다음은 또 한 분의 사례를 보자. 77세의 여자 독거노인이다. 54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남매를 키우고 교육시키면서 바느질 등 잡일을 하면서 살았다. 현재 자녀 남매 중 50세 된 아들은 4급 장애인으로 활동이나 생활능력이 없고 서울에 있는 딸은 남편의 사업실패로 역시 부양능력이 없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다. 또 영구임대 아파트까지 배당받아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하고 정부의 복지 혜택에 아무런 불만이 없고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된 것이 무엇보다 만족하다며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그 뿐 아니다. 지자체 및 민간 자원봉사단체등에서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활과 신병치료에도 도움을 주게 되니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

위의 두 가지 예에서, 한 분은 수급자 탈락으로 암울하고 궁핍한 생활에 빠지는 반면 한 분은 나름대로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서 나는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였다. 즉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공정한 지정이야 말로 복지중의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일단 지정된 수급자를 재심사하여 탈락시킬 때는 특히 신중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수급권자로 수급을 받아오다가 하루아침에 수급을 끊는다는 것은 마치 생명 줄을 끊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위의 예처럼 법적인 부양 의무자를 찾아내었다는 것만으로 수급을 당장 탈락시키지 말고 그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부양 의무자에게 알린 후 실제로 부양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본 후가 아니면 수급을 끊으면 안 될 것으로 본다. 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거부하거나 부양의사가 없을 때 또는 불완전하게 이행할 때 제 3자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거부하거나 충분한 부양을 하지 않을 때에 대비하여 복지기관 또는 제3자가 해당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법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참된 복지정책과 '홀로 어르신' 돌보미의 지름길은

| 오동승

‘우리는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에게 다가가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한편, 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하겠습니다’고 다짐하며 노인인권지킴이단 교육을 받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니 진짜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

대구노인인권지킴이단의 2011년 활동 주제는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과 모니터링을 목표로 세웠다. 독거노인에 대한 개념과 지역현황 그리고 추진 체계의 구청과 지원서비스를 관할하는 종합노인복지관에서 실무자와 면담하고 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 노인돌보미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을 들은 후 동행하여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하고 생활상을 확인할 기회가 마련되었다.

독거노인의 생활상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보다 더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듯이 영구임대 주택의 작은 평수 공간에서 어렵게 살아가며 사회에서 소외감을 갖은 노인들이라 충분하지는 않지만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면서도 계속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복지정책이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일들을 구체적인 사례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올해 80세인 박씨 할

머니는 영구임대아파트 15평의 넓은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고 한편으로 월 15만원의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생활비가 부담이 되어 거주지 동사무소와 분양받은 한국주택공사에 몇 번이고 작은 평수로 교체도 록 직접 또는 돌보미를 통하여 진정을 여러 번 하였으나 어렵다는 회답뿐 관계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이씨 할아버지는 올해 75세로서 4~5평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잦은 질병도 없이 건강한 상태로 봉사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무료 급식혜택은 기피하면서 오직 작년보다 연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한 불만 들을 토로하고 있어 복지관과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면 생활에 도움이 되고 마음의 안전도 회복될 것 같아 권유도 하였으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사례는 대구시에서 마련해 주는 영구임대 원룸형태에 거주하는 올해 76세 김씨 할머니는 노인성 질병인 고혈압, 당뇨병, 무릎 관절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심한 우울증까지 겪하고 있었으며 자살하겠다는 충격으로 돌보미가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남편이 사망한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6.25 참전용사로서 무공훈장을 받고 훈장수여 연금대상자인 것을 확인하고 보훈청에 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이미 남편이 부인 몰래 계속 연금을 받았다고

통보하여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김씨 할머니는 사후에 국립현충원에 같이 안장될 수 있는 것도 거절하였다고 한다.

우리 팀과 동행했던 노인 돌보미는 40대 후반 연령의 여자들로서 한사람의 돌보미가 독거노인을 평균 30여명을 돌보며 하루에 6명의 독거노인을 방문한다고 하나 독거노인의 말에 의하면 1주일에 한번내지 두번 정도 방문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전화만 하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한다.

독거노인 돌보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 중에서 지자체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독거노인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사업 수행 기관에 배정하고 사업기관은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노인 돌보미를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파견하여 독거노인을 도우고 있으나 이 또한 문제점이 많고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을 열거하여 보았듯이 참된 복지정책의 독거노인 돌보미 제도의 지름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 일방통행 방식으로 수혜자의 의견과는 무관한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본인 스스로 홀몸 어르신이 되어 생활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자질 능력도 배양하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해야겠다. 아주 중요한 사항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돌보미 시스템을 확장하기보다 한분의 독거노인이라도 친화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서둘러 보완 조치가 우선되어야겠다. 이 기회에 ‘독거노인’이라는 한문식 호칭보다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걸 맞는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홀몸 어르신’이라는 우리말 사용으로 변경하였으면 하고 제안도 해 본다.

끝으로 일생을 같이 살아온 부부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외로울 때에 찾아주고 위로하여 주는 ‘홀로 어르신’들의 아픈 속마음을 진심으로 돌보아 줄때 ‘홀로 어르신’들은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 돌보미와 상의하고 친구가 되어 우울증도 해소되며 명랑하고 즐거운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활동을 마치며

| 임효준

신록의 계절 5월, 끝자락에 인권위 대구 사무소에서 발대식을 시작으로 출발했던 우리들의 활동이 황금들판을 이루며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들의 활동도 계절과 더불어 한 해의 결산을 할 시기인 것 같다.

올해의 활동목표는 독거노인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2개 구청(수성구, 달서구)에서 관계자들의 현황설명을 미리 듣고 돌보미들의 도움을 받아 활동을 한 달간 했었다. 달서구청의 상인지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상대로 우리 1조에서도 3개 팀으로 나누어 2명 1조가 되어 활동을 했다.

우리 팀이 만났던 독거노인들은 대부분 솔직하고 같은 연령대라서 그런지 말씀들도 잘 하는 편이었다. 독거노인을 상대하면서 느꼈던 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기할 만한 것은 동회에서 독거노인의 가족관계를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얻은 자료로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을 시키고, 차 상위 계급에서도 탈락을 시키는 예가 많아 이에 불만을 가진 분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한 과격한분은 달서구청 옥상에서 혈서를 쓰고 자살을 해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의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분이 있었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까지 표현을 했을까하는 생각을 해 봤다.

그런가하면 또 다른 지역(성서 신당)에서는 87세의 할머니가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가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이 된다는 동 직원의 말이 떨어지자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들려 앞이 캄캄했는데, 동직원이 더 세밀하게 조사(전화조회, 통장 조회 등)해서 다시 복원을 시켜준 예를 듣게 되면서 일선 행정 공무원들이 독거노인에 관한 조사를 일벌백계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나, 가까운 친척의 일로 생각해서 성의를 가지고 임한다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본다. 물론 몇몇 분은 자식과의 연락이나 자식들로 부터의 지원받는 경제적인 물증도 허위로 얘기를 해서 조회를 해서 드러나는 일도 있었기에, 어렵게 살지만 좀 더 솔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노년이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첨가해서 말한다면 가족관계가 있음을 동회에서 확인했다면 가족과 연계를 시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독거노인에 대한 혜택을 조정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주고 등급조정이나 탈락만 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이건 또 전연 다른 얘기인데, 활동 중에 80세 된 할머니 한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돌보미의 말로 차 상위 계급에서 탈락이 났다기에 억울하니까 경로를 알아서 재신청을 하라니까 80까지 살았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냥 형편대로 절약해서 살아간다는 천사 같은 분도 만났다. 다른 분들과는 매우 대조적인 분이였다. 노령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좀 더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여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독거노인 서비스 관련 지킴이단 활동을 마치며

| 장성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고령자 인구는 535만명으로 총 인구 4887만명의 11.1%를 차지했고, 65세이상 노인가구의 비중은 2000년 11.9%(173만 가구), 2005년 15.2%(243만 가구), 2010년 17.4%(298만 가구)이며, 그 중 독거노인의 가구는 2000년 3.7%(54만 가구), 2005년 4.9%(77만 가구), 2010년 6.0%(102만 가구)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독거노인가구는 총가구 1715만 가구에서 6.0%, 노인가구 298만 가구에서 34.2%를 차지하며 100만 가구(102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독거노인 문제는 복지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노인인권지킴이단의 “독거노인 서비스 실태 파악”을 위한 활동은 매우 시의적절한 선택이었고 이러한 활동자료의 축적이 고령화 사회에서 독거노인의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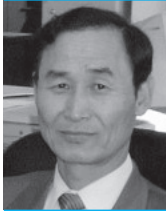
독거노인 방문활동 결과를 요약하면, 3개 기관(대한노인종합복지회관, 달서구청 주민복지과, 수성구청 복지과) 담당자를 면담하여 독거노인 서비스 현황 및 체계를 파악하였고 6명의 독거노인(남4, 여2)을 방문하였다.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인적사항, 가족관계, 거주형태, 소득, 건강, 인권문제, 기타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연령대는 70~80대이며, 가족관계는 대부분 배우자와는

사별했고, 자녀들이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실질적 도움이 못되는 사유는 자녀들과 오랜기간 헤어져서 연락두절된 경우도 있으나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며,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자녀와 연락두절로 이야기하는 듯 하였다.

거주형태는 임대아파트거주(4), 단독주택방2개 전세(1), 원룸월세(1) 등으로 주거환경은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다. 소득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비+노령연금(약40여만원)2명, 노령연금 및 기타(약20-30여만원) 4명으로 주거에 필요한 비용에도 부족할 정도로 기초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였다. 건강상태는 대부분(5)1~3가지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치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인권문제는 학대등 직접적인 침해는 없었으나 건강, 소득, 의료 등 기본생활권 보장에는 미흡한 편이었다.

기타 독거노인들의 요구사항으로는 기초생활비 수급대상에서 탈락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계속 기초생활 수급비 혜택을 요구하며 수급비 탈락시 자살 등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노인(1), 치료비 수혜를 위해 차상위급 등 희망(3), 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탈락했다가 복지담당자의 통화내역 조회, 예금 조회를 확인하여 자녀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초생활비 수급자로 유지(1), 기타(1) 등 수급권 확대요청이었다.

이상으로 독거노인 서비스 실태 파악을 위한 활동결과를 마치며 독거노인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도 감안하여 불법 수혜자 근절도 필요하며 독거노인 스스로의 자립의지, 복지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도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헌신적인 자세도 필요하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를 축적하여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갈길이 먼 노인복지

| 김종용

올해는 친구와 같이 노인인권지킴이단에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한지 2년차다. 금년에는 열심히 활동하여 조그마한 성과라도 남기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시작했는데 벌써 한해 활동의 마무리라니 한 해 동안 내가 노인인권 신장에 얼마나 기여하였을까 되돌아보게 한다.

우리들 3조는 독거노인 모니터링을 위해 남구청과 대덕노인복지관,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였으며 복지담당공무원, 복지사, 노인 돌보미들과 만나고 독거노인 집을 방문하여 노인들과 대화도 나누며 하소연도 들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다고 자부한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마음에 남아있는 몇 가지를 적어본다

달서구 상인동 임대아파트의 독거노인 집을 방문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노령연금과 정부의 보조금으로 아파트 관리비와 임대료를 내고 생활이 근근히 된다고 하는데 집안에는 세탁기, 에어컨, TV, 냉장고 등 어지간한 전자제품은 다 갖추어놓았고 주택도 아파트라 깨끗하고 쾌적하게 살고 있었다.

반면 남구 대명동에 독거노인 집을 방문했는데 단독주택 뒤쪽에 가추를 달아 부엌을 만들고 그 부엌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있는 좁고 습기찬

방에 세 들어 살고 있는 노인인은 몸도 불편하여 거동도 어려우며 밥할 때 밥통에서 나오는 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아 불편하다며 하소연하였다.

그 노인과의 대화 중에 부양가족(딸과 사위)이 있어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탈락되었으며 자식들로부터는 부양을 받지 못하며 노령연금 등으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틴다고 하였다.

객관적으로 봐서 차상위자가 훨씬 못한 환경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양 의무자에게서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부양 의무자에게 제 삼자가 부양의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부양의무를 지게 하는 등 무슨 대책이 있어야겠다고 생각되었다.

남구청에 갔을 때 담당자가 복지예산은 외형상은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대부분이 노인들의 노령연금으로 나가고 생활에 어려운 노인들에게 생계비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의 70% 정도가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한다. 노령연금을 안 받아도 지장이 없는 노인들의 노령연금을 줄여서 정말 도와줘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은 혼자 살다가 고독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 한다. 지역의 독거노인은 돌보미들이 일주일 단위로 방문하고 전화통화 등으로 유대관계도 잘 구축되어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제도를 좀더 확대시행 하여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앞으로는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을 위한 복지예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복지정책이 어디까지 가야할 것인가. 요즘 유럽과 그리스 사태를 보면서 복지정책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란 걸 느끼면서 정부는 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힘자라는 데까지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는 노인복지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노인들에게는 보람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를 재발견하게 하는 홀로 생활 하시는 어르신을 방문 후

여경해 |



배우자 및 친족, 비 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 하지 않는 단독 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어르신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홀로 사시는 노인을 독거노인이라 한다.

이 분들을 만나서 나 자신을 재발견하고 미래의 노후준비에 대한 염려를 갖도록 인권위원회 1조 노인지킴이단 코디로 활동하게 해 주신데 감사로 드리며 또한 달서구 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독거노인을 몇 가정 방문하여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느낌과 소견을 적어 봅니다.

우리나라의 갑작스런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노인의 역할상실과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어 부모 부양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과 스스로 자녀들에게 간섭 받기를 싫어하여 혼자 사시는 경우 대부분이다.

우리 땅은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14.3%)에 진입한 뒤 2026년 초고령사회(20.8%)에 도달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18년 밖에 안 걸리는 셈으로 다른 미국, 독일, 일본보다도 빠르게 확산된다고 하니 재생산의 시너지 효과를 발굴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고령화의 늪으로 경제발전과 국가 발전에 후손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 상황이 도래된다고 봐도 될 것이다.

이 상황으로 볼 때 현재에도 독거노인을 방문해 보면 경제적 빈곤, 질병과 건

장관리, 역할 상실, 고독, 소외, 여가시간의 활용 문제들로 사회적 기반이 엄청나게 필요로 하고 있다.

낮은 생활만족도가 가장 많았으며 열악한 환경, 사회지지망 결여, 낮은 자존감, 우울감, 상대적 박탈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화와 일거리 창출로 생산적인 사고보다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서비스만을 의존하려고 하고 사회에 대한 비판과 불평만을 가지고 있다.

힘든 세대를 거쳐 우리사회의 경제성장을 이루신 분들이 이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감사의 박수가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만 가정방문 후 새삼 상실감과 허탈감으로 마음을 아프게 했다.

독거노인 네트워크(사회안전망)도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대다수 어르신들이 나 하나만을 위한 욕심으로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는데도 정부에서 서비스 하는 것은 무작정 받아야 된다는 이념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정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한 실정이다.

환경을 내 탓으로 감당하기 보다는 남의 탓 사회 탓으로 분노하며 사회가 망하기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생각들로 다음세대의 거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어려서부터 교육과 훈련으로 도덕을 부활시켜 배려와 나눔,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각인 시켜 나 하나가 아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간다운 아름다운 세상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으면 하는 욕심을 부려본다.

행복과 아름다운 세상은 항상 멀리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앞 내 마음속에서 빛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노력하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웃음과 만족을 주기 보다는 나 자신이 먼저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희망의 꽃을 피우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 갈 것인가”를 회고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은 어디에

김성룡

제3기 대구노인인권지킴이에게 주어진 과제는 독거노인들에 대하여 노인의 시각으로 본 인권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행정관청과 복지시설 그리고 독거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불가에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재보도 목숨과는 바꿀 수 없다고 하였는데, 건강한 장수는 축복중의 축복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오늘의 노인들은 전쟁을 겪고 그 무서운 보릿고개를 넘으며 외국의 원조 없이는 못살던 나라를 자원도 없는 나라가 세계 10위권으로 일어서게 만든 일등 공신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는 못 배우고 먹고 입지 못해도 내 자식만은 성공시킨다며 공부를 시켰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 전통적으로 지켜져 오던 대가족제도와 미풍양속은 산업화를 거치며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핵가족화 단독가족이 대세를 이루게 되면서 사전에 아무 준비도 못한 노인들은 홀로 외로이 돌보미의 신세를 져야하는 현실로 바뀌어 버렸다.

구청 설명으로는 노인돌봄기본사업은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스연계,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

해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나 현장 내용은 독거노인들 중 남구 7개동 독거노인 3,100명 중 330명만 선정 관리함에 따른 제외 대상자 관리에 문제점이 상존할 수 있으며, 독거노인 대상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기관 단위로(보건소, 복지기관, 시니어클럽, 장기요양 등)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하위 층에는 중복지원 되고 필요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관련예산은 증가하여도 실제 독거노인들 개인별 복지체감 도는 낮은 상황이며 소외계층으로 갈수록 고독과 인맥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 가고 특히 핵가족화하면서 자녀들이 돌보지 않고 자녀가 있다는 것 때문에 국가의 복지혜택에 제외되는 딱한 노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사회라는 일본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자체마다 도입코자하는 유비쿼터스 신기술은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실종사고가 우려되는 치매환자와 노약자에게 GPS 및 이동통신이 탑재된 단말기를 이용해 노약자의 위치를 보호자가 실시간 조회 가능하여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실종 등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U-안심서비스도입이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거주형태에 있어서는 영세민아파트입주자와 개별로 쪽방생활을 하는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이 너무 차이가 나고 영세민집단촌에 대한 여러 문제점으로 중지된 아파트입주를 방2개인 아파트에 2명씩 입주시키면 서로의지하고 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연락가능하지 않을까? 현장의 여러 문제점을 취합하여 하루 빨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그때가 기다려진다.



노인지킴이단의 독거노인 방문

| 김동락

2011년도 대구 노인지킴이단은 3조로 편성하여 활동하였으며 나는 3조(조장 김성룡 외 7명)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우리 조는 대덕노인복지관(3회) 남구청 복지지원과(1회) 남구종합사회복지관(3회) 달서구 상인3동 주민센터(5회)를 방문하여 업무담당자로부터 독거노인현황 및 서비스운영 실태를 파악하였고, 복지관 소속의 돌보미로부터 독거노인 서비스내용과 방문 시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청취할 수 있었다.

이들의 방문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권혁일 과장으로부터 노인지킴이단의 역할과 활동 시 유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았다.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모니터링 할 때에는
방문대상 독거노인의 신상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문하도록 하고,
독거노인이 호소하는 문제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독거노인의 건강, 여가, 일자리 실태 등을 파악하며,
독거노인관련 서비스 정보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라는 교육을 받고 현장에 임하였다.

1 _ 7.8. 14:00

남구청 복지지원과를 방문하여 업무 담당자로부터 관내 독거노인 현황과 독거노인 관련 서비스 체계를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2 _

대덕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복지업무담당자로부터 관할 독거노인 현황과 지원실태, 돌보미 활동상황을 독거노인 지원카드, 운영일지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3 _ 7.1. 14:00

우리 조원(8명)과 노인 돌보미 봉사원(12명)과 간담회를 갖었다. 특히 간담회를 통하여 돌보미 봉사원의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조그마한 선물을 들고 방문하면 반갑게 맞아주고, 빈손으로 방문 할 때에는 귀찮게 여기며, 심지어 대문이나 방문조차 열어주지 않는다고 슬회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문에 달아 놓은 초인종이 고장이 나서 오랫동안 방치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었으면 하였다.

4 _ 7.29. 15:00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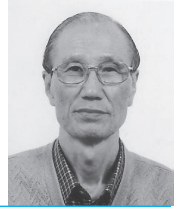
돌보미의 안내에 따라 대명2동 00번지의 독거노인 할머니댁을 방문하였다. 78세의 할머니는 건강한 편이였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셨다. 할머니는 동에서 지원받는 돈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으나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오래된 건물이여서 천정에는 비가 세고 온방(천정과 벽면)이 곰팡이가 덮여 있어 거주 환경이 너무 열악한 상태였다. 당초에는 할머니 소유의 집이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매도할 시 방2칸을 1500만원에 전세로 눌러 앉아 있는 것이 15년되었는데, 자선단체에서 수선을 해 주고 싶어도 주택소유자가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태였다. 이 할머니에게는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다른 장소로 이사하시도록 모니터링하였다.

5 _ 7.29. 14:00경

달서구 상인3동 00아파트를 방문하여 독거노인(75세 할머니)과 모니터링을 하였다. 할머니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나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될까 걱정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23세에 결혼하여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으나 군인이었던 남편이 의치증이 극심하여, 밤마다 욕설과 구타등으로 더 있으면 맞아 죽을 지경이었어 어린 자녀(2-6세)들을 남겨두고 소식을 감추고 홀로 생활하였는데, 20년 전 남편이 재혼함으로 법적 이혼이 되었고, 이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자식들은 어릴 때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어머니와 의절된 상태였다. 그런데 복지와 관련 전국전산망조사에 의하여 자녀가 있음이 밝혀져 2011. 7월부터 동에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 알아 본 결과 가족이 있다는 사유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도 자식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식들로부터 조금도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큰 아들은 진해에서 부인과 별거하며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둘째 아들은 미혼으로 소식이 없으며, 셋째인 딸은 대구에서 셋방살이로 어렵게 생활한다고 하였다. 우리 지킴이 일행은 상인3동 복지담당을 만나서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부탁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독거노인 모니터링 소감



전맹술 |

201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노인인권 지킴이단 에서는 홀로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인권 사각 지대는 없는지 독거노인 가정방문을 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었다. 모니터링을 하기 전에 구청복지과 담당 공무원과 노인복지관 복지사 협조를 얻어 독거노인 돌보미 안내로 가정방문에 이른다.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돌봄 사업의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1)노인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지 않는 자 (2)국가보훈처 기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도우미 가사 간병 서비스 이에 준 하는 재가 서비스 등을 받지 않는 자로 되어 있다.

이러하므로 우리들이 방문 하는 독거노인은 건강이 활동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과 도움을 요구하고 있었다. 때마침 우리가 독거노인을 방문한 시기가 각 지자체에서 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탈락된 A할머니께서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6층에서 투신 자살을 몇 번 기도하였으나 돌보미의 만류와 상담으로 자살을 모면 하게 되었다고 실토하였다.

사연인즉 할머니는 한달에 26만원의 기초생활 수급금을 받지 못 하면 당장 생계가 곤란하였다는 것이다. 따로 살고 있는 아들이 있거나 실업자가 되어 생활이 어려워 어머니를 돌볼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이다. 현재 살고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 15평의 임대료 15만원 관리비 5만원 매월 주거비 20만원 부담이 어

려워 9평짜리 아파트로 바뀌 줄 것을 주민센터에 요청 하였으나 5년동안 기다리라는 답변이 반복 되고 있다고 한다. 할머니 주장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 시킬려면 생계 대책을 세워주고 탈락시켜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주거문제도 아파트 평수가 작은 것이 없으면 15평에 독거노인 2세대가 함께 살게 되면 주거비 부담이 줄어 좋다는 대안까지 제시 한다. 담당 공무원은 모든 문제를 사무적으로 처리 할려고 하지 말고 현장 상황을 파악 후 민원을 해결해 주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 하다고 한다.

B할아버지께서는 부인과 사별하기 전 자식이 없어 동생의 딸을 양녀로 입적시켜 시집 간지 40년이 지났고 지금은 왕래도 없는데 딸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대상에서 탈락되어 불만이 대단 하였다. 자신에게는 명절 뿐만 아니라 일년 내내 찾아오는 일가친척도 없으니 무시당하기 싫어 이웃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 하고 혼자 술로 위안하고 있으며 찾아오는 사람은 돌보니 뿐이란다.

C할머니는 어렵게 살다 보니 파지 공병 등을 모아 생활비에 보탬려고 하였으나 집주인께서 집안에 재활용품을 수집해 두지 못하게 하니 용돈도 벌 수 없단다. 적적할 때 딸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도와 달라는 전화인줄 알고 받지도 않

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니 정말 외롭고 우울증이 생긴다고 한다. 돌보미께서 딸에게 전화를 하였으니 어머니가 딸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야단하기에 돌보미께서도 딸에게 전화를 못 한단다.

각박한 세상에 살다 보니 인정이 매말라 버린 것일까? 나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하여 어머니를 자주 찾아볼 수 없는 사정이라면 전화라도 자주해 위로해 드리라고 권유 한 후 딸로부터 가끔 상담전화를 받게 되어 문제 해결에 안내자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제 가을이 깊어 가니 곱게 물던 단풍잎도 낙엽이 되면 거리에서 나뒹굴고 있겠지? 독거 노인들의 겨울 준비가 걱정이 된다. 수확의 계절이 가면 한 해의 마무리를 해야겠지... 2012년에는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을 찾아가서 이 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덜어주는 한 해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독거노인 서비스 관련 노인인권 지킴이

박만수

혼자서 살아가는 노인, 이분들의 삶과 그리고 인권과 관련한 속사정을 듣고 보니 생각하지도 못한 만큼 가지가지 문제점이 많았다. 나이가 젊었던 시절은 간 곳 없고 어렵게들 삶을 유지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지난 날의 삶은 찾기가 어렵고 또 자식들은 정말 나 몰라라 하는 현시점에 그네들의 어려움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인지 진정 마음 아픈 일이다, 그런 와중에도 자식들 생각하는 마음은 한결같이 걱정인데 자식들은 그런 부모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들의 삶이 어렵다고 그러는지 어렵게 살아가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는가 하면, 또 다른 일면에는 소식조차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눈시울이 뜨겁다.

자신들의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이 나날을 보내는 당사자들의 삶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비참하다, 그나마도 넉넉지 못한 금액이지만 정부의 지원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이다.

사회의 온정이 필요한 곳이되, 그렇게 살다보니 자신이 알아야 할 문제와 정부의 정책은 전혀 모르고 남의 일인 듯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니 자기 권리를 찾겠다고 나서는 분이 거의 없이 살아가는 분이 대다수다.

지금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이 분들에게도 알권리가 있다는 것과 정책을 알게 함으로써 자기의 권리를 찾고 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우리들 이라도 발벗고 나서서 찾을 수 있는 권리와 정부의 정책을 심어 주는 일이 우선 선결 문제가 아닌가 싶다.



변화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 이희봉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11년 현재 노인 인구가 11.3%로 집계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이에 지속적인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인들도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적 자원이야말로 미래국가 성장의 원동력이자 핵심요소이다. 대한민국은 민족근대사의 역사적 격동기를 지나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급속히 성장했다. 세계사에도 유례 없는 놀라운 부흥을 했다. 노인인권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실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싶다.

독거노인을 방문해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집안에 들어서자 특이한 냄새와 분위기는 걱정스럽고 주름으로 짙은 노인의 얼굴 침침한 골방에서 세상에 떠밀려 살아온 것 같은 말투였다.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이 자기 말고도 아랫방에 산다고 했다. 또래 의식으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덮어주고 내일의 희망은 없어도 오늘을 연명하면 족한 그런 분위기의 생활 속에서 삶에 찌든 노인은 삶 자체가 무관심한 것 같았다.

왜 귀신이 잡아가지도 않는지 몰라 하셨다.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상담하면서 생활환경의 장점과 단점을 최대한 빠짐없이 관찰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눈만 뜨면 의식주 등에 대한 걱정, 밤에는 통증으로 인

해 수십 차례 일어나는 노인, 고혈압·당뇨·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경제적 부담으로 대부분 자신을 돌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복지예산을 매년 증액한다고는 하나 제대로 집행 되는지가 궁금하다. 이에 국가가 나서서 노인주거 환경과 건강관리에도 복지예산이 과감히 투자되어야 한다.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있으나 형식에 불과하다.

사회 서비스 확충전략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인력 확충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대상자 요구 수준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독거노인의 생활수준 향상에 정착목표를 두고 노인복지를 본격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부부세대 등의 실속있는 복지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록 넉넉히 살지는 못할지라도 마음만이라도 따뜻하게 여생을 보내도록 하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다함께 취약 계층과 이웃 간 차별을 허물고 이웃 주민과 함께 웃으며 고통을 나누는 맞춤형 서비스와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격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보다 효과적인 노인지킴이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희망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인권지킴이 선생님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보냅니다.



노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

| 강석규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 지킴이 2년째 활동을 마감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여태 몰랐든 것을 알게된것도 있지만 한편 미리공부를 더 했어야 하는 아쉬움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알면 아는것 만큼 얻는 성과도 클 것인데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 스스로 사전준비가 소홀했다는 점이다.

금년도 활동 목표는 독거노인 인권 모니터링 역할이었다. 처음에는 노인 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물론 독거노인의 개념조차 모르고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협조를 얻어 독거노인 돌봄이의 안내로 독거노인 집을 방문하였다. 독거노인 문제는 여성 독거노인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부분의 방문 독거노인은 할머니들이 었다. 이들은 경제적 빈곤, 육체적 정신적 노환으로 인한 병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도둑, 주거환경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들 독거노인의 대부분은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돌봄 또는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딱한 노인들이었다. 노인문제가 현재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그 심각성을 직접 이렇게 느껴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나마 기초생활비를 받고 있는 노인들도 집세(대부분 월세)를 제하고 연료비 특히 겨울에는 난방비를 제하고 나면 불과 몇 만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보다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비 지원도 못받는 소위 차 상위계층이 더 심각함을 실감 하였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와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 등으로 가족들의 부양의식이나 돌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된 현실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등을 통해 독거노인이 격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함께 고민해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미흡하지만 이제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옛날에는 생각조차 못했을만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1,2,3,급)해당 수급자는 일부분 자기부담금도 있지만 시설에서나 재가에서 전문요양사로 부터 보호를 받고 있으나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정책이 미흡함을 느꼈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빈곤층 노인들에게도 공적 돌봄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도 늘려야할 것이다.

노인 돌보기가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하에서 끝까지 돌볼가족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빈곤층 독거노인에게 공적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가 절실했다. 이들 공적 돌봄이들은 전문요양사와 비슷한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1인1일 15~20여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하다보니 집안청소, 식사문제, 세탁, 목욕등등 양질의 수발은 생각도 못하고 단순한 건강상태의.식.주.문제에 대한 이상유무만 확인하는 정도로 방문 일과를 마친다.

그것도 1주에 한번이 고작이다. 그외 안부전화 또는 다른복지 시설에서 밀반찬 지원이나 위로 방문서비스를 받는 노인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이 가난과 질병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독거노인이 많았다.

어느날 독거노인(할머니)가정을 방문하고 출입문을 나설때 독거노인이 하신말씀이 아직도 그 정확한뜻을 이해 못하고 늘 귓전에서 사라질 줄을 모른다. “늙은이 때문에 나라 망할끼~다. 어서 죽어야제” 할머니님 무선말씀을, 할

머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흘린 피땀이 밑거름이 되어 지금 우리나라는 부자나라로 잘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걱정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급속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안고 있지만 누가 그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서러움을 주었던 말인가...? 눈시울이 뜨겁도록 북받치는 가슴을 움켜쥐고 골목길을 나왔다.

8.15, 6.25, 그 참혹했던 시련을 딛고 보릿고개를 수없이 넘고 넘어 잘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 이를 악물고 세계최빈국에서 세계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키운 그들이 이제는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을 갈가먹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인가...? 아름다운 삶은 복지다.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고 복지 없는 나라는 망한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과잉 복지로 망한 나라도 있다. 재산을 자식들에 넘겨주고 정부지원을 받겠다는 암채 노인들도 있을 것이다. 보다 철저한 조사로 맞춤형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사례도 있었고 아픔과 외로움의 고통을 못견뎌 자살을 하는 노인들, 끼니와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는 어려운 노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독거노인의 정서적 지원(돌봄이) 즉 여과활동, 상담, 행정, 지원 그리고 낙상, 자살, 임종, 교육 등은 노노케어 복지도우미로 건강한 노인이 건강치못한 노인을 돌보면 노인 돌보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생각보다 건강하고 활발한 노인들도 많다. 평생 축적한 지식과 경험등으르 다양한 서비스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한정된 활동 구역과 시간 그리고 사전 전문지식의 부족 등으로 뜻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 아쉬움으로 남는다.

독거노인들의 고달픈 삶

최길자 |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단풍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다. 시간은 잡을 수 없는 바람과 같은 것. 날씨가 추워지면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가 더 힘들어 지실 텐데...하고 생각하며 우리 노인 인권지킴이단은 일정대로 동 주민 센터와 연계하여 독거노인 돌봄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했다. 시설을 방문했을 때와는 다르게 어르신들의 삶은 지치고 어두워보였다. 공간은 매우 협소했고, 대부분 2~3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초 생활 수급자로 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였다.

노인 지킴이단은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하고 먼저 양해를 구했다. “어떤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지요?” 하는 질문에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모른다고 하셨다. 좁은 공간에서의 힘든 생활에서도 돌봄이의 방문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은 단 1분만의 만남만으로도 만족해 하시는 듯 했다. 복지관 또는 종교 단체로부터 약간의 물품 지원을 받고 있다고도 하셨다.

“가장 힘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겨울에 난방문제가 가장 참기 힘들다고 하셨다. 연료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철 추위를 견디는데 그나마 전기요금까지 올라 올 겨울이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셨다. 또한 폐지를 주어 팔아서 겨우 용돈으로 쓰고 있다며 쓸쓸한 표정을 지으셨다.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기 요양시설도 많지만 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은 생각도 못하고 아무도 돌아보는 친척도 자식도 없는 외로운 삶을 살아

야하는 현실이 고달퍼서 더는 살고 싶지 않다고 하시며 눈가에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다.

마음이 무거웠다. 국가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살아오신 어르신들. 오늘날 그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해마다 연말이면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연탄 나눔 행사가 각 기관과 봉사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혜택을 받는 독거노인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사회적으로 학교 전면 무상 급식문제로 왈가왈부하는 상황에 한쪽에서나마 독거노인들의 난방비 문제를 공론화해서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곧 닥쳐올 겨울의 난방문제를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다.

현명하게 살자



박진동

거리의 가로수 앞에 물이 들기 시작하니 또 한해가 가는구나, 닥쳐올 추운 겨울을 걱정하는 많은 독거노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오늘 비가 오니 지난 여름 대구 동인동 어느 허름한 주택에 월세로 사는 78세 김 모 할머니 덕에 ‘독거노인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했을 때, ‘비가 오려하면 몸이 먼저 알고 날구지를 해서 자기가 일기예보관이다’ 라고 하던 생각이 난다.

방바닥에 비닐장판을 들추어 보이는데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겹으로 쌓여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벽에도 빗물이 스며들어 벽지에도 곰팡이와 빗물자국이 벽화를 연상시킨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해 달라고 말씀 드려 보았느냐고 질문하자, 집세도 싸게 해 주어서 고마운데 집주인이 돈을 쓰게 하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까봐 겁이 나서 말을 못한다고 한다.

방문한 독거노인 대부분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참고 적응해 가면서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30여만원과 노령연금 10만원의 돈으로 집세(10여만원)와 실생활비용 등을 쓰고 나면 겨울 몇 달 동안의 난방비가 매년 부족하여 걱정이 된다고 한다.

오래된 모 아파트는 7평자리 9평짜리 건물로 집주인들은 거의 살지 않고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모 할머니는 젊어서 안 해본 것이 없이 일을 해서 모아쓰고 남은 돈 일천만원이 있어서 주민센터의 주선으로 농협에서 일천만원을 대출 받아 이천만원의 전세금으로 살고 계신다.

주거는 걱정 없이 살고 있고 대출금 상환은 수급비 등에서 매월 7만원 가량

공제하고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겨울에는 난방비가 걱정이다.

빌라에 사는 김 모씨는 강원도 속초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서울 모 대학 학부 출신으로 호화롭게 살다가 가정이 몰락하여 홀몸으로 전전하다가 대구에 정착해서 여러 잡다한 일을 해 보았지만 결국 몸에 병만 생겨 고생을 하다가 대구 서구 모 복지관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어 주민센터의 도움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계신 분들은 장관 교체나 도배라도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겨울 난방비 해결은 독거노인들의 공통적인 바램이다.

주민센터에서 보내는 도우미들의 방문이 있기는 하지만, 1일 배당되는 독거노인 수가 너무 많아 보이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만 활동(통상 7개월 정도) 하다가 오지 않으니 아쉽다. 노인인권지킴이 단원들은 지속적으로 모든 수급자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권리라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은 노년의보람

이방자 |

퇴직후 노인 상담활동에 종사하며 많은 노인들을 접하면서 혼자 힘으로 살아 가기 힘든 병약한 독거노인들이 가족과 자녀 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심지어는 재산 문제로 폭행까지 당하면서 아무런 선택의 자유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사회 곳곳에는 인권 의식과 인권 보장이 뒷 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저 역시 인권에 대한 기본의식은 알고있으나 어떤 깊이 있는 절차에 대해서 알고싶어 제3기 노인 인권 지킴이 단에 치열한 경쟁 속에 입단 하게된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선배님들과 열심히 활동 하게 되었다.

2011 .년 5월 30일—31 일 [1박 2일]

국가 인권 위원회 인권 교육센터 전국 노인 인권지킴이단

워크숍에 참석하여 알찬 교육을 받았다. 인권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용어지만 여전히 무거운 주제로 인식 되고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30년 이상길어지고 과거 노년 세대와 그 특성이 다름은 물론 구성원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높아지는 오늘날 과연 누가 노인인가? 에대한 대답 조차 하기 어렵다. 교육을 받은후 노인지킴이단활동이 내삶의 보람으로 생각하며 나의손길을 필요로 하는 외로운노인들에게 좀더 좀더 가깝게 닥아 가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해본다.

노인 인권 지킴이단 2조는 7명으로 구성되어 독거노인 서비스관련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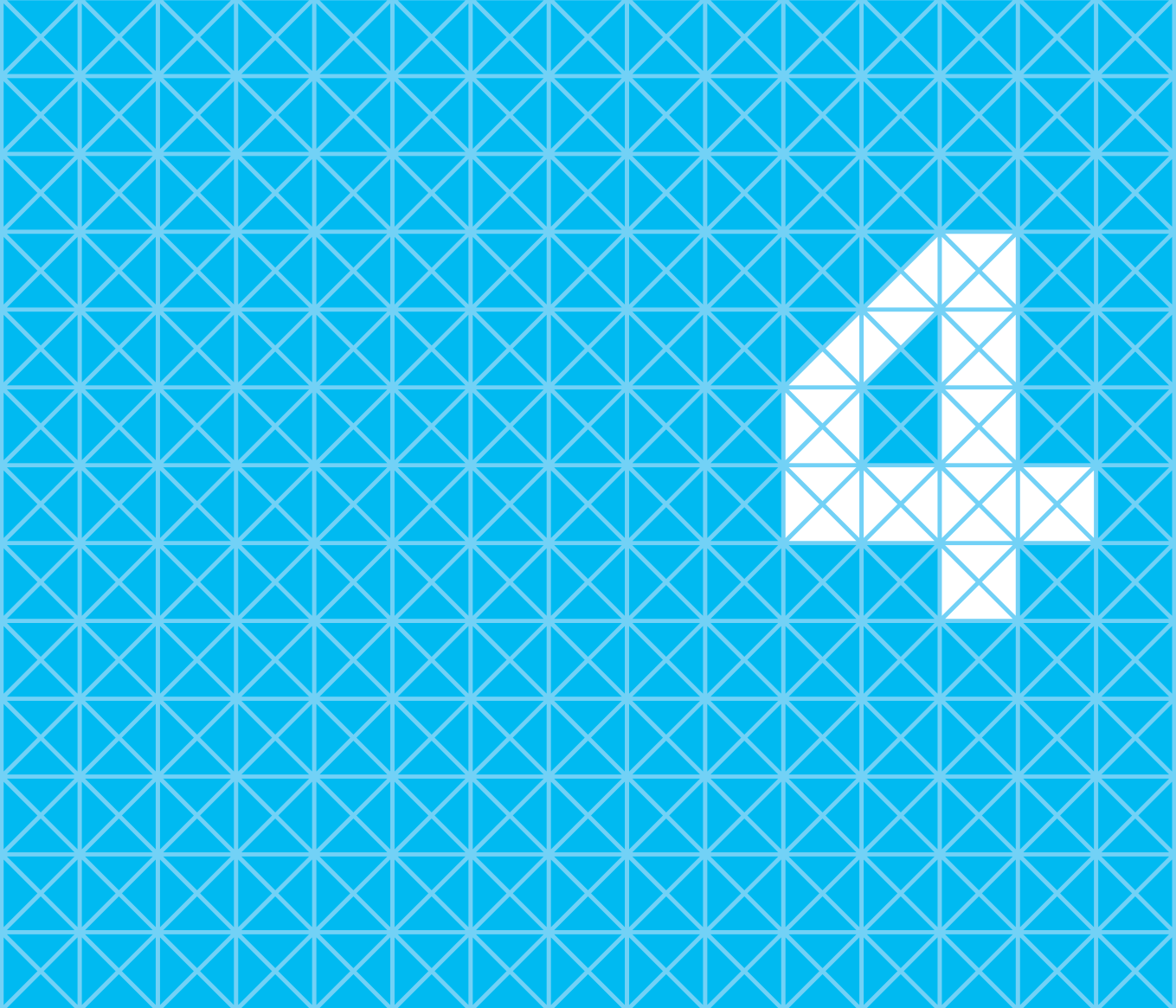
활동을 증구동인 주민센터에 모여 복지기관 담당자와 독거노인집에 직접 방문할 대상자를 선정받아 활동이 시작되었다. 첫날 2개 조로 나누어 주로 호소하는 문제에 대한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열악한 환경과 만성질환의 건강상태를 주로 호소하며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난방비가 부족하여 전기 장판을 사용하지만 국가에서 복지혜택으로 나오는 노령연금과 기초생활 수급비 월 40만원으로는 생활하기엔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며 밝은 표정을 보일 때 그나마 복지제도가 정착되어 힘들고 어려운 노인들에게 고르게 혜택을 줄 수 있어 다행이다. 종교 단체나 이웃의 작은 나눔이 독거노인들을 외롭지 않게 해줌으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에 대한 노인이 알아야 할 권리는 홍보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복지도우미[노노케어]들이 독거노인들에게 주3회 방문하여 7개월 동안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을 1년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음[생활 서비스를 받을 권리] 국가적 예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선되었으면 하는 모두의 바람이다. 끝으로 모니터링을 같이 했던 모뎀원들과 팀장님 인권위원회 권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독거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가족처럼 필요함이 우선적인 바람입니다.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 ▶ 대구 노인인권지킴이단이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했다.
 - 기초수급대상자 탈락 사례 : 노인인권지킴이단들이 부당하게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노인에게 이의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담당 노인돌보미를 통해 동사무소 복지담당자에게 위 사항을 전달하고, 탈락된 독거노인들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요청함.
 - 학대사례 : 지킴이단들이 방문 시에 독거노인 면담, 노인돌보미 면담을 통해,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쉼터 소개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혜택의 적정성 문제
 - 서비스에 관한 무지 문제 : 무료급식, 밑반찬 서비스, 치료비 지원 등 지역 교회, 복지관 등에서 진행되는 서비스 등이 있음에도 독거노인 당사자는 물론 돌보미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았음.
- ▶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인권증진 모범사례도 발견하였다.
 - 주민센터 담당자가 영구주택을 안내해줘서 영구주택을 담보로 영주주택 입주금을 마련해 살도록 해준 경우가 있었음. 이와 같은 주민센터 담당자의 안내를 확대 시행하면 좋을 것 같음.
- ▶ 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 노인인권지킴이단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 노인의 인격권과 인간존중의 관점에서, 독거노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막기 위해 싱글 실버(single sliver) 라는 단어를 사용 제안.
 - 최근 장기요양보험 운영 관련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음. 피요양자 입장에서는 요양판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 차별의 사전 예방 등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등급판정 이후 재판정청구제도 등 이의제기 절차는 적극 홍보하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노인 전용 쉼터 운영이 필요함. 노인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여 긴급한 사안의 경우 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임.(이와 관련해 노인전용 영화관 등 노인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음)
- ▶ 공원이자 지하철 등 삼삼오오 모여 비생산적인 놀이 활동, 점심때가 되면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는 비효율적인 것 보다는 작은 일자리라도 마련하여 근로케 하여 그 대가로 급식을 제공한다거나 거마비를 주는 방안 강구해야 함.
- ▶ 노인 당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도 중요하나, 사회생활, 가족생활 등에서 비롯되는 인권침해 사안이 대부분인 노인인권침해의 특성상, 사전예방 차원에서 교육대상자의 확대 및 의무화도 검토해야 함.
- ▶ 서비스에 대한 무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독거노인 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04

세계인권선언 및
노인을 위한 UN원칙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전문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기에, 인권 무시와 멸시는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 없는 세계의 도래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으로 선언되어 왔기에, 인간이 전제와 탄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의 지배에 의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여러 국가 사이의 우호적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유엔의 여러 국민들은 유엔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평등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 더욱 광범위한 자유 중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고자 결의하였기에, 가입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 및 준수의 촉진을 이루어내고자 서약하였기에,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된 이해는 그러한 서약의 완전한 실현에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따라서 이에 국제연합 총회는 사회의 모든 개인과 기관이 이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가입국 자신의 인민들과 자국의 통치하에 있는 인민에게도 이들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교육을 통하여 촉진하는 일 및 그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확보하도록 국내적 및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이룩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이 세계인권선언을 공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1.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2. 나아가 개인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어떤 주권제한 하에 있든지, 그 국가 또는 지역의정치적, 사법적 또는 국제적인 지위에 근거하여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괴로운 노역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금지된다.

제5조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떤 차별로부터도, 또한 그러한 차별을 부추기는 어떤 행위로부터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및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및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이 결정될 때에 독립된 공평한 법원에 의해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는 데 있어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도 행위 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가 되지 않는다. 또한 범죄가 행해진 때의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누구도 자신의 개인적인 일,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함부로 간섭 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경계 내에서 자유롭게 이전하고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이나 다른 나라를 떠나거나 자국에 돌아갈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체재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를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 및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을 원인으로 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원용될 수 없다.

제15조 1. 누구에게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누구나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제16조 1.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기간 중 또는 그것을 해소할 때에 시에 혼인

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은 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 단위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나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포교, 행사, 예배 및 의식을 통하여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하며, 또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국경을 넘거나 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도 결사에 소속할 것을 강요 받지 않는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평등하게 공무를 담당할 권리를 가진다.
3. 인민의 의사는 통치권력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 의사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해 표명되어야 한다. 이 선거는 평등한 보통선거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비밀투표 또는 그것과 동등한 자유가 보장되는 투표절차에 의해 치러져야 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 및 국제적 협력에 의해 또한 각국의 조직 및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과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이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에 의해 보충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또한 그것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복지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불능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어린이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적출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과 기초적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충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나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상호간의 이해, 관용 및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이어야 하고,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

는 것이어야 한다.

3. 부모든 자녀에게 주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그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오나전하게 실현될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인격의 자유롭고 완전한 발전이 그 사회 속에서만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의무를 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정당한 승인 및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지의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로써 정해진 제한에만 복종한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모든 규정은, 어떤 나라나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이 선언에 열거된 권리와 자유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의 행위를 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노인을 위한 UN 원칙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은 1991.12.16 유엔 총회 결의안 46/91에 의해 채택되었다.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은 사회에 기여하는 노인들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되며, 각 국가들은 가능한 시기에 그들의 국내 프로그램에 이 원칙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독립 Independence

1. 노인들은 소득이나 가족 및 지역공동체의 지원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적절한 의식주와 의료보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인들은 일할 기회를 갖거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다른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인들은 언제, 어느 시기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노동으로부터 제외될지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노인들은 알맞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노인들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능력에 따라 안전하고 적응가능한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6. 노인들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참여 Participation

7. 노인들은 사회에 통합되어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참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형성과 실행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해야 한다.
8. 노인들은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 기회를 찾고 개발 할 수 있어야 하며, 자원봉사자로서 자신들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알맞은 위치에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9. 노인들은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이나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보살핌 Care

10. 노인들은 가족과 공동체의 보살핌 그리고 문화적 가치에 따른 각 사회 시스템에 부합하는 보호에서 우선 혜택을 받아야 한다.
11.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최적의 상태와 감성적인 안정을 유지하거나 되찾기 위해 또는 발병을 예방하거나 늦추기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2. 노인들은 자신들의 자치, 보호 및 보살핌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 법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3. 노인들은 인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자활, 그리고 사회적, 정신적 자극을 제공하는 제도적인 보살핌을 알맞은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4. 노인들은 어떤 주거지에서 생활하든 자신들의 존엄, 믿음, 필요, 사생활, 그리고 자신들의 간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자아실현 Self-fulfillment

15. 노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계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16. 노인들은 사회의 교육적, 사회적, 영적 및 여가적인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존엄 Dignity

17. 노인들은 존엄성을 가지고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18. 노인들은 나이, 성, 인종적 혹은 민족적 배경, 장애 또는 다른 직위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 기여와 무관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보고서 2011

인쇄 : 2011년 11월

발행 : 2011년 11월

발행인 : 현 병 철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주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전화 : (02) 2125-9725 FAX : (02) 2125-9733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디자인 : designIS(02-363-0773)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282-10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